

昭和七年七月十九日發行（每月一回一日發行）  
 昭和七年五月一日（第三種郵便物認可）

# 한글

第一卷 第三號

進呈

## 綴字特輯



### 本號要目

- 周스승님을 생각함.....
- 世界各國의 文字運動.....
- 朝鮮文 表記法 變遷.....
- 綴字法의 合理化.....
- 새말칭의 實例 總覽.....
- 變格活用の 例.....
- 中間音의 過去와 現在.....
- 質疑應答.....

朝鮮語學會編輯

## 綴字法에 對한 本誌의 態度

朝鮮語 綴字法의 完全無缺한 統一案이 確立한 뒤에, 本誌가 나오는 것이, 그 바른 順序일 것이다. 그러나, 綴字法 統一이란 것은 다른 나라 말의 例를 볼지라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時間으로 數百年, 사람으로 無數한 사람이, 아무 整然한 法則이 없이 써오든 우리 말의 綴字法을 統一함에는, 여러 가지 複雜하고 錯亂한 問題가 많다. 그리하여, 本會로서는 年來로 그 統一案 作成에 애쓰는 中에 잊지마는, 그 案이 實際로 成立하려면 아직도 얼마나한 時日을 要할 것이다. 그런데, 本誌에 關한 世間의 要求는 緊切함을 止버릴 수가 없다. 그리하여, 오늘날 標準으로의 形式을 가지고, 이 『한글』이 出現한 것이다.

그러므로, 本會의 議決에 좇아, 編輯의 全責任을 지신 李允宰氏가 위선 本誌의 한글 綴字를 校正하기로 하며, 學術에 關한 各人의 主張하는 部分만은 그대로 쓰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本誌를 通하여 綴字法에 關한 研究가 많이 發表되며 討論되어서, 하토라도 속히 統一案이 成立되기를 期待하자 함이 本會의 決議였다. 그리한즉, 天下 同志와 讀者 여러 분은 이 앞으로, 研究 發表, 意見 討究等에 많이 協同하여, 이 至重한 事業에 完成에 힘쓰어 주시기를 바란다.

### 비 리 周時經 先生 記念

□머 리 말.....	(79)
□한희생 스승님 (時調).....가 람	(79)
□周時經 先生.....	(80)
□周스승님을 생각함.....감 메	(80)

### 東西各國의 文字運動

◇日本 國字運動의 一瞥.....李 熙 昇	(83)
◇歐美列邦의 綴字 改正論.....李 鉞	(87)
◇中國은 表音文字에서 表音文字로.....李 克 魯	(90)
◇土耳其國의 文字革命.....李 允 宰	(95)
◇朝鮮文 表記法의 變遷.....金 允 經	(98)

### 한글 綴字法의 理論과 實際

◆綴字法의 合理化.....申 明 均	(112)
◆綴字法 原理.....金 善 琪	(114)
◆새 받침의 關한 諸 問題의 解決과 그 實例의 總覽.....崔 鉉 培	(120)
◆變格活用例.....이 윤 재	(133)
◆中間音의 過去와 現在.....김 윤 경	(137)
●質疑應答 三則.....	(146)
●本會 記事.....	(147)
●남은 말슴.....	(147)

머 리 말

오는 칠월 스무일해날은 우리 한힌샘 스승의 환으로 돌아가신 열여덟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에 우리의 스승을 그리워 생각함이 그지없으며, 더욱이 이 『한글』을 박아내자 처음으로 맞게 되는 이 때를 다다라, 오로지 이로 하여 한 뉘를 바치신 스승의 그 적의 일을 돌아보며, 우리의 우러러 느낌이 다시금 새로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스승을 생각하는 한 보람으로, 여기에서 『한글 글씨 맞힘』을 따로이 실으기로 한것입니다. 이는 첫째로 스승의 끼치신 뜻을 이으려 함이며, 다음으로 오늘날 여러 사람들이 모두 알고 싶어하는 뜻을 맞추려 함입니다.

이 한 말로 써 이 달 처 『한글』을 박아내는 대강의 뜻을 적습니다. (이운재)

한힌샘 스승님

가 람

온 누리 킁킁하고 바람도 사납은데  
꺼지는 그 등불을 다시 밝혀 손에 들고  
그 밤에 험곳은 길에  
앞을 서서 가시다。

던거튼 옛 동산에 길이 새로 뇌었어라  
어리든 잠을 깨고 서로 땀아 나아가니  
제마다 새 눈 뜨이며  
어헤해 해 하노라。

진대나 마른대를 어이 골라 드되오리  
비 오고 눈이 오든 밤과 낮을 가려오리  
다만 그 바쁘신 길을  
다 못 걸어 하시다。

헐고 문어지고 그 무어이 남았으리  
맑고 가신 그 자취에 몬지라도 귀엽거든  
하물며 또 다시 없는  
이 보배를 위함어라。

구밈과 진장함은 좀에도 없으시며  
비웃고 사위하여 기리는 이 뉘이오리  
스스로 믿으신 마음  
에어갈뿐 이외다。

어저 동무들아 의말만 이틀쇼냐  
넓은 그 이마에 빛나는 슬기시며  
크고도 깊으신 안이야  
다시 헬수 없노라。



로 朝鮮語 復興의 新機  
運이 된것이다。

처음에는 자기의 言文  
을 자기가 연구하겠다는  
단순한 自覺만으로 시작  
한 것이, 차차 연구가 깊  
어감을 따라, 조선말의  
本質, 音響, 形式이 아름  
다울뿐 아니라, 語彙와  
音彙가 풍족하고 條理가  
整然함을 깨달은 후로  
는 더욱이 埋沒된 것을  
들어내고 어지러운 것을  
바루잡아, 이의 價値와  
効用을 하루 바삐 넓게  
하려는 생각이 간절하여  
지자, 거의 寢食을 잊다  
싶이 二十年을 하루같이  
연구에 종사하였다。

열여덟살 때에 時運에 깨달음이 있어,  
당시의 신학문을 배우려고 열아홉살 되던  
甲午年에 잠시 서울집에 갔다가, 다시 서  
울로 와서 培材學堂에 들어 學業을 닦게  
되니, 모든 배포가 무리들 가운데 뛰어나,  
또래중에서는 推仰을 받게 되었었다。

그러나, 임이여 안심하옵소서。 임이 이  
승에 십거 두고 가신 생명의 나무는 찬  
서리에도 마르지 아니하고, 모진 바람에  
도 넘어지지 아니하여, 뿌리는 더욱 넓터  
번지고 가지는 더욱 무성하나이다。 그 아  
름다운 꽃송이는 남북 삼천리 골골의 어  
린 아이들의 손속에 쥐여서, 그 맑은 향  
기를 어린 목숨에 뿜으며, 그 무르녹은  
푸른 그늘알에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 들  
어, 험복한 서늘(涼味)을 맛보나이다。 저  
이들도 물론 오늘의 요만한 향기와 요만  
한 그늘로써 넉넉하다고 생각하지는 아니  
합니다만, 이러한 역정에서 이만한 생



【周時經 先生의 照相】

선생이 공부할 때도 그  
生涯가 결코 단순하고 쉽  
지는 못하였다。 후 남의  
고용이 되며, 후 인쇄소에  
품을 팔며, 후 航海術을 연  
습하고, 후 칩쌀술을 연  
구하고, 후 시골집에 돌아  
가 家業을 도우며, 후 스  
승을 따라 학업을 일삼으  
며, 후 新聞記者가 되며,  
教育家도 되며, 한때에  
는 政治運動에도 몸을 던  
져, 京鄕으로 오르내리며,  
참으로 변화가 심하였으  
나, 그 朝鮮語 연구의 誠  
心만은 한 때도 덜함이 없  
었다。

이 사이의 고심과 노력  
이 지극하였을것은, 도저 당사 밖에는  
헤아릴 바가 아니다。 그는 이것을 위하여  
받은 지극한 노고를 도리어 지극한 쾌락  
으로 알아, 온갖 事力을 모두 朝鮮語 연  
구 앞에 희생한 것처럼 온갖 기회를 모두  
朝鮮語 연구 속으로 이용하여, 理想을 實  
現하려는 노력은 비상하지 않을 수 없었

장과 발달은 진실로 수무해전에 저이가  
능히 기대치 못하던 成果라 아니할 수 없  
을니다。 그러나, 이 뜻밖에 成果는 도리  
어 또 당연한 取獲이라 할 것이외다。 위  
그런나 하면, 원래 眞理는 最後의 勝利를  
얻는 법이며, 適土에 심겨진 生物의 씨  
는 도리어 그 生長의 기회를 얻고야 마는  
것이기 때문이오아라。

스승님이시어! 스승님께서 이승에 게  
실적에 우리 한줄의 바른 길을 닦기 위하  
여, 얼마나 애쓰셨으리까? 四千年의 鬱  
蒼을 헤칠새, 임의 도끼가 끊었으며, 數百  
載의 荒蕪를 땀질(開墾)할새 임의 땅이

다.

培材學堂 在學 時에는 同門生들과 함께 協成會를 조직하였으며, 獨立新聞社 在任中에는 同業者와 한가지 國文同式會를 경영하였으며, 尙同에 學院이 설립되매, 朝鮮語 文法科를 두게 하고, 당시 醫學校에 知己가 있으므로, 그 안에 國語 研究所를 세우고, 밤



【朝鮮語講習院 卒業狀】

에는 夜學講習所, 日曜에는 日曜講習所를 두며, 學部안에 國文研究所가 열리매, 그 연구의 中樞가 되고, 外人들 사이에 韓語研究會가 생기매, 그 辨難의 표준이 되고, 公私立 學校의 朝鮮語 科정을 교수도 하며, 혹은 자기가 자담하여, 改革運動도 일으키며, 朝鮮光文會가 설립되매, 朝鮮言文에 관한 文書 校正과 辭典 編纂의 지도에 전력하며, 自家平生 研究의 근거있는 運動을 삼으려하여, 朝鮮語 講習院을 창립하여, 청년을 모아, 敎養에 정성을 다하였

가 이질어졌으리. 바위들 조각들을 치우기에 임의 손이 아팠으며, 가파른 비렁과 부드러운 산길을 다니기에 임의 다리 저렸으리. 쉬운 길 하로 가기에 도 외로움이 어렵거든, 하물며 그렇듯한 깊은산, 험한 길에 一生 旅程을 혼자만 걸었으니, 그 고생이 어뤘하였으며, 그 孤寂이 얼마나 심하였으리. 孤獨과 勞苦는 임의 맘을 더욱 아프게 하며, 임의 몸을 더욱 피곤케 하였으며라, 三十九 歲의 壯盛으로써 七月 炎天에 不歸의 길을 떠나시니, 아아, 임의 一生인즉 되었(疲困하였)도다. 임의 命을 받들거 地方의 夏期講習 中에서 임

다.

선생의 著書로 오늘 날 우리에게 끼쳐 준 글은 國語文典音學 한 권 (隆熙 二年 十二月 六日 博文書館 發行), 朝鮮語文法 한 권 (= 처음에 國語文法이든 것을 改名, 大正 二年 九月 二十七日 新舊書林 博文書館 發行), 말의소리 한 권 (大正 三年 四

月 十三日 新文館 發行)이 있다. 그중 말의소리는 선생이 손조 쓰신 石版印刷의 책이다. 아직도 한글을 위하여 할 것이 많고 더욱이 경영만 하고 이루지 못한 말모이(辭典)도 있었지마는, 하늘이 그 목숨을 더 연장하여 주지 아니함을 한하리토다.

선생의 이러듯한 공적과 거룩한 그의 인격은 영원히 후인을 감흥시킬뿐 아니라, 선생의 勳業은 朝鮮語와 한가지 그 생명이 영원할 것이다.

의 가신 소리 듣고, 講習生들 앞에서 그네들과 함께 목놓아 울든 記憶은 어제같이 새로운데, 꿈아 보면 열 아홉 해 전에 일이니, 아아, 흐르는 것은 歲月인저!

세월이 이미 빠른지라, 임의 뿌리신 씨들이 자람도 또한 빠르되다. 그 열매는 말서 조선의 목숨을 기르며, 그 열매의 씨는 또한 쉬지 않고 기름진 땅에 뿌려지고 있음니가. 임이여 기뻐할소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임이여 도움소서. 이 씨의 끝없는 번짐을 위하여. (1932해 7달)

# □ 各國의 文字運動 □

## 日本 國字運動의 一瞥

李 熙 昇

日本の 文字를 云爲하려면, 漢字는 그 만두고라도, 假名字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浩瀚하고 煩雜한 일은 紙面과 時間이 아울러 許諾치 아니하므로, 여기에는 明治維新前後로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의 文字運動에 對하여, 그 要點의 要點만을 摘記하려 한다.

### 一. 漢字 廢止說

日本の 國字改良運動은 그 始作이 相當히 오랐으니, 即 慶應 二年에 벌서 前島密氏가 國字國文改良에 對하여 德川慶喜將軍에게 獻議한 일이 있고, 또 明治 二年에 同氏가 「廢漢字私見書」를 元老院에 提出하여, 漢字를 全廢하고 假名을 使用하자는 일을 建議하였으며, 全年에 開成所長 柳川春三氏는 布告書에 假名을 使用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것을 主張하였었다. 또 南部義籌氏는 「修國語論」을 大學에 建議하였으며, 全 四年에 南部氏는 前論을 다시 文部省에 獻議하였고, 全 五年에는 또다시 文字를 改換할 일을 文部省에 建議하여, 漢字를 全廢하고 羅馬字를 採用하자고 唱導하였었다. 明治 五年에 當時의 文部卿인 大木喬任氏는 漢字의 數를 減少시키기 爲하여, 田中義廉, 小澤圭次郎等 몇 사람에게 命하여, 「新撰字書」를 編輯케 하였었다. 明治 六年에는 福澤諭吉氏가

「文字の教」란 冊을 내어서, 漢字廢止를 主張하였으며, 全年에 西周氏는 「洋字を以て國語を書するの論」이란 論文을 發表하여, 羅馬字를 新國字로 採用할것을 主張하였었다.

### 二. 羅馬字 採用問題

또 全年에 當時의 文部大臣이요 世界主義教育의 先覺者인 森有禮氏는 屢千年來로 使用하든 自來의 日本語를 廢棄하고 英語로써 日本의 新國語로 採用하자는 大英斷을 내리려 하였었다. 그리하여, 이 問題를 歐美 碩學에 質하여, 威力으로써 日本國語의 一大 革命을 일으키려 하였었다. 그러나, 美國의 言語學者 Whitney氏는 그 일이 매우 어리석음을 痛論하고, 在來의 日本語를 改良하여 發達시킴만 같지 못하다 하여, 森氏를 戒心시킨 일이 있었으니, 이는 그 때의 世人의 注目을 크게 끌었음뿐 아니라, 우리의 記憶에도 아직 새로운 일이다. (이 問題에 對한 Whitney氏의 書簡은 一八七三年 New York에서 刊行한 「Education in Japan」에 收錄되어 있다.) 當時 英國에 滯在中이든 馬場辰猪氏도 「日本文典初歩」를 지어, 森氏의 愚舉를 論駁하였었다. 그리하여, 森氏의 無謀한 計劃은 餘地없이 破壞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謬想이 깨어진 후로는, 日本 朝野의 有志는 專力을 傾注하여, 自國

語文 研究에 精進하게 되었다。

그 後 明治 十四年에는 伊藤圭介氏가 假名說을 主張하고, 翌 十五年에는 矢田部良吉氏가 羅馬字採用說을 力說하드니, 十六年에 이르러는, 西德次郎, 高崎正風, 那珂通世, 大槻文彦, 丸山作樂, 福羽美靜, 物集高見 等 十七人의 名士가 모여서, 「かなのども」라는 團體를 組織하여, 機關雜誌를 發行하였다。또 그 해에 四種의 假名會가 合體하여, 「かなのくわい」를 組織하였으나, 그 中에는 多少 意見을 달리하는 會員이 있어서, 그 會를 雪, 月 花 三部에 나눈 일이 있었다。

明治 十七年에는 外山正一氏가 漢字排斥을 力說하고, 三宅雄二郎氏는 漢字保存을 主張하여, 彼此間에 激烈한 論戰이 盛行하였다。이 때에 外山正一氏는 矢田部氏等과 協力하여, 「羅馬字會」를 發起하여, 多數한 會員을 얻고, 翌 十八年에는 羅馬字로 日本語를 表記하는 方法을 制定하였으며, 機關誌 「Romaji zasshi」 (羅馬字雜誌)를 發行하여 熱心으로 宣傳하였다。그 후로 榎本武揚, 手島精一, 末松謙澄, 増島六一郎 諸氏가 繼續하여, 이 羅馬字 國字論에 贊成하였다。

### 三. 言文 一致說

明治 十九年에 矢野文雄氏는 「日本文體文字新論」이란 論文을 發表하여, 假名 及 羅馬字論을 排斥하고, 從來와 같이 漢字 假名을 兩 並用하는 것이 가장 賢明한 方法이라는 것을 仔細히 論述하였으나, 그리 世人의 注目을 끌지 못하였다。全年에 物集高見氏는 「言文一致」라는 글을 發表하여, 文章은 모두 國語體로 쓰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說을 高唱하였으며, 또 橫列書法(가로쓰기)을 採用하기를 主張한 것은 當時에 있어서, 매우 嶄新한 考案이라 하

야, 크게 一世의 注意을 끌게 되었었다。西洋文明을 輸入하기에 汲汲하던 그들은 英, 獨, 佛等 歐洲 諸國의 말을 배울새, 그 나라의 말들이 입으로 말하든 것이나 文章으로 적어 내는 것이 全然 同一한 것을 보고, 그 便利한 點에 對하여 三歎을 禁치 못하였으니, 言文一致의 運動이 일어날 것은 自然한 趨勢였다。明治 二十年에 Chamberlain氏와 같은 이도 羅馬字를 採用하려면, 爲先 文體를 改良하여 言文一致體로 變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말을 한 일이 있었다。十九年부터 文部省에서도 教科書中에 國語文을 採用하기 시작하였으며, 二十年頃에 이르러서는 山田美妙齋氏가 또한 言文一致의 必要를 主張하여, 自己의 作品을 言文一致體로 쓰기 시작할 때, 이 機運에 響應하여, 尾崎紅葉, 長谷川四迷, 川上眉山等의 여러 小說家도 다 國語體로 小說을 써 내었다。이리하여, 國語文은 實로 長足進歩의 形勢를 보였다。

그 後 一時는 日本 語文 運動이 떨치지 못하여, 沈滯한 狀態에 있었으나, 明治 二十七八年 日清戰爭이 끝난 뒤에 그 問題는 다시 擡頭하기 시작하였다。卽 二十九年에 落合直文氏는 처음으로 中等學校用 日本文 教科書에 國語文을 넣었으며, 明治 三十三年에는 根本正氏等 五人이 「國字國語國文の改良に關する建議案」을 衆議院에 提出하고, 또 그의 同一한 建議案을 加藤弘之氏가 貴族院에 提出하였드니, 兩院에서 모두 案을 修正하여 可決하였디。

### 四. 新文字 創制說

여기에 한가지 붙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日本 國會에 이 語文改良案이 提出된 時機를 前後하여, 新文字가 많이 創制된 事實이다。元來 文字라는 것은 社會 全般



의 默契에 依하여 漸進的으로 成立되는 것이요, 어느 一個人의 創作的 發明에 依하여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當時에는 여러가지 새 文字가 出現되었나니, 그 理由로는, 첫째, 國民教育 年限의 大部分을 虛費하는 漢字의 弊害는 이미 밝히 認定하게 되었고, 둘째로, 假名판으로는 到底히 日常使用에 滿足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았으며, 셋째로, 羅馬字는 便利는 하지마는, 여러가지 事情으로 因하여 即時 採用할 수 없는 形便을 안지라 차라리 新文字를 製出하여, 文明國이란 體面을 維持 하겠다는 國粹的 觀念과 또 個人으로 文字 發明者로서의 永遠한 榮譽를 얻어 보겠다는 名譽心을 일으키는 사람도 없지 아니하였었다. 그리하여, 各樣各색의 새글자가 輩出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어느 것이나 모두 羅馬字를 變造한 것이 아니면 在來의 假名을 多少 改作한대 지나지 못하였다. 다만 이에 한가지 共通되는 現象은 漢字와 같은 意義文字를 만들어내려 한 이는 한나도 없고, 韻文字를 發明하려고 한 點은 모두 一致되는 바이었다. 그 中에는 田中秀穗氏와 같이 「松」字를 廢止하고, 그 대신으로 「木<sub>3</sub>」라 쓰며, 「杉」字의 대신으로 「木<sub>4</sub>」와 같은 音義 並用의 文字를 만들려 하였으나, 抽象的 名詞나 또는 動作, 狀態等을 形容하는 글자에 이르러는 어찌할 수 없어 모처럼 생각한 名案도 失敗에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 五. 假名字體의 各說

여기에 一一이 紹介키 어려우므로, 대강에 그치고 말려하나, 岡田正美氏의 「改良假名」을 從來의 假名을 多少 改作하여, 漢文을 섞지 않고 縱書하려한 것이요 (但活字의 關係로 文字의 標本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遺憾이다. 以下同), 木村鷹太郎氏

는 橫書 片假名을 案出하였으니, 片假名을 橫書筆寫에 便케하기 爲하여 多少 草體로 變作한대 지나지 못한 것이다. 增田乙四郎氏는 「大日本改良文字」를 考案하여 냈으니, 이는 저 歐洲 文字와 같이 印刷體, 筆寫體의 두가지로 하였으며, 그 印刷體라는 것은 필수 잇는대로 假名의 原形에 忠實하러 하였으나, 草書 即 筆寫體에 이르러는 羅馬字와 매우 近似하여, 原形과는 조금도 같지 않은 것이었다.

또 小森德之氏의 「自由假名」은 全數가 百八十字로 되었으며, 그 中에서 常用하는 文字는 百字 乃至 百四字로 되어, 草書도 假名의 原形에 가깝도록 考案한 것이다. 이 외에도 近年에 이르기까지 制作된 新文字는 十數種에 達하였으나, 社會 一般은 그 新文字에 對하여, 別로 注意를 던지지 아니하였으므로, 一時 出現하였다가 다 有耶無耶中에 장사지내게 되었다. 이와 같이 明治 中葉 以前의 國字運動은 多事多端하였으나, 모두 失敗에 돌아가고, 하나도 이리러할 業績을 이룬 것은 없었다. 이 新文字運動도 結局은 「かなのくわい」와 「羅馬字會」가 失敗한 후에 國字論者가 찾은 避難所에 지나지 못하였었다.

以上과 같은 現象이었으며, 一般 輿論은 지금까지의 國字論에는 반드시 무슨 缺陷이 잇었을 것이다. 이 缺陷을 發見하여, 眞正한 意味의 國字論을 討究하여, 國民의 精神的 文化的 發達에 貢獻하고, 또 그것을 促進시키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重大한 事業을 實行하러면, 이 方面에 對하여, 專門으로 研究하는 사람들을 網羅한 國家的 研究機關을 設置하여, 慎重히 審議하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하였다.

## 六. 羅馬字의 헤본式과 日本式

이와 같은 輿論은 爲先 民間 有志를 움직이기어, 明治 三十一年에 國字改良會를 組織하게 되고, 全 三十二年에는 日本帝國教育會 안에 國字改良部가 新設되어, 漢字調減과 假名, 羅馬字, 新字等に 對하여 調査를 行하였으며, 또 政府와 議會를 움직이기어, 明治 三十三年에는 文部省 안에 國語調査委員會를 두게 하여, 全年十一月五日 附官報로 여러 專門學者에게 委囑하여, 調査케 한 羅馬字書法의 報告를 發表하였다. 또 明治 三十五年에는 文部省 안에 國語調査委員會가 成立되어, 日本國字問題에 對하여, 根本的 調査를 開始하였다.

또 一方으로 民間에서는 國字는 國民의 實用에 借하는 것인 까닭에, 學者의 理論的 考察보다도 國民의 使用 經驗의 結果를 기둘러 國字問題를 解決하는 것이 當然하다 하여, 明治 三十八년에는 「ローマ字ひろめ會」라는 團體가 組織되었다. 이 會는 처음에는 모든 種類의 羅馬字論者를 包含하여, 그 綴字 方式같은 것도 매우 混亂하였으나, 次次 두 種類로 나누이게 되었으니, 하나는 「Romaji Zasshi」의 系統을, 받은 한것으로, 所謂 「헤본式」 綴字法을 使用하고, 또 다른 하나는 「日本式」이라 부르는 綴字法을 採用하였다.

「헤본式」이란 것은 英語式 發音에 依한 綴字法이니, 그 名稱의 起源은 米國 宣教師 J. C. Hepburn氏가 慶應 三年(1867)에 「和英語林集成」(Japanese and English Dictionary)를 出版할 때에 採用한 綴字法을 基本으로 한 대서 생긴 것이다.

「日本式」이란 名稱은 明治 三十八年(1905)에 田丸卓郎氏가 붙인 것이니, 前者가 外國音을 標準하여 分析的 寫音主義를 採用함에 對하여 後者는 綜合的으로 日本語의 性質을 考察하여 日本語 聲音組

織에 適合하도록 綴字하는 方式이다. 이 두 主義는 서로 容納되지 못하고, 後者는 畢竟 明治 四十三年에 「日本ローマ字社」를 設立하여, 分離하여 나오게 되었다. 그 후 大正 十年에는 名稱을 「日本ローマ字會」라 改稱하여,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그 勢力은 도리어 「헤본式」을 凌駕하게 되어, 機關雜誌 「Ronazi Sekai」를 月刊하며, 또 「Romaji no Nippon」이란 雜誌도 發行하고 있다. 그 外에 字典, 讀本, 其他 여러가지 書籍을 이 「日本式」 羅馬字로 出版한 것이 있다.

## 七. 假名論의 復活

羅馬字論의 趨向이 저와 같은 一面에 假名論도 漸漸 復活하게 되어, 大正, 昭和 時代에 들어와서 擡頭하기 시작하였으니, 卽 上述한바 小森德之氏가 字形이 巧妙한 橫書片假名(自由假名)을 案出하여, 「ヨコガキシンブン」을 發行하다가, 氏가 逝去한 후에는, 아무도 그를 繼承하는 이가 없고, 假名論은 一時 中絶狀態에 빠졌드니, 大正 八年 七月에 稻留正吉氏, 全 十一月에 青木良雄氏等이 다시 假名國字論을 主張하였고, 大正 九年 十一月에는 中村春二氏가 平假名 縱書를 主張하여, 「かながきひろめかい」을 設立하여, 雜誌 「かなのめばえ」를 發刊(후에 「つぼみ」라 改稱하였다) 하였다. 全 十年 一月에는 高尾謙一氏가 片假名 橫書로 主張하여, 「ニホンジヒロメカイ」를 設立하여, 翌年부터 「フジン・チヨーホー・シンブン」을 發刊하고, 山下芳太郎氏는 全 十一年 二月부터 「カナモジカイ」를 組織하여, 雜誌 「カナ・ノ・ヒカリ」를 月刊하고 있다. 또 全 十二年 九月부터 前田直平氏는 「ヨコガナ・ヒロメ・カイ」를 創立하여, 「コクジ・シンブン」을 發行하고 있다. 이 外에 山崎笛郎, 衣笠寛,

君島當三等 諸氏は 新案假名을 案出하였으나, 그前 明治時代の 所謂 新國字와 같이 社會의 共鳴을 얻지 못한다. 假名論中 극히 少數를 除하고는 모두 橫書를 主張하는 것은 注目할만한 現象이며, 그中의 「カナモジカイ」는 저 「日本ローマ字會」와 對峙하여, 日本國字問題는 兩大分野로 나뉘어 있는 感이 있다. 前者는 大阪의 實業界를 背景으로 하여, 國粹的 色彩를 가지고 그 主義를 宣傳하며, 後者는 東京에 있는 學術界 特히 科學界를 中心 地臺로 하여, 進步的思想으로 羅馬字의 勢力을 貶低한다.

### 八. 漢字 制限問題

이와 같이 沸騰한 國字論속에서 漢字問題는 어찌되었나?, 假名論者, 羅馬字論者中何者를 勿論하고, 漢字를 排擊하는 데는, 一致協力하여 共同戰線을 펴고 있는 觀이 있다. 國語調査會라는 官制는 大正 二年 六月로 廢止되고, 全 十年 六月에 또 臨時 國語調査會라는 것이 文部省 內에 設

置되어,

(1) 漢字에 關한 調査. (2) 假名 綴法에 關한 調査. (3) 文體에 關한 調査를 事業의 要綱으로 하였다.

그中 第一項에 對한 調査의 結果는 大正 十二年 五月에 發表되었으니, 卽 1962字의 標準漢字表와 154字의 略字表가 그것이다. 一般 輿論은 雙手를 들어 이것을 歡迎하여, 東京, 大阪의 有力한 新聞社는 곧 實行에 着手하였다. 이 實行은 關東 震災로 因하여, 一時 阻止된 狀態에 있었으나, 그 후에 다시 恢復되어, 現在 實行하고 있는 中이다.

### 九. 結 論

以上은 日本의 國字問題의 過去를 走馬 看山格으로 文字 그대로 「一瞥」하였을뿐이니, 今後의 이 問題는 과연 어떤 方向으로 展開될는지, 매우 興味 있는 구경거리라 하겠으며, 또한 語文問題가 漸次 高調되는 朝鮮으로서는 他山의 石이 될 줄 안다

## 歐美 列邦의 綴字 改正論

李

發達을 過程치 아니한 完全한 文字가 世上에 어데에 있으며, 또한 改正과 整理의 過程을 過程치 아니한 完璧의 綴字法과 語法이 어느 나라 어느 民族에게 있는가? 만일 있다 하면, 그것은 모든 歷史의 本質을 否認하는 큰 矛盾일 것이다.

白日中天의 늦은 잠꼬대 모양으로, 뒤늦게야 語文의 整理를 부르짖게 된 우리로서는, 先進 諸 民族의 必然的으로 일어났든 그 語文 整理 運動의 經路와 顛末을

鉀

알아보려 함도 無理는 아닐 것이며, 또 그리 無意味한 일도 아닐 것이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들은 그 運動을 시작하였으며, 어떠한 理論을 새우고 어떠한 順序와 方式을 取했으며, 따라서, 그 運動은 어떠한 階段을 밟아 進展되었으며, 또 그 結果는 어찌 되었나? 이에 對하얀, 글렛스톤氏 (Gladstone)의 著書 스펠링 리포럼 (Spelling Reform)이 있거니와, 이제 그 概略만을 順次로 說述하여 보려

한다。

### 1. 이탈리아에서의 改正論

이탈리에 있어서는, 벌써 第13世紀初에 詩人 단테(Dante)의 國語 統一 運動에 盡力함에 依하여, 일찍이 그 基礎를 얻었었다。 단테는 羅甸語의 轉訛한 各州 方言中에서 가장 善良한 것을 撰擇하여, 거기에 한 標準語를 規定하는 同時에, 그것을 記寫할 적엔 어디까지나 精密한 發音을 準據하였다。

이와 같이, 이탈리아 語文은 오랜 옛날에 유다른 단테의 손에 그 開拓의 艱이 잡히었으며, 그 뒤에 많은 學者가 輩出하여, 表音的 綴字法의 成立에 盡力한 結果, 第18世紀 初에 이르러서는 거진 그 目的을 達하였으며, 지금에 와서는 꽤 完成한 領域에 이르렀으니, 이탈리아는 實로 國語 表記法 成功의 第一人者라 할 수 있다。

### 2. 스페인에서의 改正論

스페인의 表記法도 또한 이탈리아의 表記法과 같이 完全한 程度에 이르렀다。 이 改正은 1492年 頃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우선 그 改正方法으로 標準語 制定의 必要가 생기며, 1714년에 스페인語의 아카데미(Academia de la Lengua Espanola)가 建立되었고, 1744년에 第一回의 改正案을 起稿한 以來로, 1815년의 第八回 改正案에 이르러, 아카데미는 그 改正의 가장 必要함을 認定하였다。 그 뒤 25個年을 지나서, 그 綴字法은 全國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 3. 포르투갈에서의 改正論

포르투갈의 綴字法 改正論은 第19世紀 末 頃에 教育者 間에서, 자주 唱導하여 시작된 것인데, 그 人士들은 特別委員을 選舉

하여, 가지가지의 協議을 한 結果, 그 委員은 1877년에 改正決行에 贊成한다는 趣旨의 報告를 하는 同時에, 이러한 改正은 有力한 維持者를 要한다는 點에 注意하여, 王立學士院에 이의 維持를 求望하였다。 그 뒤엔, 이 運動이 어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으나, 아마 漸次 잘 改善되었으리라。

### 4. 프랑쓰에서의 改正論

프랑쓰는 第16世紀에 벌써 從來에 써 오던 舊法에서 脫却하여, 表記法上 一大 改革을 하려 한 일이 있었으나, 當時는 勿論이요, 그 뒤 300年 間은 그 運動을 贊成하는 이가 少數였었다。 그러는 것이 그야말로 機運이 무르익은 가람이었는데, 1903年 2月 11日에, 文部省에서는 高等教育 會議의 建議에 基하여, 省令으로써 프랑쓰 綴字法 改正 草案 調査委員會를 設置하니, 그 會는 高等教育 會議 議員 7人과 學士院 會員 1人과 파리大學 教授 2人과 衆議院 議員 2人과 모두 12人으로써 組織되었는데, 同會는 同年 6月 25日에 第一回의 會議를 열고, 곧 文部大臣에게 報告書를 提出하였다。

그러나, 該 報告書를 보면, 同會는 綴字法을 改正하되, 合理的 基礎 우에서 組織的 改正을 할 勇氣가 缺 하였든듯 하다。 그러기에, 그 改正은 在來 一介의 聲音에 對하여, 여러가지 表記法이 있었든 것은, 그 中에서 가장 簡潔明瞭한 것을 撰定하여, 어디까지나 그것으로 適用케 하므로써 滿足하였다。 數種의 表記法이 있는 것 일지라도, 社會의 既成한 習慣에 調和를 保持키 爲하여, 그것을 併存시켰으며, 그리고, 그중에는 矛盾으로 認定하면서도 不得已 그대로 容許한 것도 있었다。 그 뿐인가, 『한가지를 가지고 다른 것을 類

推하는 일]은 學理에 매우 重要的 것이어늘, 거기에는 이 法을 全然 容許치 않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의 그 綴字 改正은 部分的에만 그치고 말았다 할 수 있다.

### 5. 홀란드에서의 改正論

第19世紀 初까지는 홀란드의 表記法은 極 亂雜한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1804년에 이르러, 폰·지겐베크 教授(Prof. Von Siegenbeek)의 論文에 基하여, 改革論者들이 차차 한 團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後에 氏의 法이 매우 施行되었으나, 1873년에 드·브리스(DeVries)와 테윈켈(Tewinkel) 二氏로부터 重要的 改革案이 提出되며, 政府에선 그것을 採用하기로 하였다. 그런즉, 이 나라의 表記法은 아직 完成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으나, 改正의 氣運으로 向해 나간 것만은 事實이다.

### 6. 도이츨란드에서의 改正論

게르만에서도 綴字 改正의 運動이 있었는데, 元來 獨逸語는 다른 歐洲 諸語에 比하여 그 綴字法이 極히 完全함에도 不拘하고, 政府는 오히려 一層 이것을 簡潔히 하기 爲하여, 1854년에 한노베르(Hannover)와 및 라임치시(Leipzig)에 會議을 열고, 여러 가지 改正할 點을 調査하였다. 그 뒤에도 1860년에 위르템베르그(Württemberg)에서 會議을 열고, 1861년엔 오스트리아(Austria)에서, 1866년엔 바바리아(Bavaria)에서 會議을 열었다. 그런데, 이 나라의 言語는 各州를 따라 다른 點이 있으므로, 그 統一을 꾀하기 爲하여, 1872年 十月에 各州의 委員을 드레스덴(Dresden)에 召集해 놓고, 라우메르 教授(Prof. Von Raumer)로 하여금 改革案을 起草케 하여 가지고, 그 다음 教授外 十一人으로 組織된

會議에다 이것을 提出하여 討議케 하였다.

그러나, 이 會議에서는 1876년에 이 案을 修正하여, 國民 一般에게 發表하고, 그 批評을 求하였으나, 國民은 겨우 該案의 2, 3個條에만 贊成의 뜻을 表하였을뿐이었다.

그 뒤에, 純粹하게 表音的 改正을 하려는 한 學會가 일어났는데, 그 것은, 겨우 14個月 間에 70 以上の 支部가 일어나서, 매우 盛大하게 되었다. 그것은, 아직껏 完全히는 그 目的을 達치 못하였을망정, 早晚間 完成에 達할 傾向은 보이는 것이다.

### 7. 잉글랜드에서의 改正論

잉글랜드에 있어서도, 從來 種種의 學會 學議가 일어나서, 改正에 盡力하였으나, 不幸히도 아직 그 目的을 達치 못하였다. 概歎할 일이다.

### 8. 유나이티드스테이트 어브 아메리카에서의 改正論

美國에서는, 從來 綴字 改正의 目的으로, 調査委員會(The Simplified Spelling Board)를 設置하였으나, 委員은 各方面의 人士 28名으로 組織되었다.

元來 이 會는 富豪 카네기(Carnegie)의 寄贈한 資金으로써 成立한 것인데, 氏도 그 委員의 한 사람이다. 그 改正 草案은 1906년에 이르러 거진 完成되었다. 當時 大統領 루스벨트(Roosevelt)는 大體 이것을 是認하고, 우선 官文書에 이것을 實施키를 宣言하였다. 그 案은 40餘條로 되었는데, 大凡 300의 言語를 撰擇하여 이것을 改正키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改正案은, 佛蘭西의 改正案과 마찬가지로, 그 改正을 何等의 理論的 基礎에서 出發

치 못한 것이다。

有名한 文豪, 혹은 著名한 辭書에 있어서는, 從來에 써오든 것, 또는 言語學會에서 規定한 것들을 彼此 斟酌하여 著作하며, 著述된 것이다。要컨대, 美國의 調查委員會는 在來의 用例에 鑑하여, 그 整理를 計劃한 것이요, 何等 學理的 改正을 企圖한 것은 못 되었다。뿐만 아니라, 그 나라 社會가 이 改正案을 容認치 않았으므로, 곧 그 實施를 中止하였다。참으로 遺憾이다。

### 9. 結 論

泰西 諸國의 綴字 改正論에 對하얀, 아

직 이것으로 그 紹介를 끝맺거니와,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多少의 느낌을 얻을 수 있다。곧 語文이란 一般 民衆을 主人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勿論 어느 程度까지는 그것의 學習上 또는 實用上의 一般的 通俗化를 主案으로 하고, 그 整理와 改正을 計劃치 않으면 아니 될 것이지만, 또한 모든 運動이 다 그러할과 같이, 科學的 理論的 根據가 없는 整理 運動은 結局 生命 없는 그것이란 것을, 우리는 그들의 이 歷史的 事實에서 잘 發見할 수 있다는 것이다。

(但, 이 글은 距今 二十五, 六年前 소식을 參考로 한 것이다。) —(끝)—

## 中國은 表意文字에서 表音文字로

李 克 魯

世界 偉대한 舊文化의 하나인 半萬年 中國 文化의 基礎는 表意文字 곧 漢字다。이것도 벌써 널리 亞細亞 大陸에서 활개 치는 黃金時代가 지나가고, 이제 와서는 國立 圖書館 꼭대기층 古書研究室로 올라 들어가게 된 悲運에 빠졌다。그리고, 新陳代謝의 새 勢力을 가지고 나오는 새 表音文字 곧 注音符號가 四億餘萬人의 文化生活의 새 武器가 되려는 것이니, 이 불꽃 같이 이는 새 文字 運動은 世界 文字史上的의 한 新記錄을 이루고 있다。이미 있는 좋은 文字로써 綴字 整理나 하자는 것두 잘못 行하는 우리 朝鮮 사람은 이런 말을 들을 때에 깊은 느낌이 없지 아니할 것이다。

### 一. 漢字의 發達

中國에 새 表音文字가 創造되고 그 普

及 運動이 猛烈한 까닭을 알려면, 먼저 從來 文字의 發達과 現代 文化生活에 그 不適當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1. 創作의 原理(六書)。表意文字는 主로 생각의 內容을 標記하는 一種 符號니, 마치 地圖 위에 있는 戰場, 鑛山, 寺刹等 記號와 비슷한 것이다。漢字의 基本은 象形이나, 그것만으로 複雜한 事物을 다 記錄할 수가 없으므로, 그 밖에 또 다른 綜合 方法으로 써 發達시킨 것이 곧 六書다。이것은 中國 古來의 文字學者의 分類한 것인데, 周나라 때에 이미 이 이름이 있었다。

六書는 곧 象形, 指事, 會意, 諸聲, 轉注, 假借들이다。그 가운데에 象形, 指事, 會意, 諸聲은 文字의 構造法에 따른 것이요, 轉注, 假借는 文字의 使用法에 따른 것인데, 이미 만든 文字를 빌어서 그 뜻

을 통할 뿐이요, 決코 文字의 본래 뜻을 取한 것이 아니다。그 順序를 따라 簡單히 說明하건대,

(1) 象形은, 물건의 꼴을 본떠서 그런 것이다。보기를 들면, 日, 木, 따워요。

(2) 指事는, 象形을 基礎로 하고, 여기에 點畫을 덜거나 더하거나 하여, 그 事物의 性質을 보인 것, 곧 잇는 자리, 數量을 가리친 것이다。보기를 들면, 上, 下, 一, 二 따워요。

(3) 會意는, 대개 둘 이상의 이미 잇는 文字를 結合하여 새 文字를 만든 것이다。보기를 들면, 炎, 森, 信, 劣 따워요。

(4) 諧聲은, 둘 이상의 이미 잇는 글자를 모아서, 한 새 글자를 만드는 것은 會意와 똑 같으나, 다른 점은 그 一半은 반드시 소리를 적기 위하여 어우른 것이다。보기를 들면, 蜂은 虫에 夆의 音을 습한 것이요, 喉는 口에 候의 音을 습한 것이다。이 諧聲은 六書의 가장 主要한 것으로, 文字 中에 十의 八九를 차지하였다。

(5) 轉注는, 一物을 代表하여 잇는 뜻을 擴張하여, 그 物에 關係가 잇는 他物까지 代表함을 이룸이니, 곧 一字를 轉用하여 다른 여러 字를 注하며, 그 音까지 轉化하는 것이다。보기를 들면, 善惡이라는 惡을 憎惡라는 惡로 轉用하는 따워다。一字에 數音 數意가 잇는 것은 다 이 轉注의 作用이다。

(6) 假借는, 이미 말소리가 잇고, 아직 그 正當한 文字가 없을 경우에 그 音聲에 符合하는 文字를 借用하되, 그 뜻은 相關치 아니하고, 다만 그 소리만 取하여 쓰는 것이다。보기를 들면, 管은 竹筒인데, 管轄의 管으로 假借하며, 革은 皮인데 改革의 革으로 假借하는 따워다。

2. 字體의 種類。글자를 만드는 原理가 어렵고 複雜한 것을 이미 말하였거니와, 이제 數千年來에 發達되어 온 字體를 본다면 如干 어려운 것이 아니다。비록 楷書와 行書가 一般으로 쓰이는 것이나, 이 밖에도 여러가지 體가 各方面으로 많이 쓰인다。여기에 말하려는 體는 明朝體니 清朝體니 하는 劃法이 다른 것이나, 歐陽洵體니 安眞卿體니 하는 筆法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아주 字形이 다른 篆字니 草書니 하는 것들만이다。

黃帝 때에 倉頡이 비토소 文字를 지어 내고, 그 뒤에 次次 여러 사람의 創造를 더하여, 이른바 古文이 잇었으나, 아직 아무 統一이 없었드니, 周宣王 때에 史籀가 大篆을 만들어 文字의 統一이 서게 되니, 이것이 곧 籀文이다。그 뒤로 數千年 동안에 여러 가지 形態로 變하여진 字體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차 례	1	2	3	4	5	6	7	8
글씨체	古 文	大篆	小篆	隸書	八分	草書	楷書	行書
지은사람	倉 頡 其 地	史籀	李斯	程邈	王次仲		王次仲	劉 敞 昇
지은때	自黃帝至周宣王 周宣王時	周宣王 時代	秦 始 皇 時 代		秦 末 漢 初		晉 代	後 漢 時 代

3. 文字의 늘어 가는 數。漢字는 表意文字인 것만큼 그 字數가 限定이 없고, 文化의 發達로 말미암아, 새 事物이 생김을 따라, 새 글자와 俗字가 생기고, 또 便利를 取하여 畧字가 생긴다。그래서, 끝없이 늘어 가는 것을 다음 數字로써 잘 알 수가 있다。殷周時代에는 數千字에 不過하였으나, 漢代(二千年前)에는 九千五百餘字에 達하였고, 現在에는 벌써 五萬七千餘字에 達하였다。이제 새 글자와 俗字가 생기는 例를 들건대, 다음과 같다。化學 原素의 水素는 가장 가벼운 氣體라 하여, 水素를 「氫」이라는 새 글자를 만들어 音을 「경」이라 하고 쓴다。古文의 國

字는 □ 인데, 이것은 國境을 뜻한 것이오, 뒤에 와서는 □ 안에 或字를 쓰는데, 이것은 封建時代에 國家의 興亡으로 그 主人公인 帝王이 늘 갈리게 되므로 國家는 或者의 所有物이라는 것을 뜻합시오, 中華民國이 된 뒤에는 □ 안에 民字를 써서 國字를 만들어 많이 쓰는데, 이것은 國家는 백성의 所有라는 것을 뜻한 것이다.

4. 表音法은 反切. 漢字가 다만 表意文字지마는, 그 文字에 말의 소리를 붙여 읽는 때에는 또 表音文字의 役割을 아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字字이 제 音價를 매게 된다. 옛날에는 하루 字의 音은 하루 字의 音과 같다고 서로 紹介할뿐이더니, 漢末에 孫炎이 비로소 反切을 만들어 내게 되어, 그 前보다는 조금 進步된 點이 있으나, 音符文字가 따로 없는 것만큼 原始的 表音方式을 免하지 못하였다. 反切은 곧 漢字 音韻法이니, 두 字의 音を 모아서 한 音을 만드는 法이다. 우의 字는 첫 소리만 取하고, 아래의 字는 끝 소리만 取하여, 제 차례대로 붙여 읽는 것이다. 보기를 들면, 十은 是執切(唐韻, 韻會에), 또 寔入切(集韻에)이요, 候는 戶鉤切(廣韻에), 또 胡溝切(集韻, 韻會, 正韻에)이라 하였다.

## 二. 漢字의 難問題

文字를 學習함이 一生의 職業이 된다면 모르거니와, 文字를 몇 해 동안에 배워서 一生에 쓸 道具를 작만하는 때에는 漢字를 到底히 쓸 수가 없다. 이제 日本에서나 中國에서나 다 常用 漢字 몇 千字를 뽑아서 教育의 標準을 세우기에 努力한다. 그러나, 字母 몇 十字를 배우는 것에 견주어 보아서, 언제나 그 學習難을 避할 수가 없다.

現代 文明은 印刷文明, 打字機(打字機)文明이다. 어떤 文字나 여기에 不便한 點이 많다면, 實用文字의 資格을 잃는다. 漢字는 과연 우에 말한 實用文字의 資格이 없다. 또 電報記號를 붙이는 때에는, 簡單한 音符文字와 같이 그 字에 바로 붙이지 못하고, 常用 漢字 몇 千字를 擇定하여 字字이 數字로 番號를 매어 두고, 數字의 記號만 가지고 그 글자의 番號만 써 낸다. 그래서, 電報를 받는 사람은 電報文字番號책을 가지고 제가 스스로 글자를 찾아 보게 된다. 이러케 現代生活에 不便을 주는 文字니, 어찌 驅逐을 받지 아니하리오, 注音符號가 새로 나게 된 것은 自然의 形勢다.

## 三. 注音符號와 國語

이제 朝鮮에 漢字 全廢論이 나면, 漢文에 中毒된 무리는 「不便하느니, 不可能하느니」하고 한 恠變으로 생각할 이가 많을 것이다. 또 漢字를 國文으로 쓰는 中國에서 漢字는 全廢하고 注音符號만 가지고 中國말을 쓴다 하면, 거짓말로 알거나, 혹은 不可思議로 생각할 것이다. 대체 文字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기에 그러케 생각할까? 文字는 다만 말을 적는 符號에 지나지 않는 것이 原則이다. 우에 이미 말한 바와 같이 漢字가 비록 表意文字라 할지라도 또 表音文字의 노릇을 하고 있다.

흔히는 생각하되, 漢字는 같은 音에도 四聲이 다르고, 같은 四聲에도 여러 다른 글자가 있고, 또 單音語가 되어서, 表音文字만 쓴다면, 到底히 그 뜻을 알아 볼 수가 없다 한다. 겉으로 얼른 본다면, 아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번 더 깊이 알아 본다면, 事實이 그러치 않다.

言語 學者들도 中國말이나 그 語族에



붙은 말들을(暹羅語, 西藏語) 單音語라 혹은 孤立語라고 이름을 짓는다. 그것이 一理는 잇는 것이니, 音節마다 말의 뜻이 잇는 까닭이다. 그러나, 그것은 語幹을 보거나, 또 文語인 漢文만 보고 하는 말이요, 會話의 말 곧 白話를 두고 한 말은 못된다. 어느 나라 말이라도 혹은 單音語만 혹은 複音語만 잇는 것이 아니요, 두 가지가 다 섞이어 잇는 것이다. 中國말에도 白話에는 複音語가 많은데, 아무 뜻도 없이 소리만 따다가 쓴 글자가 여간 많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複音語가 더 發達될 것을 말하며, 또 四聲廢止論까지 생기었다. 또 中國말과 같은 語族에 붙은 暹羅말이나 西藏말은 印度文字에서 온 音表文字만 가지고 오래동안 써 와도 아무 不便이 없다. 이것만 보아도, 中國의 注音符號가 成功될 것을 꼭 믿는다.

中國은 과연 統一된 國語를 가졌는가 하면, 全體로 보아서는 그러케 못 되었다. 廣東, 福建, 浙江等 東南 몇 省은 제 各各 아주 外國語나 다름이 없는 方言을 가지었고, 또 그 밖의 다른 各地方에서도 못 알아 들을만한 方言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官話로 써 서로 通情은 할 수가 있다. 이 官話는 大體로 北平말을 中心한 官吏界나 一般上等 社會에서 널리 쓰는 交際語다. 注音符號는 이 官話의 音을 標準하여 만든 것이다.

#### 四. 注音符號의 發達

1. 音標의 創造. 여러 千年 동안에 反切이 唯一한 標音法이드니, 이제 와서는, 그것만으로도 도저히 쓸 수가 없다. 그래서, 注音符號의 發端은 벌써 六七十年前에 西洋 宣教師가 예수教를 傳道하려고 中語를 배우게 되며, 로마字로 써 中國各地의 方言을 적게 된 것이다. 그 뒤에

香港에 王炳耀가 中國式 注音符號를 만들어서, 몇 해 동안 쓰다가, 普及이 못 되었고, 三十餘年前에 福建에 蔡錫勇이 또한 中國式 符號를 만들어 보았다. 그 때에 또 直隸省에 王照가 漢字의 偏旁으로 써 字母를 만들어 北平音을 적게 되며, 그것이 北方에 널리 普及 되었고, 그 뒤에 浙江省에 勞乃宣이 또 그것을 더 고쳐서 簡字를 만들며, 이것은 南方에 普及되었다. 그래서, 雨後竹筍格으로, 各地에 音韻 專門家들이 音標를 創製한 이가 五十餘人이나 되어서, 제 各各 宣傳하였다.

2. 字母의 製定. 西曆 一九一二年에는 教育部(文部省)에서도 外部의 潮流가 이러한 것을 보고, 特別히 讀音統一會를 組織케 되었다. 一九一三年 봄에는 教育部에서도 音韻 專門家를 招聘하여 會員을 삼은 밖에, 省마다 各各 代表 二人을 派送하게 되고, 蒙古와 西藏에 사는 華僑가 各各 代表 一人을 派送하게 되어, 會員이 모두 七十九人이나 되었다. 이 모임에서 音標 三十九個를 議定하여, 注音字母라 이름하고(一九三〇년에 國民政府 中央執行委員 常務會에서 注音符號라고 고침) 또 常用 漢字 七千二百個의 讀音을 審定하고, 閉會한 뒤에, 該會 會長 吳敬恒, 會員 王璞, 陳懋治等이 會中에서 審定한 七千二百字의 讀音을 注音字母로 一一이 달고, 또 그 밖에도 同音字 六千五百餘字를 더 붙여서, 總히 一萬三千七百餘字를 모아, 國音字典을 編成하였다.

一九一八年에 教育部에서 注音字母를 正式으로 公布하니, 이에 비로소 注音字母가 國定 音標가 되었다.

注音字母 各方面에서 試用한바 缺陷이 없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教育部 國語統一籌備會(一九一九年 四月에 成立됨)에서 各方面의 意見을 모아서, 修正과

補充을 하게 되었다。그래서, 一九二〇年 五月에 該會 臨時 大會에서 새로 ㄱ(ㄱ) 符號를 더 쓰기로 決議하였다。

3. 注音符號의 原理。 소리를 적는 符號를 새로 만들었다 하여도, 萬國 聲音記號와 같이, 一音一符號로 된 것이 아니라, 文字用으로 된 符號인 것만큼, 自國의 音韻 組織을 本位하여, 적기에 便利한 體系를 세운 것이다。그래서, 音符 二十四個와 韻符 十六個로 모두 四十個의 注音符號를 만들었는데, 그 中에는 한 符號가 音節文字와 子母文字와의 資格을 가진 이 많다。그러므로, 쓰이는 자리를 따라, 소리의 加減이 잇게 되나니, 비록 規則은 잇을지라도, 多少의 不便이 없지 아니하다。그 符號들은 어떠한 理想的 創製가 아니라, 대개 그 音を 가진 가장 알기 쉬운 漢字의 邊을 떼어 오거나, 혹은 簡單한 字면 그냥 들어가다가 定한 것이다。

(1) 聲符(子音, 音節)二十四個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ㄷ	ㄸ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注意 { ㄱ, ㄸ, ㅈ, ㅊ, ㅋ, ㆁ은 朝鮮말소리의 것이 갖가운데, 齒頭音이요, 이 字를 左便에 圈點을 加한 것은 舌前音이요, 右便에 圈點을 加한 것은 舌葉音이다。

(2) 韻符(單母音, 複母音, 音節)十六個

1. 單純韻 七個

二 介母 三個

一 (橫綴 1)	ㄱ	ㄴ
1, 이	ㅈ	ㅊ

一. 全韻 四個

ㄱ	ㄴ	ㄷ	ㄹ
ㅈ	ㅊ	ㅋ	ㆁ

2. 複合韻 四個

ㄱ	ㄴ	ㄷ	ㄹ
ㅈ	ㅊ	ㅋ	ㆁ

3. 附聲韻 四個

ㄱ	ㄴ	ㄷ	ㄹ
ㅈ	ㅊ	ㅋ	ㆁ

4. 捲舌音 一個

ㄱ
ㅈ

注意 { 五선글의 反切식으로 쓴 것은 單獨으로 쓰임을 表示함이요, 字母식으로 쓴 것은 다른 字母와 合하여 쓰임을 表示한 것이다。

한 音節을 一個 符號나 二個 符號로도 쓰고, 많으면 三個 符號로 쓰게 되나니, 곧 介母를 中間에 둔 音節들이다。이제 各各 보기를 들면,

一個.	阿	木	哀	昂	恩	自	日
	ㄱ	ㄴ	ㄷ	ㄹ	ㅁ	ㅂ	ㅅ
二個.	巴	迷	蛙	雲			
	ㄱ	ㄴ	ㄷ	ㄹ			
三個.	別	鳥	多	花	學	宣	
	ㄱ	ㄴ	ㄷ	ㄹ	ㅁ	ㅂ	

五. 注音符號의 普及運動

注音符號가 創製된지 二十年 동안에 符號와 그 字體와 國音字典等을 數次 修正하여, 벌써 그 基礎가 세게 되었다。그 동안에 官廳方面과 民衆方面에서 얼마나 普及運動에 努力하고 잇는 것을 대개 말 하려 한다。

1. 官廳方面의 力行。一九一三年 十二月에 陸海軍의 旗語와 電報 記號를 注音符號의 것으로 쓰게 하다。一九一八年에 는 教育部에서 北京, 武昌, 瀋陽, 南京, 廣東, 成都, 이 여섯 곳에 잇는 高等師範學校에 訓令하여, 國語講習科를 附設케 하여, 主로 注音符號를 普及케 하다。一九二〇年 一月에는 全國 國民學校에 訓令하여, 一九二〇年度부터는 國文科를 國語科로 고치고, 主로 注音符號를 가르치게 하다。一九二〇年 以後로 教育部에서 또 國語講習會를 四次나 열게 되어, 講習生을 혹은 北京에서 考取하고, 혹은 各省에서 考選하여 派送하였는데, 全國 二十二省에서 다 講習生을 보내게 되었다。그래서, 卒業者가 모두 四百餘人이나 되었다。一九二一年 三月에는 教育部에서 또 全國 各 師範學校와 高等師範學校에 通令하여, 다 國文 時間을 줄이고, 國語 時間을 늘

이게 하다。一九三〇年 四月에는 國民政府 中央執行委員 第八十八次 常務會議에서 注音符號 普及策을 決議한바 各黨部, 政府 所屬 機關, 各 教育機關은 곧 注意하여, 注音符號를 學習하여 實行하라 하였다。一九三〇年 五月에는 教育部에서 各省 教育廳에 令하여 注音符號를 傳習케 하고, 同時에 注音符號推行委員會를 組織케 하여, 全國 各地에 普及指導를 督促하였다。

2. 民衆方面의 力行。一九一六年에 北京에서 中華民國 國語研究會를 組織하여, 總會所를 北京에 두고, 蔡元培가 會長이 되고, 봄마다 大會를 一次씩 열었다。一九二一年부터는 定期出版物로 「國語月刊」

을 發行하였다。

一九二〇年度부터 國民學校의 國文科를 國語科로 고쳐 놓으니, 全國 出版界에서 國音, 國語의 書報를 印出하고, 또 國音留聲機片을 만들어 내고, 上海에서는 國語專修學校들을 設立하였다。

一九二六年 一月에는 全國 各地, 또 日本, 南洋 各 商埠에 있는 國語 同志가 各 各 그 地方에서 國語運動會를 盛大히 열었는데, 모두 八十六處나 되었다。또 上海에서는 全國 國語教育促進會를 組織하고, 蔡元培가 會長이 되고, 各地方에서 分會를 두어, 聯絡을 取하고, 一九二七年 一月부터는 月刊 雜誌로 「國語月報」를 發行하다。

## 튀르크의 文字革命

李 允 宰

### 一. 튀르크 衰退의 原因

유로파의 한 老大帝國으로, 한때 강성이 극하던 튀르크(土耳其)나라는 世界大戰 끝으로 그만 土崩瓦解하여, 여지없이 衰退한 지경에 이르렀다。이러듯 튀르크를 멸망으로 끌어넣게 된 한가지 큰 원인은 오로지 그들이 쓰는 아라비아 文字에 있다 할 것이다。

튀르크 나라는 그 민족의 五分之四是 글을 배우지 못한 無識階級으로, 自然히 有識階級과의 사이에 큰 장벽을 쌓아서, 서로 融合되지 못하고, 저이들끼리 항상 투쟁이 끊이지 아니하였다。이 틈을 타서, 유로파의 여러 나라들은 모두 각기 利權을 伸張하려고, 손을 내밀기 시작하였다。그러하여, 튀르크 사람 중으로서 道이츠黨, 프랑스黨, 영국黨이란 명칭이 생기

어, 私利를 위하여 서로 물고 쪼으므로, 國運이 날로 기울어졌다。

그러므로, 외국 사람은 무한히 特權을 가지게 되어, 콘스탄티노플의 住民에 약 三十萬의 그리스인 사람이 살고 있었으나, 튀르크 政府에서는 그들에게 課稅하는 권리가 없고, 또 마케도니아州에는 여러 민족이 무수히 살았건마는, 一切 施設의 費用은 전부 튀르크 사람만이 부담할뿐이요, 다른 민족에게는 한푼의 稅金도 받지 못하였다。그러므로, 政府는 財政이 자꾸 궁핍하여, 國力이 점점 쇠약함에 이른 것이다。항상 기회를 대망하고 있던 그屬地 알바니아 민족은 자주 叛亂을 일으키었으나, 그들 진압할 수 없고, 또 和平적 해결책으로 알바니아人의 要求를 聽許할 수도 없는 것이니, 곧 그 要求 中에는 튀

키 文字 곧 아라비아 글을 撤廢하고, 그 民族語인 알라니아語 학교를 설치하겠다는 조건이 잇은 것이라. 그러나, 필경 政府는 강경히 그 要求에 거절치는 못하였다. 이로써 政府의 權威가 떨어지게 되어, 그 무능력한 것이 여실히 폭로되었다. 이것을 본 말성 많은 말칸 반도의 여러 나라 그리스아, 불가리아, 스트비아등은 일시에 덴비아, 튀르크나라에 대하여 자기 그 領土와 利權의 확장을 주장하였다. 튀르크는 부득이 이 여러 나라들을 상대로 戰爭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튀르크는 몹시 부대끼어, 國土가 날로 깎이고 세력이 아주 주구려지고 말았다. 그 결과, 伊土戰爭으로써 튀르크는 아주 납작하였고, 뒤미처 世界大戰 사품에 그만 오늘날의 꼴이 되고 만 것이다.

말일 우리가 공정한 눈으로 볼 것이면, 튀르크 나라를 멸망케 한 무서운 怪物은 튀르크의 言語와 文字라 함을 누구나 否定치 못할 것이다.

## 二. 튀르크의 言語와 文字란 어떤 것인가

현금 튀르크 국민이 쓰는 言語는 아라비아, 페르시아, 튀르크등 각국의 말로 성립되어, 그 말 된 것이 극히 혼잡하여, 敎養 잇는 튀르크사람일지라도 잘 理解하기 어렵다거든, 더구나 외국 사람으로 그것을 배우기에는 얼마나 곤란을 느낄 것이나. 新聞社의 編輯員으로 튀르크말을 숙달하기 위하여, 十二年이란 오랜 시일에 徒弟 奉公을 계속하였다는 사실로써, 말 배우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증명한다. 어떤 新聞 記者가 콘스탄티노플 市街 중앙에서 튀르크 말로

쓴 電報 한장을 번역하여 줄 사람을 찾기에 한 시간 이상을 허비하였다 한다. 이것으로 써 거기에 무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가히 짐작할 것이다. 여간 정도가 높다는 사람으로도, 말 배우는 데 일생을 바치고 만다. 그러므로, 그 국민의 대다수는 평생에 그 祖國의 말을 배워보지 못하고 죽었으리라. 이와 같이 무식계급이 유식계급보다 몇 배로 많아, 두 사이에 융화가 되지 못하고, 늘 서로 충돌이 잇게 된 것이다. 또 튀르크 말에는 外來語가 문척 많아서 더욱 복잡하게 되었으니, 六割이 아라비아語, 二割이 페르시아語, 一割이 프랑스語요, 실상 튀르크말은 겨우 一割도 못된 셈이다. 일부 民族主義者들은 이 많은 外來語를 다 구축하고 國語를 純化케 하자는 운동이 일어난 일까지 잇었다.

言語가 이리케 복잡하니, 文字인들 어찌 단순기를 바라랴. 튀르크나라의 쓰는 글은 아라비아 文字다. 지금으로부터 한 六百年前부터 써 오는 것으로, 그 歷史가 상당히 오래다. 그 글의 字數는 四百八十二個의 다수가 되며, 綴法은 몹시 복잡하여, 홀소리(母音)를 빼고 쓰는 경우가 많으며, 發音과 文字가 꼭 일치되지

못하여, 처음 배우는 이에게는 여간 곤란한 것이 아니다.

زیرا الله دنیایی بو قدر سودی که کندی ابن وحیدینی و بردی تا که آکا مرایمان ایدن هلاک اولمایوب آنجق ابدی حیاته مالک اوله

—튀르크 나라의 文字—  
 右 句의 번역=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獨生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滅亡하지 아니하고 永生을 얻으리라

## 三. 케말 파샤의 一大英斷

쇠퇴에 쇠퇴를 거듭하여, 장차 멸망에 빠진 튀르크나라가 一大英傑 케말 파샤의 손에서 다시 흥복되어, 과거 오스만 帝國의 隆盛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은 진실로 壯烈하기 짝이 없는 歷史의 一大

事變인 것이다。케말 파샤는 新興의 大氣  
 餒으로 建國의 大業을 이룩할새, 튀르크의  
 一切 舊制度를 근본적으로 改革하기로 하  
 여, 오랜 歷史를 가진 콘스탄티노플을 버  
 리고, 앙고라에다 中央政府를 건설하는  
 그 勇대한 계획으로 부터, 온갖 施設을  
 一新케 하였다。케말 파샤는 과연 二十世  
 紀에 난 世界的 英雄이라 할만히도다。이  
 영웅의 눈에 한번 띄우는 것은 무엇이든  
 지 한가지도 예사로 보이는 것이 없다。  
 튀르크 나라를 오늘날 요러케도 몹시 망쳐  
 놓은 것은 더 말할 것 없이 아라비아 文  
 字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그래서 그는  
 이러케 생각하였다。우리가 오늘날 튀르크  
 의 富強을 위하여, 아무리 애쓸지라도, 文  
 字를 이대로 두고는, 뒤에 도루 이왕 쇠  
 퇴한 길을 밟게 될 것이다。튀르크를 완전  
 히 革命하려면, 文字 革命부터 하지 아니  
 하면 안될 것이라 하였다。조금도 주저하  
 지 않고, 종래에 써 오던 아라비아 文字  
 를 버리고 로마 字를 採用하기로 결심하  
 였다。이것이야말로, 世界的 大英雄이 아  
 니고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一大 果斷  
 이라 하겠다。과연 六百年 以來 歷史가  
 있는 아라비아 文字를 일조에 아주 폐지  
 해 버리고 새 文字를 쓴다는 것은 歷史와  
 習慣을 존중하하는 보통 사람의 常情으로  
 는 도저히 想像도 못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 四. 로마字 採用의 一大運動

이와 같이, 케말 파샤의 大改革이 착착  
 進行함에 따라, 國字問題가 일어나, 정부  
 에서는 一八二八年에 콘스탄티노플 國立  
 大學 文科 部長 왓드氏를 委員長으로 하  
 고, 外國의 專門家와 및 튀르크의 각 학교  
 장과 그 밖의 여러 名士들로 된 로마字  
 採用에 관한 調查委員會를 조직하고, 調

查審議를 進행한 결과, 그 해 五月 二十  
 日에 法律로 발표하였고, 六月 一日부터  
 우선 數字부터 로마字를 採用하기로 하였  
 다。八月 十五日에 모인 調查委員會에서  
 國字로 채용될 로마字 選定을 마치고, 그  
 것을 大統領 케말 파샤 및 首相 이스메트  
 에게 報告하여, 승인을 구하였다。케말  
 파샤는 調查委員에게 필수 있는대로 簡明을  
 主로 하라고 처음부터 부탁한 일이 었었  
 다。이때에 選定된 새 튀르크 文字는 모두  
 二十七 개의 字母라, 그 중 홀소리(母音)  
 가 八字, 닿소리(子音)가 二十一字며,  
 Q X와 같은 것은 별로 소용이 없으므로,  
 아주 빼어 버린 것이다。새로 制定된 文  
 字는 이러하다。

홀소리 a o u e i ö ü

닿소리 b c d f g ğ h j k l m n p r

s ş t v w y z

#### 五. 로마字 實行에 對한 烈 熱한 活動

調查委員會에서 제출된 新定國字 로마  
 字 채용에 대하여는 무론 大統領 케말 파  
 샤와 首相 이스메트의 熱心으로 贊意를  
 표하게 된 것이다。특히 케말 大統領은  
 八月 한달 동안에 로마字 채용에 關하여,  
 民衆에게 三回나 演說을 試하였다。첫번  
 에는 舊都 公園에서 행하였는데, 튀르크 國  
 民은 上下를 통하여 로마字를 배우지 아  
 니하면 안된다고 力說하였고, 둘째번에는  
 로드스로 가서, 연설을 하였는데, 우리는  
 과거에 있어서, 얼마나한 곤난을 겪어 왔  
 는지, 여기다가 비교한다면, 오늘날 로마  
 字를 배우는 것은 결코 어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로마字의 채용이 실로 튀르크에 가  
 장 큰 革命인 줄 모르는가。여기 비추어  
 본다면, 재래의 政治的 革命과 같은 것파  
 는 비교하여 언론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즉, 이로 부터서의 튀르크는 장래의 발달에 대하여 크게 期待할 수 있는 것이라고 絶對하였다. 그리고, 노상에 同行하는 男女老幼를 모주리 잡아서, 로마字를 배웠느냐고 묻기까지 하므로, 이 운동이 더욱 활기를 띠었다. 그 다음으로 셋재번의 연설은 高宗에서 행하였다. 大統領은 여기에서도 地方官吏와 市民들을 모두 모아놓고 로마字를 다 배웠느냐 어덴냐 개별적으로 물으매, 모두 그것을 배운다고 대답하므로, 그는 매우 만족의 뜻을 가지었다. 그 후 大統領의 명령으로, 들마, 바크체, 살라이에 代議士들을 召集하여, 三回나 로마字를 教授하고, 八月 二十九

日에는 代議士, 文學者 및 新聞記者 기타 로마字會 委員等을 초대하고, 각 사람의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바, 二三의 質問이 있는 이외에는 한 사람의 반대도 없었다.

이러케 新定한 튀르크 文字는 一千九百二十八年 앙고라에 열린 國會에 의논하여, 새 法律이 制定되었고, 實行上 여러가지 준비가 다 마치어, 一千九百三十一年 一月 一日부터 一般에게 使用되었다. 튀르크 國民은 이로부터 눈을 떴다. 인제는 정거장, 길거리, 상점에 쓰여 있는 광고, 게시, 간판 같은 것을 용이히 읽어 알 수가 있었다.

## 한글 적기의 바뀜

— 朝鮮文 表記法의 變遷 —

金 允 經

- 一. 처음 만들었을 때의 꼴
- 二. 훈몽자회 난 때의 고치어짐
- 三. 신정국문
- 四. 총독부의 철자법 규정
- 五. 총독부의 새 철자법 규정

### 一. 처음 만들었을 때의 꼴

한글은 잘 알으시는 바와 같이, 지금으로부터 四백 八십 九년 전인 세종(世宗) 二십五년(서역 一四四三) 십二월에 만들기를 끝내고, 三년간 더 연구하게 하여서, 지금부터 四백 八십 六년 전인 세종 二십 八년(서역 一四四六) 九월에 발표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訓 民 正 音』

나랏 말쌔미 中 國 國 語 에 달아 文 字 字 樣 와 托 士 르 不 得 디 아 니 呼 號 씨 이 런 전 承 로 어 린 百 姓 姓 性 이 니 르 고 저 呼 배 이 셔 도 只 稱 내 제 氏 들 시 러 呼 디 不 得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 嬴 呼 야 어 嬴 비 너 거 새 로 스 물 여 嬴 字 樣 를 嬴 ㄴ 노 니 사 람 마 다 呼 여 수 비 니 거 날 로 쓰 매 便 安 安 的 呼 고 저 呼 ㅅ ㅅ ㅅ 미 니 라

기 는 嬴 ㅅ ㅅ ㅅ 니 君 君 ㄷ 字 樣 初 嬴 ㅅ ㅅ ㅅ 아 나 는 소 리 ㅅ ㅅ ㅅ 니 君 君 ㅅ ㅅ ㅅ 嬴 嬴 嬴 字 樣 初 嬴 ㅅ ㅅ ㅅ 아 나 는 소 리 ㅅ ㅅ ㅅ 니 라

ㅋ 는 嬴 ㅅ ㅅ ㅅ 니 快 嬴 ㅅ 字 樣 初 嬴 ㅅ ㅅ ㅅ 아 나 는 소 리 ㅅ ㅅ ㅅ 니 라

ㅇ 는 嬴 ㅅ ㅅ ㅅ 니 業 嬴 字 樣 初 嬴 ㅅ ㅅ ㅅ 아 나 는 소 리 ㅅ ㅅ ㅅ 니 라

ㄷ 는 嬴 ㅅ ㅅ ㅅ 니 斗 嬴 嬴 字 樣 初 嬴 ㅅ ㅅ ㅅ 아 나 는 소 리 ㅅ ㅅ ㅅ 니 君 君 ㅅ ㅅ ㅅ 嬴 嬴 嬴 字 樣 初 嬴 ㅅ ㅅ ㅅ 아 나 는 소 리 ㅅ ㅅ ㅅ 니 라

ㄷ 는 嬴 ㅅ ㅅ ㅅ 니 斗 嬴 嬴 字 樣 初 嬴 ㅅ ㅅ ㅅ 아 나 는 소 리 ㅅ ㅅ ㅅ 니 라

ㄴ 는 嬴 ㅅ ㅅ ㅅ 니 那 嬴 ㅅ 字 樣 初 嬴 ㅅ ㅅ ㅅ 아 나 는 소 리 ㅅ ㅅ ㅅ 니 라







이 것에는 △도 없어지고 여덟 종성 중에 ㄷ은 이제 아니 쓰고 초성으로만 쓰이며 또 초성을 아울러 쓸 때에도 다만 ㅅ만 쓰게 되었으며, 또 ㅎ 초성도 아니 씁니다. 또한 글씨 벌인 순서도 훈몽자회에 실은 반절과 오늘날 반절이라고 전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연산주(燕山主) 때에 훈민정음은 몹쓸 확대를 받아, 된 서러 맞은 것처럼, 힘없이 버틴 채로 나리어 오다가, 우에 말 한 대로 종종 때 최세진이 쉽게 만든다고 고친다는 것이 잡아늘게 되었으며, 그 뒤로 四백여년 동안이나 아무 과학적 도끼를 팔아 보지 못하고, 유교의 전성(全盛)에 따른 학문의 세력에 눌리어 돌아보지 않게 되었었습니다. 돌십보지 않을 뿐 아니라 법(法)으로 금하기까지 가끔 한 것입니다. 연산주 때 무서운 형벌의 조건으로 금지 명령을 나린 것은 말 말고라도, 순조(純祖) 때 사역원(司譯院), 식년강과(式年講科)에 언해(諺解)로 취재(取才)함을 금하였으며, 고종(高宗) 二년(서역 一八六五)에 된 「대전회통」(大典會通)에도 사채(私債)의 성문(成文)에는 「언문」(諺文)으로 쓴 것을 무효로 한다는 것이 부끄럼 없이 공공연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三. 신정국문(新訂國文)

고종(高宗) 三十一년(서역 一八九四) 갑오(甲午)에는 동학(東學)란이 일고, 따라서 일청전쟁이 일고, 따라서 소위 개혁(改革)이 각 방면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국어, 국문에 대한 자각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민간에서는 이에 대한 학자(學者)들이 생기고, 정부(政府)에서도 한문만 쓰든 대신으로 한글 섞어 쓰는 문체를 공사 문서(公私文書)에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에 四백여년 내던져 버

리엿든 한글(훈민정음)에 처음으로 과학의 도끼를 나린 이는 고 주시경씨였었습니다. 그는 최세진의 훈몽자회에 실은 「반절」의 그릇됨을 깨트리는 한 쪽으로, 오늘날 말에 쓰이지 아니하는 소리 밖에는 전부 훈민정음 발포 시대의 규정을 회복하여 놓았습니다. 그리하고, 그는 한편으로 연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면서, 한편으로는 각 학교에 그 것을 가르치고, 「국문학교」를 세우며, 강습소를 세우며,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발포하여, 이에 대한 새 연구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이 오늘날 우리의 한글 운동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나, 이는 다만 민간의 사사 운동이요, 아직 정부의 힘으로 이를 시행하기에는 이르지 못하였든 것입니다. 이 때 정부에서는 그 연구의 필요를 느끼고, 학부(學部) 안에 연구회를 두게 된 바, 주시경씨가 그 중심 인물이 엿든 것입니다. 그 때 의학교장이든 지석영(池錫永)씨도 그 연구회원의 한 분이 든 바, 그의 상소로 학부에서는 광무(光武) 九년(서역 一九〇五) 七월에 「신정국문 실시건」(新訂國文實施件)을 발포하게 되었습니다.

#### 『新訂國文 五音象形辨』

牙音象 牙形	牙音 重音	牙喉間音象 音失其眞今姑闕之	喉扇形	○	ㄷ
舌音象 舌形	舌音象 掉舌形	舌音 重音	已半舌音象 捲舌形	□	唇音象 口形
日唇音象 開口形	舌音象 開口形	入齒音象 齒形	齒舌間音象 齒齧形	ㄷ	
齒音 重音	半齒音象 音失其眞今姑闕之	半啓齒形	○	淺喉音象 喉形	○
○	音失其眞今姑闕之	○	深喉音象	○	喉齒間音象

#### 新訂國文 初中終三聲辨

##### 初聲終聲通用八字

기	니	디	리	미	비	시	이
국	은	은	을	음	음	웃	으
기니디리미비시이 八字난用於初聲							
국은은을음음웃으 八字난用於終聲							
初聲獨用六字							



하게 하려고 그 위원을 두었습니다。 그 위원은 국분상차랑(國分象次郎), 신장순정(新庄順負), 염천일태랑(鹽川一太郎), 고교형(高橋亨), 현운(玄纘), 유길준(俞吉濬), 강화석(姜華錫), 어윤적(魚允迪), 제씨엇습니다。 그 위원들은 명치(明治)四십四年(서역 一九一一) 七月 二십八일에 첫번 모인 이래, 그해 십일월까지 다섯번 모인 결과, 그 다음 해(서역 一九一二) 四월에 그 결과를 발표함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普通學校用 諺文綴字法』

一. 正格인 現代 京城語를 標準으로 하고 可及的 從來 慣用의 用法을 取하여 發音대로 쓰는 법을 삼음

가령, 가르친다, 아친, 하여서, 매우, 되어서, 아름다운, 일음, 다서, 여섯, 빗친다。

二. 純粹 朝鮮語에는 「、」를 使用하지 아니하고 「卜」로 一定함

三. 純粹 朝鮮語에는 ㄷ行 及 ㄸ行은 卜列, ㄱ列, ㄴ列, ㄷ列만 使用하고 其他 列에는 ㅅ行 及 ㅆ行을 使用함

四. 純粹 朝鮮語로서 從來에 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의 두 가지의 쓰는 법이 있는 것은 卜, ㅑ, ㅓ, ㅕ로 一定함

가령, 쉰(五十), 적다(小), 하여서, 조흔。

五. 二, 三, 四의 三項은 漢字音으로 된 말을 諺文으로 적을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함。 이는 그 韻을 어지럽게 할까 念慮함임

六. 活用語의 活用語尾는 可及的 語의 本形과 區別하여 씀

가령, 먹엇소, 들어간다, 삶어먹엇소, 붉은빛。 但, 左와 如한 말은 例外로 함

(1) 어를 더로 쓸 境遇

바덧소, 어덧소, 쓰덧소,

(2) 어를 저로 쓸 境遇

바지가 저젖소, 개가 저젖소, 해가 느젖소。

七. 左와 如한 境遇에는 助詞 은, 을을 혼, 흘토 적어, 實際의 發音을 表記함 가령, 갓흔, 갓흘, 늣흔, 늣흘, 붓흔, 붓흘, 갑흔, 갑흘。

八. 形容詞를 副詞로 할 때 쓰는 接尾語 히는 그대로 히로 表記함

가령, 갑히, 급히, 가벼히, 브즈런히。

九. 從來 二種의 書法이 잇는 助詞 는, 툄, 툄, 은, 는, 툄, 로 一定함

一〇. 助詞 이, 을, 에, 으로, 는, 우에 오는 말에 따라 다음의 적는 법을 取하여, 實際의 發音을 表記함

(1) 이틀 히, 시, 처, 기라 적을 境遇 가령, 압히, 나히, 갑시, 삭시, 쏏치, 쏏치, 밧기。

(2) 을 을 흘, 슬, 즐, 글이라 적을 境遇 가령, 나흘(年齡), 압흘, 갑슬, 삭슬, 쏏출, 빗글。

(3) 은을 혼, 슨, 츤, 근이라 적을 境遇 가령, 나흔, 압흔, 갑스, 삭스, 쏏츤, 쏏츤, 밧근。

(4) 예틀 헤, 세, 체, 게라 적을 境遇 가령, 압헤, 쏏헤, 갑세, 삭세, 쏏체, 빗체, 밧게。

(5) 으로를 흐로, 스토, 츠로, 그로로 적을 境遇 가령, 압흐로, 밧흐로, 갑스토, 삭스토, 쏏츠로, 빗츠로, 밧그로。

但, 낫(晝), 곳(處)은 낫이, 곳에 들로 씀。

一一. 된시옷의 記號에는 ㅅ만 使用하고 ㅆ, ㅈ等 같은 書法은 取하지 아니함。

一二. 五十音은 別表대로 表記함。

一三. 國語 濁音을 諺文으로 적을 境遇

에는 別表대로 國語 同様の 「,」을 字의 右肩에 첨

(濁音 表記에 對하여는 從來 ㅅ, ㄱ, ㅍ 들의 書法이 있으나 어느 것이든지 國語의 濁音에 近似한 發音을 냄에 不過하지 正確히 國語音에 맞지 아니 함。要하건대, 純濁音은 古來 朝鮮에 없는 音임으로 차라리 새 記號를 定 함이 可하다 생각 함)

一四. 國語 及 外國語의 長音을 表記함 에는 ㅛ, ㅜ, ㅝ 들 같이 字의 左肩에 「·」을 첨함。

一五. 普通學校의 漢文에는 吐(諺文의 [送]假名)를 붙임。

但. 吐는 可及的 古 經書에 準據하되, 그 綴字法은 前 諸項에 적은 바에 依 함。

一六. 漢字音은 甚한 俗音이 아닌 동안 時音을 採用함。(以下는 略)

이 총독부 철자법에는 그 뒤 대정 원년 (서역 一九一二) 십二月에 일본 말에 대한 「拗音」의 적은 법이 추가(追加)되었습니다。

## 五. 총독부의 새 철자법 규정

총독부에서는 위에 소개한 그 철자법이 맞지 아니함을 인하여, 소화 三년(서역 一九二八) 九월 초에 시학관 현흔(玄愼), 편집관 전도(田島), 이원규(李元圭)씨 들 로 하여금, 재래의 보통학교 독본을 개정 할 기초안(基礎案)을 만들게 한 뒤 다시 심의린(沈宜麟), 박영빈(朴永斌), 박승두(朴勝斗), 이세정(李世楨) 제씨들 모아, 그 기초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 그 의견 대로 원안(原案)을 만들게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그리고, 원안이 되면, 다시 민간의 권위 있는 학자로 심의위원회(審議委員會)를 조직하여, 그 원안을 다시

토의하여, 그 결의대로 채용하기로 하였 습니다。그리하여, 그 다음 해(소화 四년, 서역 一九二九) 五月 二십二일에 다음과 같이 민간 학자들 섞은 심의위원을 발표 하였습니다。

西村眞太郎(總督府 通譯官), 張志暎(朝鮮日報社 地方部長), 李完應(朝鮮語研究 會長), 李世楨(進明女子高等普通學校 敎員), 小倉進平(京城帝國大學 敎授), 高橋亨(全上), 田中德太郎(總督府 通譯官), 藤波義貫(全上), 權應奎(中央高等普通學校 敎員), 鄭烈模(中東學校 敎員), 崔鉉培(延禧專門學校 敎授), 金尙會(每日申報 編輯局長), 申明均(朝鮮教育協會 理事), 沈宜麟(京城師範學校 附屬 普通學校 訓導)

그리하여, 이 위원회에서는 여러번 모 이어 토의한 결과, 소화 四년(서역 一九二九) 六월에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그 이듬 해(소화 五년, 서역 一九三〇) 二월에 다음과 같이 개정된 바를 발표하여, 그 해 四월에 보통학교 一학년 교과서부터 그대로 고쳐 쓰기로 되었습니다。

『改定諺文綴字法概要(昭和五年二月改正)』

### 一. 總 說

一. 朝鮮語讀本に 採用すべき諺文綴字法 是, 各學校を通じて之を同一ならしむること。

二. 用語は現代の京城語を以て標準とす

三. 諺文綴字法は純粹の朝鮮語と漢字とを問はず, 發音通りに表音することを原則とす。

但し必要に應じ若干例外を設く。

〔解説〕由來漢字音を歴史的綴字法を採用せし結果, 綴字と實際の發音との相異するもの頗る多く, 爲に例へば「停」「貞」の如く, 又は「社」「巳」「沙」の如き, 其の音同一なるにも拘はらず之を「정」「정」又は「샤」「소」「사」의 如く二様又は三様に綴らざるべからざりしを, 今回の改正に依り「정」「정」は「정」に, 「샤」「소」「사」は「사」に, 其他何れも, 皆純粹朝鮮語と同様, 表音的綴字法に従ふこととせり。

二. 各 說

一. 純粹の朝鮮語と漢字音とを問はず,  
「ト」に發音せらるる「ト」は全部之を廢  
し左例の甲號の如く「ト」と書す。

例 甲	乙
말(馬)	뎨
사방(四方)	사방
배(腹)	비

〔解説〕「ト」と「ト」は 獨り純粹朝鮮語  
のみならず漢字音に於ても其の數極め  
て多きものなり、例へば「差・父・此・  
次」又は「賣・罵・每・枚」等は、何れも之  
を「차·차·네·네」又は「매·매·미·미」の  
如く區別して書くが故に、學習者は一  
一之を機械的に 記憶するの 必要を生  
じ、其の負擔寔に堪へ難きものあり。因  
つて前記の如く「ト」に一定すること  
せり。

二. 純粹の朝鮮語と漢字音とを問はず,  
다·자·더·저·도·조·두·주·디의 자저조  
주지에, 차·라·쳐·더·초·도·추·류·리  
의 차처초추치에, 사서소슈의 사서소슈  
に發音せらるるものは表音的表記法に  
從ひ後者に一定し、左例甲號の如く書  
す。

例 甲	乙
절(寺)	뎨
적당(適當)	뎨당
죃소(良いです)	뎨소
조사(調査)	도사
짚(藁)	뎨
지방(地方)	디방
장관(長官)	장관
가져왔다(持つて來た)	가져왔다
정분(精分)	정분
조롱(嘲弄)	조롱
중(僧)	중
주인(主人)	주인
황천(皇天)	황뎨
촉루(觸髅)	촉루
착실(着實)	착실
쳤다(打つた)	쳤다
총주(塚主)	총주
춘풍(春風)	춘풍
하사(せられ)	하사

관사(官舎)	관사
섬긴다(仕へる)	섬긴다
하셔서(せられ)	하셔서
선악(善惡)	선악
소(牛)	소
수산물(水産)	수산물
대소(大小)	대소

(附記) 一部論者の中には活用を示す  
填寫に限り、例へば 가져(持つて), 바  
쳐(捧げ), 하셔(せられ)の如く 저·쳐·  
셔等を使用しては如何と説く者あり。  
されど之等は 가져어·바치어·하셔어が  
가져·바치·하셔と變化し、更にか  
바치·하셔と變化せるものと解釋じて  
何等支障なきものにして、特に斯る場  
合、文法的意識に捉はるるの必要を認  
めざる爲、之を採らざることとせり。

三. 純粹の朝鮮語と漢字音とを問はず,  
데·메·베·세·제·제·케·데·페의 제·  
메·메·세·제·체·케·체·페에 의·외·  
외·외·외·외의 미·비·시·치·키·피  
に、취의 취에 發音せらるるものは、表  
音的表記法に從ひ、甲號の如く書す。

例 甲	乙
제일(第一)	뎨일
련애(連袂)	뎨애
센다(老いる)	센다
세금(税金)	세금
제조(製造)	제조
케(層)	케
체조(體操)	뎨조
폐지(廢止)	폐지
거미(蜘蛛)	거미
비곤(憊困)	비곤
나미(蝶)	나미
시장(漸腸)	시장
시르족다(氣力乏し)	시르족다
치중병(輜重兵)	치중병
키(丈)	키
핀다(咲く)	핀다
취미(趣味)	취미

四. 純粹の朝鮮語と漢字音とを問はず,  
左に記する甲號の如きは、乙號の如く  
發音せらるるも、此等は甲號の如く讀  
みて自然乙號の如き發音となるものな  
るを以て、甲號は準據し別に終聲を變

せす。

例 甲	乙
갓모(笠帽)	갓모
아홉말(九斗)	아홉말
국내(國內)	궁내
십만(十萬)	십만
산림(山林)	살림

五. 二語合して複合語をなし、其の間に促音現象を生ずる時は、左の如く書す。  
(一) 上の語が中聲にとつて終る場合に於ては、上の語に終聲として「入」を附す。

例

동짓달(冬至月)	달뻗대(烟管)
뫼자리(苗代)	

(二) 上の語が終聲にとつて終る場合に於ては、他の語と紛れ易き場合に限り、中間に「入」を書す。

例  
장入군(市場の人人)…將軍と紛れ易し。  
문入자(文字)……문자(文字, 熟語の意)と紛れ易し。

(附記) 本文の場合漢字にて書きたる時は、中間其の他に「入」を書せざるものとす。

〔解説〕㉠の場合は「入」の音最も顯著に發せらるるを以て、之を表記するに、一律口上の語の末に附し之が統一を圖り㉡の如く上の語が終聲に終る場合は㉠の場合ほどは顯著ならざるのみならず、之を省略するも、二つの子音重なる關係上、自然に輕微なる「入」の音を生ずる傾向を有するが故、之れには中間「入」を省きて、唯他語と紛れ易きものに限り、意味の混同を避けんが爲め表記することとせり。

六. 發音の長短を現はすべき音符は、左の如き語に對し之を附するを便利と認むるも、其の數極めて多く、且つ長端何れに屬するか尙研究を要するもの少からざるを以て、之を附せざるものとす。

例

말(語…長音 馬…短音)	눈(雪…長音 目…短音)	발(簾…長音 足…短音)
모시고(侍して)	일(事)	교장(教長)
…(以上長音, 모시(苧) 일기(日氣) 학교(學校)…(以上短音)		

七. ㄴ行・ㄹ行の漢字音は歴史的綴字法を取るも、中聲に終る音の下に於て、ㄴ行音がㄹ行音に變じ、ㄹ行音がㄴ行音に變ずる場合は、表音的表記法に従ひ、甲號の如く書す。

例 甲	乙
(一) 회령(會寧)	회녕
야료(惹鬧)	야뇨
(二) 의논(議論)	의론

〔解説〕中聲に終る音の下に於て、ㄴ行音がㄹ行音に、ㄹ行音がㄴ行音に變化するは、決して普通的の現象に非ず、本音のまま發音せらるることも亦頗る多きは、자녀(子女), 오남(五男), 가령(假令), 여론(輿論)等の例に徴して明かなり。總つて若し此等を歴史的に綴ることとせんか、회녕は회녕, 야뇨は야뇨, 의론は의론と其のまま讀むの虞あるに至る。因つて斯る弊を避くる見地より、之を表音的に綴ることとせり。

(附記) 本項に於てㄴ行・ㄹ行の漢字音は、前記の場合を除き、皆歴史的綴字法に従ひ綴ることとせるに就き、一部論者の中、には語頭又は終聲の下に於てㄴ行・ㄹ行の漢字音は、他音に發せらるる多きに拘はらず之を歴史的に綴るは、天地(本來は 天地), 小説(本來は 小説)等を천지, 소설等に綴ることとしたる精神と矛盾し、貫せざるに非ずやと説く者あり、徹底的表音主義の立場よりすれば、寔に尤もなる説と謂はざるべからず。されどㄴ行・ㄹ行の漢字音は天・地・小・説等の漢字音とは頗る趣を異にするものあり、即ち天・地・小・説等の音は如何なる場合に於ても、천・지・소・설等の一音に發音せらるれどもㄴ行・ㄹ行の漢字音は語頭、語下等其の位置に隨ひ、或は他音に、又は本音に發せらるること、여자(女子), 부녀(婦女), 난맥(亂脈), 요란(擾亂)等の實例に徴するも明かなり。従つて此等を全部表音的に書く時は一字の漢字音の綴字多様に流れ、却つて混亂を來すの弊を生ず。是れㄴ行・ㄹ行の漢字音のみは、前記中聲に終る着の下に於

けるヤ行・ラ行の音の他音に變化するが如き、特に表音的表記法を必要とする場合を除き、全部歴史的に綴ることとせし所以なり。

八. 漢字音中、習慣等により音の省略せられ、又は加はり、或は他音に變化して發音せらるるものは、表音的表記法に従ひ、其のまま書す。

- 例 (一) 십일(十日) 시월(十月)  
 목재(木材) 모과(木瓜)  
 (二) 철부(轍鮒) 붕어(鮒魚)  
 추향(趣向) 취미(趣味)  
 (三) 가택(家宅) 면장택(面長宅)  
 동전(銅錢) 쇠전(小錢)  
 빙당(水糖) 사탕(砂糖)

九. 純粹の朝鮮語に於て、場合により야・냐, 여・녀, 요・뇨, 유・뉴, 이・니, 예・네と二様に發音せらるるものは、表音的表記法に總ひ其のまま二様に書す。但し用言は야・여・요・유・이・예に一定す。

- 例 이(齒) 앞니(前齒)  
 여우(狐) 암녀우(雌狐)  
 옷(擲柶) 편옷(組を分けてやる擲柶)

但書の例

- 일어났다(起きに) 막일어났다(起きた計りた)  
 읽는(讀む) 글읽는다(書を讀む)  
 얇다(薄い) 좀얇다(少し薄い)

(附記) 요(敷蒲團)は, 세요, 솜뇨の如く, 요, 뇨に發音せらるる以外に, 中聲の下に於て, 보료(獸毛を中に入れたる敷蒲團)の如く, 료に發音せらるるとあり, 斯の如き場合にありても, 亦表音的表記法に従ひ, 其のまま書す。

【解説】右の如く定めたるは表音的表記法の精神に基ける事云ふまでもなし。一部論者の中には此の種の音が前項に述べなる漢字のヤ行音と類せるを以て其の綴字も亦之と同様に大體歴史的綴字法に従ふこととしては如何と説く者あり, されど純粹の朝鮮語は漢字と異なり, 歴史的綴字を正確に知ること頗る困難なるもの少からず。本項の如き

ものも又之に屬す。従つて之を歴史的に綴ることする時は, 幾多の疑問を生じ, 使用上少からざる混亂を來すに至る。因つて此等の説を採らず。前記の如く表音的に綴ることとせり。但し用言の場合之をヤ行に一定せしは, 用言に於ては熟語をなす場合の如く上語との關係密接ならざるが爲め, 發音に於ても後者程變動を認むる要なきに固る。

一〇. 動詞又は形容詞の語尾に음・암・엄又は이・애等の音を附して名詞に轉成するものの中

(一) 左の如きものは, 甲號の如く書す

例 甲	乙
이름(名)	일음
기름(油)	길음
사람(人)	살암
무덤(墓)	문엄
그믐(晦)	금음
두루마기(周衣)	두루막이
마개(栓)	막애

(二) 左の如く元の動詞又は形容詞の單に名詞化する外, 其の意義に於て, 何等の變化, 増減を齎すことなきものは, 甲號の如く書す。

例 甲	乙
웃음(笑)	우슴
울음(泣くこと)	우름
죽음(死)	주슴
설음(悲しみ)	서름
길이(長さ)	기러
깊이(深さ)	기피
넓이(廣さ)	널비
풀이(解くこと)	푸러
놀이(遊び)	노러

【解説】右(一)及(二)の如く標準を定めたるは, 其の記法を明らかにし混亂を避けんが爲にして, (一)に屬するものを甲號の如く特に語源に遡らず綴ることとせしは, 此の種の語にありては語源との關係相當複雑なるものある爲一一語源を考慮して書くは其の煩に堪へず, 且つ使用の上より見るも, 甲號の如く綴る方最も容易にして簡明なる

が爲なり。  
又(二)に屬するものを甲號の如く特に語源に遡り綴ることとせしは、此の種の語にありては語源との關係頗る簡明にして、何等語源に遡るも困難を感ぜず、且つ之に遡り綴る時は其の意味を明瞭にし得るを以てなり。

一. 擬聲語の語尾にイの音を附して、名詞に轉成するものは、甲號の如く書ず。

例 甲	乙
매아미(蟬)	매암이
피고리(鶯)	피팔이
개고리(蛙)	개골이
기러기(雁)	기력이
까치(鶉)	까이

〔解説〕 從來右の甲乙何れにも綴り明確なる標準を設けざりしものを改め、甲號の如く語源に遡らず、簡明なる表音的表記法に一定し以て記法の統一を圖ることとせり。

二. 된시옷の記號は, 씨・까・쯔の如く茲書とし, 씨・씨・쯔等の如き書方をなさず。

〔解説〕 從來된시옷として 시・씨・씨・ㅍㅍの如く綴りしを ㄷ·ㅌ·ㅍ·ㅍ·ㅍ·ㅍに茲書することと改めたるは、元來本音は、子音 ㄱ·ㄷ·ㄷ·ㄷ·ㅍ·ㅍが濃化又は硬化せらるる感じを伴ふ音なるが故に從來の如く「S」音を具有せる「ㅍ」を ㄱ·ㄷ·ㄷ·ㅍの右に書くことを廢し、右の如く決定せるなり。

三. 終聲は從來使用せられたる ㄱ·ㄷ·ㄷ·ㄷ·ㅍ·ㅍ·ㅍ·ㅍ·ㅍ·ㅍ以外に ㄷ·ㄷ·ㅍ·ㅍ·ㅍ·ㅍ·ㅍ·ㅍ·ㅍ·ㅍ·ㅍ等を加ふ。従つて次の如きものは、甲號に準據して書す。

例 甲	乙			
얻다(得る)	얻어	얻다	어덕서	어들
서 얻을				
맡(畑)	맡매기	맡	맡매기	맡치
치 맡에 맡은		맡히	맡흔	
같다(似る)	같아	같다	갓하서	갓흔
서 같은				
붙다(附く)	붙어	붙다	붓하서	붓흔
서 붙을				

낮(晝)	낮잠	낮이	낮	낮잠	낮이	낮
낮에	낮은			에	낮은	
짓다(吠える)	짖	짓다	지저서	지즐		
어서 짖을						
숫(炭)	숫불	숫이	숫	숫불	숫치	숫
숫히	숫은		헤	숫흔		
쫓다(追ふ)	쫓아	쫓다	쫓차서	쫓출		
서 쫓을						
잎(葉)	입사귀	잎	입	입사귀	입히	
이 잎에	잎은		입히	입흔		
깊다(深い)	깊어	깊다	깊히서	깊흔		
서 깊은						
나(齡)	낫살	나이	낫	낫살	낫이	낫
나에	나은		에	낫은		
조라(好い)	조와	좋다	좋하서	좋흔		
서 조을						
밖(外)	문밖집	밖	밖	문밖집	밖기	
에	밖은		밖기	밖흔		
묶다(束ねる)	묶	묶다	묶거서	묶흔		
어서 묶을						
넋(魄)	넋드리	넋	넋	넋드리	넋시	
이 넋에	넋은		넋시	넋흔		
안다(坐る)	안어	안다	안저서	안즐		
서 안을						
만다(多い)	만아	많다	많하서	많흔		
서 만을						
할다(舐める)	할	할다	할하서	할흔		
아서 할을						
올다(正しい)	올	올다	올하서	올흔		
어서 올을						
읊다(詠む)	읊어	읊다	읊히서	읊흔		
서 읊을						
값(價)	값본다	값	값	값본다	값시	
이 값에	값은		값시	값흔		

(附記) 업다(無)如き用記は, 업다, 업서서의如く書き, 없다. 없어서의如くㅍの終聲を附せず。

【備考】(一)右の例によりて察知し得るが如く、新許容の單終聲 ㄷ·ㄷ·ㅍ·ㅍ·ㅍ·ㅍ·ㅍ·ㅍ·ㅍ·ㅍ·ㅍ等は下に母音の來る場合、其の音明瞭に發音せらるること從來使用せらるる單終聲と同じく、單獨又は下に子音の來る場合に於ては、ㄷ·ㄷ·ㅍ·ㅍ·ㅍ·ㅍ·ㅍ·ㅍ·ㅍ·ㅍ·ㅍ等は人と同じく、ㅍは日と同様の働きをなすものとす。



(二) 重終聲 ㄱ・ㄷ・ㄴ・ㄹ・ㄷㅌは下に母音の來る場合、其の音明瞭に發音せらるること從來使用せらるる重終聲 ㄱㅌ・ㄷㅌと同じく、單獨の場合は右半を分離せる單終聲と同様の働きをなし、子音の上においては ㄱ・ㄷ・ㄴ・ㄹ・ㄷㅌは ㄱ・ㄷ・ㄴ・ㄹ・ㄷと 同じく右半を分離せる單終聲と同様の働きをなし、ㄷㅌは ㄷと同じ働きをなすものとす。

(三) 前記五箇の單終聲及六箇の重終聲を新たに許容せる結果、從來と其の書方を異にする語を擧ぐれば大略左の如し。

ㄱのつくもの… 믿(信ず) 받(受く)  
닫(閉づ) 묻(埋む)  
얻(得る) 돋(日月昇る)  
쏟(溢す) 견(收む) 굳(堅一) 곧(直一) 벌(延ぶ) 뻗(伸ばす)

ㄴのつくもの… 밟(畑) 물(陸) 별(日光) 밑(底) 팔(小豆)  
겉(表) 끝(端) 말(低く)  
뱉(吐く) 갈(如し) 불(付く) 흩(散ず) 얇(淺し) 짙(濃し)

ㅅのつくもの… 닳(晝) 못(惡し) 젖(濕る) 찻(探す) 맞(番迎)  
빚(醸す) 꽂(挿す) 맺(結ぶ) 낮(低し) 짓(吠ゆ) 꾸짖(叱る) 부르짖(叫ぶ) 잊(忘る) 늦(晩し) 잣(屢ずる)

ㅇのつくもの… 숯(炭) 빛(光) 낯(顔) 꽃(花) 쫓(追ふ) 쫓(從ふ) 몇(幾)

ㅈのつくもの… 잎(葉) 무릎(膝) 숲(藪) 옆(側) 앞(前) 깊(薪) 깊(藁) 깊(深し) 짚(枚づく) 값(報ゆ) 덮(蓋ふ) 덮(覆す) 높(高し) 動詞下の 고싶(し度し)

ㅊのつくもの… 밖(外) 꺾(磨く) 꺾(折る) 깎(削る) 섞(混ず) 쫓(間引く) 볶(炒

る) 엮(編む) 굵(束ぬ) 낚(釣る) 耳(經驗する)

ㅊ의つくもの… ㅅ(魄) ㅅ(賃) ㅅ(割前)

ㅊ의つくもの… 앉(坐す) 앉(上に並く) 끼(撮り) ㄷ(撮く)

ㅊ의つくもの… ㅅ(舐む) ㅅ(扱く)

ㅊ의つくもの… ㅅ(泳ず)

ㅊ의つくもの… ㅅ(價)

[ 解説 ] 本項改正の要點、は從來の綴字法に於て終聲は、 ㄱ・ㄷ・ㄴ・ㄹ・ㄷㅌ・ㄱㅌ・ㄷㅌの十箇を使用せしを改め、右の外更に、 ㄱ・ㄷ・ㅅ・ㅈ・ㅊ・ㄱㅌ・ㄷㅌ・ㄴㅌ・ㄹㅌの十一箇を許容せるにあり。之が許容の可否に就きては、世上幾多の論あり。既に大正十年の改正の際に於ても、委員間に相當の論議ありし所なるが、今日之を許容することとせしは、諺文は元來表音文字なりと雖も朝鮮本來の性質上、全體に互り徹底的に之を發普通る綴る時は如何と思はるもの少からず例へば ㅅ난(國難), 아홉말(九斗), 사람이(人が), 먹어라 食への如きも、之を ㅅ난, 아홉말, 사람이, 먹어라の如く綴る方最も表音的なれど、從來に於ても ㅅ난, 아홉말, 사람이, 먹어라の如く綴りしは、其の綴字に觀念的表現を必要とせしが爲なり、重終聲中 ㅅㅌ・ㅈㅌ等を從來に於ても採用せしが、此等も亦右の理由によるものなり。本項に於て更に新しき單終聲及重終を許容せしも亦右の理由に基き其の使用を擴張せし項第にして、表音的に考慮する時若干の疑問きに非るも、體言と助詞、用言と活用な部等の關係を明瞭ならしめ、文法、語法の整然を期する等其の得る所以からざるものあり。因つて之を許容することとせしなり。尙右の外、單終聲 ㅅ, 二重終聲 ㅅㅌ・ㅈㅌ・ㅊㅌ等も許容せしとの論者あれど、此等に就きては尙、發音の如何、實際使用上の難易等に關し相當研究の餘地あるを認め之を許容せず、從來の綴字法に従ふこととせり。

一四. 助詞は其の上の語の語幹と區別して書くを本則とす。

例

사람이(人が) 사람은(人は) 사람을  
(人を) 낚이(魄が) 낚은(魄は) 낚  
을(魄を)

十五. 助詞「이」, 助動詞「인데・이오・입  
니다」等は, 終聲「ㄷ」に終る體言の下に  
ありては, 表音的表記法に従ひ, 치●친  
데●치오●칩니다等に書す。

例

말(烟) 말치 말친데 말치오 말칩니  
다  
끝(端) 끝치 끝친데 끝치오 끝칩니  
다

【解説】終聲「ㄷ」を許容せし結果, 下に  
은, 예等の來る場合は, 말은(烟は), 말  
에(烟に)の如く綴り問題なきも, 이●  
인데等の來る場合は, 말이●말인데と  
なり, 普通の發音と異なる音を現はすに  
至る。斯くては發音通りに表記するの  
精神に反するを以て特に此の場合に使  
用すべき表音的綴字を明記するの必要  
を認めたる所以なり。尙一部論者の中  
には, 體言に於て말(烟), 말(烟)の如  
く二様の綴字を認めて下の辭を말에●  
말은●말이●말인데の如く普通的の  
ものとしては如何と説く者あれば體言を  
下の辭の爲に二様に綴るは本末顛倒の  
嫌あるを以て之を採らざることとせり。

一六. 助詞「에●에서●에는」等は, 終聲  
「ㄷ」に終る體言の下にありては, 表音  
的表記法に従ひ, 데●데서●데는等に書  
す。

例 숯(炭) 숯데 숯데서 숯데는  
빛(色) 빛데 빛데서 빛데는

【解説】終聲「ㄷ」を許容せし結果, 下に  
이●은等の來る場合は, 숯이(炭が), 숯  
은(炭は)の如く綴り問題なきも, 에●  
에서等の來る場合は숯에●숯에서とな  
り, 普通の發音と異なる音を現はすに  
至る。斯くては發音通りに表記するの  
精神に反するを以て, 特に此の場合に  
使用すべき表音的綴字を明記するの必  
要を認めたる所以なり。尙一部論者の

中には體言に於矣(炭), 숯(炭)の如く  
二様の綴字を認め下の辭を숯이●숯은  
숯에●숯에서の如く普通的のものとし  
ては如何と説く者あれど, 體言を下  
の辭の爲に二様に綴るは本末顛倒の嫌  
あるを以て之を採らざることとせり。

一七. 助詞「고●게」, 助動詞「다●겠다●지」  
等は, 上に來る語の種類により, 코●  
케●락●겠다●치等に書す。

例 조라 조코 조케 조겠다 조치  
만라 만코 만케 만겠다 만치

一八. 次の如き場合に於ける이오●이요●  
시오●시오●지오●지오等二様の書方あ  
るものは, 全部이오●시오●지오等に  
一定し甲號の如く書

例 甲

乙

사람이오(人です甲) 사람이요(人です乙)  
선생님이시오(先生です甲) 선생님이시오(先生です乙)  
책이지오(本でせう) 책이지오  
가지오(行かれませう) 가지오  
먹지오(食べませう) 먹지오

一九. 終聲によつて終る用言の活用部は,  
語幹と區別して書くを本則とす。

例

먹으오(食べます) 먹었소(食べました)  
검으오(黒いです) 검어서(黒くて)  
얻은돈(得た金) 얻어서(得て)  
깊은물(深い水) 깊었더(深かつた)  
핥으오(舐めます) 핥았소(舐めました)

二〇. 中聲によつて終る用言の活用部は,  
表記法に従ひ, 左の如く書す。

例 두다(置く) 두어서 두었소

주다(興へる) 주어서 주었소

되다(成る) 되어서 되었소

지다(負ける) 지서 졌소

그리다(描く) 그려서 그렸소

크다(大きい) 커서 컸소

고프다(饑しい) 고프서 고폻소

흐르다(流れる) 흘러서 흘렀소

마르다(乾く) 말라서 말랐소

다르다(異なる) 달라서 달랐소

치르다(支拂ふ) 치러서 치렀소

이르다(至る) 이르러서 이르렀소

푸르다(青い) 푸르러서 푸르렀소

二一. 用言の終聲が, 場合により省略せ

られ, 又は他の終聲に變じ, 或は母音に變ずる場合は, 表音的表音法に従ひ, 左の如く書す。

例

(一) 놀다(遊ぶ) 노오 노지마라 놀앗소 놀고  
울다(泣く) 우오 우지마라 울엇소 울고  
잇다(繫ぐ) 이오오 잇지마라 이엇소 잇소

(二) 묻다(問ぶ) 몫소 몫지마라 물엇소 몫고  
듣다(聞く) 뉛소 뉛지마라 들엇소 뉛고

(三) 덥다(暑い) 뉛소 뉛지안소 더웠소 더운  
아름답다(美しい) 아릅답소 아릅답지안소 아릅다웠소 아릅다운

二二 左の如き用言の下に, 助動詞「소」の來る場合は表音的表記法に従ひ, 終聲「人」を語幹に附す。

例 그러라(さうた) 그렸소  
조라(良い) 좃소  
싸라(積む) 싹소

二三 左の如き語は, 甲號の通り書す。

例 甲 乙  
바침(終聲) 밧침  
부치다(貼る) 붓치다  
바치다(捧げる) 밧치다  
구치다(固める) 굿치다

但一形容詞より轉じたる副詞갓치(如く)は갓치と書す。

〔解説〕特に終聲「人」を附せざるも, 其の音は自然に發せらるるを以てなり。尙一部論者の中には 밧침・물치다・밧치다の如く語源に遡りて綴るべしと, 説く者あれど, 一一語源に遡るは其の煩に堪へず。因つて之を採らることとせり。

二四 「히」又は「이」を附して副詞を作るものの中,

(一) 主要なる語が漢語なる場合は「히」を附す。

例

大端히 閒暇히 安寧히 急히

(二) 主要なる語が純粹の朝鮮語なる場合は, 發音の如何により「히」又は「이」を附す。

例

(1) 가득이(一杯に) 작히(嗚ぞ)  
넉넉히(充分に) 불상히(不憫に)  
(2) 만이(多く) 가만이(徐徐に)  
나란히(整然と) 깊히(深く)  
(中畧)

附 記

一. 子音の稱呼法は左の如く定む。

기역 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이음 ㅎ ㅊ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二. 諺文反切は從來の通り書まし, ㄷ行, ㄹ行, ㅅ行, ㅈ行, ㅊ行, ㅋ行, ㆁ行も, 皆正音の通り讀ましむ。

但し(ゝ)は(ト)と同様に讀ましむ。

(以上)

이상이 새 개정안의 전문이외다. 여기에는 불만을 느끼게 할 이 많이 있으나, 여기에 그것을 말할 시간이 없고, 또 조히가 이미 많아진 고로 그만 두겠습니다. 또 이 밖에, 한글 운동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나, 한글의 바뀐만을 말하기로 한 여기에는 그만 다 끊어 버리고, 그만 그치려 합니다.

(一九三二, 六, 二〇, 배화에서)

◀ 册衣의說明 ▶

조선 歷史上 文化의 꽃이 찬란하든 三國時代의 遺物, 곧 高句麗의 古墳 磚 紋樣, 百濟의 土磚 模樣, 및 新羅의 瓦片의 紋樣의 綜合圖로써 輪廓을 삼고, 中部의 植物은 語根, 語幹을 意味함이며, 또 닭으로써 鷄林, 곧 朝鮮을 象徵함입니다. 이것은 以堂 金般 鎬 畫伯이 그려 주신 것이며, 題號 「한글」은 訓民正音의 書體로, 梅軒 韓 沖 先生이 써 주신 것입니다.

## 한글綴字法의

## 理論과實際

## 맞침법의合理化

申 明 均

맞침법(綴字法)의合理化라 하면, 세상에서는 흔히 전에 안 쓰든 새 받침개나 더 써서, 공연히 글을 어렵게만 만드는 몇 사람의 장난거리로만 여기는 것이 普通인듯 하고, 혹은 억없는 感情을 가지고, 그저 옛 사람들의 대궁이나 활아 먹으려는 케케 묵은 생각이, 오늘날 조선사람의 處地로서, 어느 餘暇에 그따위 청치증한 짓을 할 겨를이 있을가 하는 것이 우리 글자 運動에 對한 세상의 批評이다. 이것은 너무도 남의 眞意를 모르는 妄評이다. 우리들의 合理化 運動은 결단코 세상이 걱정하는 바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장난도 아니요, 感情도 아니요, 가장 嚴正한 科學的 理論의 根據를 가지고, 조선글 맞침법의 合理化를 꾀하는 것이니, 말하자면, 곧 글자를 運用하는 데에 드는 努力은 되도록 덜 들게 하고, 글자의 나라내는 能率은 되도록 많게 하자는 것이, 우리들의 合理化의 目的이다.

우리가 글자를 運用하는 데에는 배우기(學習), 읽기(讀書), 박기(印刷), 세가지의 現象이 있다. 맞침법의 合理化는 이 세가지 條件을 對象으로 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니, 첫째 배우기를 쉽게 하기 爲하여서는

(1) 말의 發音을 現代化할 것이다. 發音의 現代化에는 두가지의 갈래가 있으니, 하나는 朝鮮語音의 現代化이요, 둘은 漢字音의 現代化이다. 現代의 말을 現代의 소리로 적지 않을 때에는, 소리와 글자가 서로 一致하지 않는 때문에 배우기에 공연한 努力이 더 할뿐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글자의 紊亂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하므로, 「사름」(人), 「쌀」(米), 「쇼」(牛)와 같은 것은 옛날에는 어떠한 글자로 적었든지, 지금은 오늘날의 發音을 좇아, 「사람」, 「쌀」, 「소」로 적어야 할 것이 當然한 일이요, 「툰」(天), 「술」(戊), 「쇼」(朝), 「더」(低)들과 같은 것은 그 본래의 字音이야 무엇이거나, 「천」, 「술」, 「조」, 「저」와 같이 現代의 字音으로 적는 것이 가장 合理的인 일 것이다. 그리고, (2) 發音의 統一과 發音의 表示를 簡易化할 것이니, 이를테면, 地方的으로는 「좋다」를 (好) 「둥다」라(平安道) 하고, 「추어」를(寒) 「춤어」라(慶尙道) 할지라도, 이것들은 當然히 標準語音을 따라, 「좋다」, 「추어」로 統一하여야 할 것이요, 「엇저」(豈), 「깊히서」(深)와 같은 것은 「어찌」, 「깊어서」와 같이 한 소리는 한 글자로 써 나라내는 것을 原則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3) 글자의 標準을 세우면, 이전에 쓰지 않던 새 받침은 쓰게 된다 할지라도, 「갈으니」와 같은 것은 「갯흔니」, 「가르니」, 「갯르니」들의

갓가지로 적든 글자가 「같은니」의 한가지로만 統一이 되어, 글자의 標準이 세져 되면, 따라서 배우는 努力도 덜하여질 것이다. 글자의 整理는 무엇보다도 말의 法則을 가장 무거이 여겨야 할 것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그러하고 (4) 글자에 對한 모든 慣習을 아주 無視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옷」(衣), 「붓」(筆) 같은 것은 저 혼자만 날 때에는 ㅅ받침이 ㄷ받침으로 날지라도, 「옷이」, 「붓이」 할 때에는 도루 ㅅ받침으로 나는 때문에 「옷」, 「붓」에는 ㅅ을 받히드래도 相關이 없지마는, 「첫날」(初日) 「헛소리」(虛言) 같은 것은 「옷이」, 「붓이」와 같이 母音 ㅜ와 ㅛ대어 나는 境遇가 없으니, 이런 것들은 從來의 慣習이야 어떡하거나, 소리의 原理대로 ㄷ받침을 받치는 것이 옳다는 意見도 있다. 그러하다. 소리의 原理대로만 말하면, ㄷ받침을 받치는 것이 十分當然한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전에 쓰지 않던 새 받침을 쓰는 것을 一般은 생각하기를, 소리의 原理를 따라서, 새 받침을 쓴다고 생각하는 편 보다는, 오히려 소리글자들(表音文字) 뜻글자(表意文字)化하느라고 쓴다고 생각하는 편이 더 重한 것 같다. 그러하므로, 「첫」, 「헛」 같은 것을 철, 혀과 같이 ㄷ받침을 단다 하면 一般은 여기에는 또 語法上 무슨 다름이 있나 하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소리는 좀 다를지라도, 도리어 從來의 朝鮮사람 一般이 받음소리(促音)에는 의례히 ㅅ받침을 써 오든 慣習을 따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둘째, 읽기를 쉽게 하기 爲하여서는

(1) 본래의 소리글자(表音文字)인 朝鮮 글자를 뜻글자(表意文字)化 시키는 것이니, 오늘날 글자중에 가장 읽기 쉬운 글자는 저 漢字일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漢字가 본래 뜻글자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가 한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 까닭이다. 그리고, 조선 글자나 일본 가나와 같은 것은 본래 소리글자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가 아무 意味 없는 소리 한덩어리를 나타내고 있는 까닭으로, 漢字와 같이 읽기가 쉽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꽃밭」(花田), 「밭임자」(田主), 「낮잠」(晝寢)과 같이 소리의 實際만을 보지 말고, 이처럼 소리글자를 얼마큼 뜻글자化 기킨다 하면, 읽기가 저 漢字처럼 便利하지는 못하드래도, 얼마큼 읽기가 수월하여질 것은 疑心 없는 일이다. 이 소리글자의 뜻글자化라 함은 곧 말의 語源을 글자에 나타낸다 하는 것이니, 이 (2) 語源의 表示라는 것은 본래 그 徹底는 到底히 期約할 수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본래의 變動性을 가진 語源을 一一이 글자 우에 나타낼 수도 없는 것이요, 또는 語源이 明白한 것이라도, 「노래」와(歌) 같은 말은 그 語源이 「놀다」(遊)에서 나왔다고 놀애로 쓴다는 것은, 그다지 必要치 않은 일인 줄 안다. 왜 그러냐 하면, 노래와 같은 말은 지금에 와서는 노래를 歌謠라는 한 原語와 같이 여기게 되고, 놀다라는 말에서 온 것을 생각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또 읽기를 쉽게 하는 데에 가장 重要한 것은 (3) 날글자(單字)를 세우는 일이나, 날글자를 세우는 때에는, 날말마다 떼어서 적는 것보다 더 必要한 것은 없다. 글을 떼어서 적으면, 글이 읽기만 쉬울뿐 아니라, 따라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 간다』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로와 같이 잘못 읽는 弊端도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읽기를 쉽게 하는 때에는, (4) 글자의 特色을 마련함이나, 자령 「鎌」, 「畫」, 「顏」, 「箇」와 같은 말을 흔히 「낫」이, 한가지로만 소리를 내기도 하고, 혹은 「畫」 「鎌」은 낫이, 혹은 「畫」는 「낫이」, 「顏」, 「箇」는 「낫이」, 혹은 「箇」 「낫에」 같이 소리가 한갈

같지 못한 말이 있을 때에는, 본래 그 말의 옛말 소리는 어땠던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소리를 가장 많이 내는가, 또는 어땠던가 하면 같은 글자를 避할 수 있는가들의 條件을 생각하여서, 「鎌」은 「낫」, 「晝」는 「낮」, 「箇」는 「날」, 「顔」은 「낯」과 같이 글자마다 特色을 마련하면, 읽기도 쉬울뿐 아니라, 뜻의 混同이 없게 될 것이다.

셋째 박기를 쉽게 하기 爲하여서는 우선

(1) 글자를 統一할 것이니, 지금의 조선글은 漢字를 섞어 쓰기 때문에, 박기가 至極히 不便하다. 오늘날 文明에서는 이 印刷術의 便不便在 至極한 關係를 가지고 있기 까닭으로, 各 民族이 다투어 가면, 印刷術의 發達를 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므로, 朝鮮글도 박기를 便하게 하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漢字의 使用을 廢止할 것이다. 漢字의 使用을 廢止한다 하더라도, 본래 조선 글자의 맞춤 방식이 가, 간과 같이 소리를 한 도막씩 반듯반듯하게 마쳐왔을뿐 아니라, 가나다와 같이 가로도 맞치고 고노도와 같이 세로도 맞치기 때문에, 子母音만 하여서, 三十에 不過에 하는 글자가 二千種이나 넘는 多數한 字數를 가지게 되어서, 비록 漢字의 使用을 廢止한다 하더라도, 印刷는 역시 不便함을 免할 수 없게 된다. 그러하므로, 오늘날 가장 發達된 印刷機의 라이부라이트, 라이타임 같은 機械를 쓸 수 있도록 便利한 글자가 되자면, 맞춤 방식을 어느 편으로든지 한가지로 統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글자로서 가장 理想的인 글자가 되자면, 배우기, 읽기, 박기의 세가지가 모두 便利한 글자이라야 될 것이요, 어느 한가지만이 便利하다고, 그것이 곧 理想的인 글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끝)—

## 綴字法原理

金 善 琪

一. 먼저 할 말.

二. 綴字法의 意義.

三. 音素文字의 綴字 原理.

四. 綴字法과 諸 問題.

(1) 文字 自體 問題.

(2) 標準語 問題.

(3) 聲音 問題와 字法.

(4) 文字法과 綴字法.

(5) 한글의 特質에서 오는 문제.

五. 끝나는 말.

### 一. 먼저 할 말

綴字法 統一問題와 같이 朝鮮語學界에 있어 시급한 문제는 없다. 그러므로, 朝鮮語學會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크게 勞力하여 왔고 또 勞力하는 중이다.

이 문제는 眞正히 斯界의 專門家가 全力을 合하여, 解決하도록 勞力을 하여야 될 것이다. 綴字法 統一問題는 문제의 성질 自體로 보아, 결코 一個人의 獨斷에 맡길 문제가 아니요, 여러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理論的 根據에 依하여, 合理的 處理를 지을 수가 있는 문제다. 나는 아직 익지 못한 생각이나마, 이 理論的 根據에 대하여, 緒論的 意味의 小論을 적어, 여러 大方家의 高見을 삼가 듣고저한다.

## 二. 綴字法の 意義

綴字法 이라는 말은 『우리말을 우리글로 어떻게 적어야 옳은가』 하는 뜻이다. 곧 表音文字인 우리글로 어떻게 우리말을 적을가 하는 문제다. 이만큼 말하여도, 뜻은 짐작 될지 모르나, 좀 더 자세히 말하여 보자

綴文法은 크게 말하자면 글로 말을 어떻게 적느냐 하는 문제이니까, 文字부터 考察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文字에 따라서 綴字法の 意味가 바꾸임으로 썩이다.

文字學者는 世界 文字를 表意文字와 表音文字로 大別하나니, 이것은 製作의 原理로 가른 것이다.

文字는 言語의 視覺的 表現이니, 言語의 두 가지 要素인 뜻과 소리를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表意文字와 表音文字는 이 두가지 要素를 表現하는 方法이 다른 것이다. 앞것은, 뜻을 직접 나타내고, 소리를 간접으로 나타내며, 뒤것은, 소리를 직접 나타내고, 뜻을 간접으로 나타낸다. 물론 表音文字와 같이 뜻과 소리를 같이 나타내는 수도 있다. 실례를 들어 더 說明하자. 表意文字中 象形文字인 漢字의 例를 들어 說明하자면, 「해」라는 對象을 글씨로 나타낼제 對象의 形象을 ⊙日와 같이 그리고, 이 文字를 다시 그 對象의 聲音的 表現을 가지고 읽는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對象을 視覺적으로(註一)바로 나타내고, 이 對象을 나타내는 말소리와는 간접 관계 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同一한 對象이 여러소리도 表現된다 하여도, 글자는 그대로 있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같은 날일자(日)를 北平(北平)서는 「르」하고 읽고 山東(山東)서는 「이」하고 읽는다. 그러니까, 表意文字는 製作의 原理上 綴字 問題가 생기지 않는다.

註一. 表意文字는 이 까닭에 눈으로 읽기에 많은 便利가 있다. 그러나, 對象마다 符號를 들므로, 文字 수효에 한이 없어, 배우기 不便하고, 印刷의 不便이 많다. 그런데, 漢字가 읽기 쉬운 것은 글자마다 象形文字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차라리 特色이 있는 線畫의 덩어리이므로 잘 눈에 들어 온다. 그러므로, 試驗에 依하면, 音素文字인 英文이나 漢文은 讀書 能率이 같다. 또 漢字와 같은 文字는 國語統一上 큰 缺點이 있다.

그러나, 表音文字는 對象을 表現하는 音聲에 어떠한 符號를 주어 만든 것이니까, 뜻(對象)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말의 소리와 직접 관계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같은 對象이라도, 그 對象의 聲音的 表現이 같지 아니 하면, 따라서 여러가지 文字的 表現을 할 수가 있다. 이를테면, 「杜鵑」을 鶯鶯이라고 할 적과 鶯鶯(慶南 方言)라고 할 적과 그 文字的 表現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한번 杜鵑을 鶯鶯이라고 적으면, 鶯鶯이는 아는 사람이 어디서 읽더라도 鶯鶯이가 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우에서는 表意文字와 表音文字와 比較 考察하여, 表意文字에서는 綴字 問題가 생길 수가 없음과 表音文字의 製作의 原理와 性質을 말하였거니와, 이러케 만든 文字가 어찌하여서 綴字問題가 생기는가 더 살펴 보자.

表音文字는 말의 音聲을 적는 것임은 틀림이 없으나, 그러하고 소리만 忠實히 옮겨 놓으면 그만 될 것이냐 하면, 文字의 本質上 聲音轉寫記號가 아니니까, 그러케 할 수가 없고, 또, 똑 같은 소리를 여러 가지로 적을 수가 있는 경우에, 어느 것을 쓰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가령 같은 소리 「견친다」를 「견힌다」로 쓸 것이냐, 「견친다」로 적어야 옳으냐 하는 문제다. 비로소 여기에서 綴字法 問題가 생기나니, 이로서

보아 대강 綴字法이란 무엇임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생기는 綴字法 問題도 音素文字의 境遇와 音節文字의 境遇가 또 달라지고 綴字의 歷史的 過程과 音韻 組織이 같지 아니한데 따라서, 또한 實際 綴字法 問題는 달라질 것이다。

### 三. 音素文字의 綴字 原理

우리 文字를 흠이 文字를 分類하여 말할제, 單音文字이니 一字 一音一字라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 文字의 本質을 바루 옳게 드러내지 못하므로, 쓰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在來에 文字의 뜻을 잘 理解하지 못하고, 文字를 音聲表記의 理想的 原理인 一字一音を 實用文字에까지 適用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잘못은 從來 聲音學者가 言語의 聲音 方面만 研究하기에 沒頭하든 끝에, 聲音의 意味 方面을 잊어버린 데에서 온 것이다.

그러나, 言語學이 發達하면서, 言語의 聲音을 다만 生理 物理學的으로만 研究하든 在來 聲音學者와 달라 音聲과 意味를 如何히 連絡할 수 있을가 하는 心理方面을 考察하기 시작하였다. 이름높은 스위스 言語學者 F. de Saussure가 1916에 파리에서 言語講義 (Cours de linguistique)에 이와 같은 理論을 力說한 以來, 이 見解가 學界에 큰 注意를 일으켜, 필경 그 見解가 正當한 것이 定論이 되었다. 그래서, 言語學의 聲音 方面의 研究는 Phonology(音韻學)를 다룰 것이요, 音聲의 單位를 Phonetics(音聲學)에서와 같이 精密히 가를 必要가 없게 되었다. 실상 어스어스한 소리는 그 言語上의 機能이 같아서, 서로 바꾸어 놓아도, 意味에 相違가 생기지 아니하므로, 그런 소리를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니, 音聲의 意味 方面을 考慮하여, 비슷한 소리들의 한 덩어리를 音韻學上의 單位로 하여 Phoneme(音素)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알파베트式 文字는 事實 이 音素를 代表하여, 一字一音素를 理想으로 하고 결코 一字一音이어서는 아니 될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래서, 在來의 實用文字에 對한 一字一音의 생각은 깨어진 것이다. 이러케 言語學의 發達을 기다려, 비로소 文字의 참된 구실이 환하게 된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音素文字 自體가 벌써 音聲의 意味 方面을 顧慮하였거니와, 綴字의 境遇도 意味 表現 方面을 重要視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去年 제네바에 열린 萬國言語學會 席上에서 發表한 Trubetzkoy의 다음 말을 보아도 알 것이다.

音韻學的 立場은 言語와 文字와의 關係가 全然 特別한 빛을 주었다. 實用的 文字의 文字組織(綴字)은 實際上 發音된 소리를 전부 再現함이 目的이 아니요, 音聲의 音韻學的 價値가 있는 部分만을 再現할 것이 目的이다. 사람이 文字로 적는 것은 實際 發音한대로가 아니요, 發音하려고 생각하고, 또는 發音하려고 意圖하는 바이다. (Eine ganz besondere und neue Beleuchtung bekommt von phonologisches Standpunkte das pro bzw der Beziehung zwischen Sprache und Schrift. Ein Praktisches Schriftsystem bezweckt nicht die Wiedergabe aller tatsächlich gesprochene Laute, sondern nur diejenigen Gegeusätze, die einen Phonologischen Wert haben. Man schreibt weht das, was man wirklich ausspricht, sondern das, was man zu sprecher meint oder zu shprechen beabsichtigt.)



앞에도 말하였거니와, 文字는 言語의 두 가지 要素인 뜻과 소리를 나타내야 될지니, 만약 뜻만 나타내고 소리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면, 그것은 그림은 될지언정 文字가 아니요, 이와 반대로 소리만 드러내고 뜻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은 樂譜는 될지언정 文字는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말의 소리만 忠實히 再現함이 目的인 發音記號는 嚴密한 意味에서 文字는 아니다.

우에서 論한 바와 같이 音素文字의 綴法은 表音文字이므로 말소리를 적되, 意味 表現 方面(表意化)을 重要視하여야 된다는 것이 綴字의 基本原則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音素文字로서는 어떠한 意味를 表現하나, 表意文字의 意味 表現의 方法과 比較 考察하여 보면 이러하다.

우리의 言語對象인 꽃을 表意文字에서는 「花」로 表現하였으니, 花字는 풀초字「艸」와 區別「化」가 어울려 되었으니, 풀에서 되는 것이 꽃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表音文字에서는 어떠한 意味를 表現할가, 表音文字는 綴法을 固定化하여 表意하는 것이다. 가령 꽃이란 말을 글자로 적는다면, 「꽃과」라 할 제는 실제 발음은 「꽂」과로 낫다, 또 「꽃에」라 할 제는 「꼰에」로 나고, 「꽃을」 할 적에는 「꼰을」하고 낫다. 勿論 實用文字가 아니요, 發音記號라면, 그 實際 發音 나는 境遇대로 적으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文字는 意味 方面을 생각하기 때문에, 實際 發音은 이상 세 가지로 「꽂」, 「꼰」, 「꼰」으로 나지마는, 언제나 제 音價를 채 드러내는 꽃이란 名詞가 「이」나 「은」로 우에서의 發音에 좇아 꽃으로 規定하여 버린다. 그런 뒤에는 꽃字와 對象과는 直接 關係는 없지만, 「꽃」이란 字形에 意味를 주어, 固定하여 버리는 것이다. 「얼굴」, 「鎌」, 「畫」, 「穀」等を 「낫」, 「낫」, 「낫」, 「낫」으로 規定한 方法도 이러하다. 이만큼 하여도, 音素文字의 意味 表現의 뜻이 밝혀졌거니와, 한 마디 더 할 말이 있으니, 表意化와 語源 表示와의 關係에 對한 것이다. 우리는 綴字法 處理에 있어, 이 두 가지의 뜻이 明確히 같지 아니함을 알아야 될 줄 안다. 一例를 들어 말하자면, 「울개미」를 적을 적에, 「웁셈이」로 적어이만, 비로소 表意化될 줄 알아서는 아니 된다는 말이니, 「울개미」라고만 써도, 벌써 表意化된 것이다. 「웁셈이」로 씀은 表意化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語源 表示까지 한 것이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音素文字의 表意化는 綴法의 固定化에 依하여 되므로, 「울개미」라고 固定化 하면, 表意化는 이미 되고, 「울개미」라는 말은 읊는다는 말에서 왔으니, 「웁셈이」로 적자 하면, 表意化에 語源表示까지 한 것이다. 그런데, 실상 表意化한 글자나 語源 表示까지 한 글자나 結局 그 文字的 動能은 一般이요, 語源表示는 어려움만 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무리에게 語源 表示까지 요구함은 無理하다. 그러므로, 나는 絶對 語源表示를 主張하는 분에게 가담할 수가 없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語源 表示를 考慮하여야 될 적도 있다.

以上에서 말한 것은 말의 소리를 적을 적의 原則이지만, 이 밖에 이와는 性質이 다르나, 綴字의 基本態度의 하나로 言文一致를 말하여 둘 必要가 있다.

이 두 原則을 念頭に 두고, 綴字法에 關한 이것 저것을 들추어 보자.

#### 四. 綴字法과 諸 問題

綴字法은 實際에 있어, 어떤 原理에 依하여 當장에 數學問題와 같이 풀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以上과 같은 原則的 態度를 가지고 綴字法을 規定하되, 個個 問題의 實際 處理는 境遇를 좇아 合理的 處理를 하여야 좋다.

(1) 文字 自體 問題. 綴字法은 現在 使用하는 文字로서는 不便하다고 하여, 옛 文字를 다시 쓰자는 분과 새 文字를 만들 必要가 있다고 하는 분이 있다. 李鐸氏 같은 분이 ㄱ△◇字等을 다시 쓰자는 분이요, 金料奉氏 같은 분이 새 文字를 두자는 분이 다. 그러나, 文字를 새로 늘이는 것은 그리 容易한 것이 아니요, 實際 採用함으로 實際 利益이 얼마나 될지 모를 일이며, 또 꼭 써한 한지도 問題다. 勿論 꼭 늘이거나 만들 必要가 있다면, 外國의 歷史的 事實로 보아 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여기에는 문제를 삼고져 않는다. ㅈ소리 삼아 本音을 은 「ㅈ」은 우리 實用文字에서 淘汰됨이 當然함을 말하고 지난다.

(2) 標準語 問題. 表音文字의 境遇에는 말의 소리를 적는 것이니까, 같은 對象을 여러 가지 말 소리로 나타낼 때에는, 따라서 여러 글자가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고 標準語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김승」이란 말을 實際 말로는 김성, 김승, 김생, 짐승, 짐성, 짐생, 이러케 내니까, 그 중 어느 것이든지 하나를 規定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불을 「견다」는 말을 「현다」하는 사람도 있고 「견다」는 사람이 있다. 이런 境遇에는 견다를 표준말로 하고, 현다는 견다의 옛말이나 사투리로 잡아 두 말을, 다 살릴 수가 있다.

이와 같이, 綴字 規定에는 標準語 問題라 關係가 깊다. 그럴텐 標準語 規定하는 問題도 그리 單純하지 않다. 그러나, 大體로 우리 標準語는 現代의 正格的 京城語를 標準語를 잡는 것이 原則的으로 옳을 것이다. 標準語 規定의 理論은 朝鮮語文學會報 第二號에 發表된 李熙昇氏의 글을 參考함이 좋다.

(3) 聲音 原理와 綴字法. 表音文字는 말의 소리를 옮겨 놓는 글자이나, 결코 말소리를 그대로 옮기는 것은 아니니, 흔히 말의 語調(Intonation), 音色, 強弱, 高低, 長短等은 나타내지 아니한다. 물론 文字를 따라 長短을 或 高低를 나타내는 수도 있다.

이와 같이, 文字는 語音を 나타내거니와, 音의 連發關係上 或 소리가 바뀌기도 하고 或 버릇으로 소리를 바꾸는 수도 있으나, 이 때에는 먼저 말한 音素文字의 本質的 要求인 表意代의 原理에 依하여, 제 소리를 찾아 쓰는 것이 原則이다. 그 實例를 몇개를 들어 보면,

##### (一) 連音 關係,

ㄴ이 ㄴㅇㅇ 우에서 ㅇ으로 날제

죽는 ㄴ의 ㄱ, 국물의 ㄱ 백어의 ㄱ, 들이 ㅇ으로 나는 따위.

ㄷ이 ㄴㅇㅇ들의 우에서 ㄴ으로 바꾸임.

ㅂ이 ㄴㅇㅇ들의 우에서 ㅁ으로 바꾸임.

ㄴ이 ㄴ의 우나 알에서 ㄷ로 바꾸임.

ㅈㅊㅅ은 어머께 서로 잇든지 아레 소리가 되게 바꾸임。  
 ㄹ이 ㄴㄹㅎ 밖에 모든 子音 아레서는 ㄴ으로 바뀌임 따위。

(二) 習慣音

가. 홀소리

ㅏ를 ㅑ ㅓ로 내는 것。

하고를 ㅎ고로 하고, 눈바라를 눈보라 라 하는 따위。

ㅈㅊㅅㅌ들의 複母音을 ㅈㅊㅅ들의 첫소리 아레서는 ㅈㅊㅅㅌ로 내는 따위。

나. 닿소리

ㄱ을 ㄱ으로 냈。

길삼을 질삼으로 내는 따위。

ㄹ이 우랄알타이 語族의 頭音 規則(Law of Initial Sound)에 依하여, ㄹ을 잘 내지 않고, ㄴ 소리 노로나 ㄹ 소리로 냈。

ㄴ을 첫소리로 내지 않는 것。

ㄷ ㄹ이 ㅌ 우에서 날제 입음소리로 내는 것。

ㅎ을 ㅅ으로 내는 따위 들。

習慣이 아주 굳은 것은 習慣音을 좇을 적이 잇으니, 아뢰를 사뢰로, ㅈㅊㅅㅌ들 우에서 ㅈㅊㅅ가울제 ㅈㅊㅅㅌ로 내는 境遇와 같은 것。聲音에 關한 것은 簡略하나마 이만 그치고, 文法에 關한 것을 詳確하게 말하여 보겠다。

(4) 文法과 綴字法。事實 綴字法은 文法에서 規定을 볼 것이 많다。먼저 綴法의 根本問題인 單語化부러가 文語의 品詞 分類에서 規定을 받을 것이 아닌가, 혹 어떤 品詞 分類와 單語化를 別個 問題視하려는 理論이 잇으나, 이 것은 오히려 不自然한 일이다。單語化 問題는 곧 綴字 規定의 基礎요 또 우리 文字의 文字로서의 값을 올리는 根本이(註二)될 것이다。

註二. 우리글은 在來에 죽 련달아 써 왔기 때문에, 보기에 여간 거북하지 아니하였다。그러나, 單語마다 ㅁㅁ 쓰게 되면, 여간 보기에 나아지지 아니할것이다。單語化하여도, 우리 것은 여러 덩이가 한 單語를 이루므로 德文과 같지는 아니 할지 모르나, 만일 單語化한 뒤에, 單語와 單語 사이를 適當히 떼고 줄과 줄 사이에 視覺心理의 試驗에 依하여, 꼭 適當한 점을 찾으면, 德文만치나 보기 좋은 글이 될 수가 있다。또 單語化하여 될 수 잇는 대로 여러 音節이 한 덩이로 보이게 하는 데에는 現在式 活字로는 아니 된다。現在의 活字는 漢字의 본을 든 것이니, 이 것은 우리 글자에 맞지 아니한다。그러니까, 漢字 革命이 必要하다。

現在 單語化하여 쓰는 것을 보면, 自然한 形式이 되어 잇으니, 冠形詞, 感歎詞와 副詞 밖에는 元詞 밑에 도를 달아 쓰는 것이다。곧 名詞 밑이와 形動詞 밑에 도를 달아 쓰는 것이다。그러므로, 冠形詞, 感歎詞, 副詞는 모든 單語를 表意化만 하므로, 그 原則을 삼고, 形動詞는 語幹과 도와 區別하여 語源 表示를함이 우리말의 本性에 맞는다。(語幹은 表意化에 그칠 것이다。)例外 없는 規則이 없다는 格言도 잇거니와, 여기에도 例外가 있다。名詞 밑에 ㅁㅁ와 그 名詞와 區別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잇으니, 하나는 버릇에서, 또 하나는 말 自體의 性質上 그런 것이다。前者의 例는 그것은 을 그건 할적이요 後者는 부름자리(呼稱格)에 擬聲語 밑 도니, 기러기아들 기러기아 하고, 개고리들 개고리아 하는 따위다。또 形動詞와 도 사이도 고치어를 고치로 적는 것이 옳으니, (言文一致의 理想에서), 이 때도 例外의 境遇다。그러고, 形動詞 밑의 모든 文法的 關係를 나타내는

말은 다 語源 表示가 必要하니, 이것은 우리 말의 添加語인 本性에 드러맞는 處理라 아니 할 수가 없다.

(5) 우리글의 特質에서 오는 문제. 綴字法의 難點이 所在는 우리글의 가장 短處인 縱橫綴에 있다. 音素 文字中 德國文字는 羅馬文字의 하나로 橫綴만 하므로 도모지 생기지 않는 문제가 우리 글자가 縱橫綴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있다. 곧 「을개미」를 「을엿이」「을애미」「을개미」「을갸이」로 적게 되는 것이니, 萬一 橫音을하면 「ㄴㄹㄱㅍ」라고 적으니까,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것도 以上에서 말한 綴字原則인 表意化에 依하여, 處理함이 옳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글을 말할제 文字 組織의 모든 點이 科學的인 運用上 縱橫綴임을 인식 한다. 그래서, 橫書 運動을 부르짖는다. 그러나, 現在와 같이 한 單語內의 固定한 部分과 變動하는 部分을(名詞와 動詞 사이 또는 形動詞의 語幹과 詞尾) 區別할 수가 있는 點은 오히려 現在의 綴法에서만 가질 수 있는 便利다. 그러니까, 우리는 音價가 없는 글자라고 하여 浮遊字하는 〇字도 여기에서, 낱을 내는 것이다.

### 五. 끝맺는 말

절말하나마, 以上에서 대략 綴字問題를 말하였으나, 아직 漢字 處理 문제와 語源 表示는 말을 못하였다.

끝으로 이 小論이 全體에 있어, 理論에 闕乏함이 있고, 內容이 성진 것을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 새 받침에 關한 諸 問題의 解決과 實例의 總覽

崔 鉉 培

### 一. 새받침의 重要性

조선의 말과 글이 요사이세 와서 實로 空前의 큰 禍難을 받는 同時에, 또 큰 洗練을 받게 된 것은 지을 수 없는 한 事實이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方向으로 새로운 發展을 보게 되었다. 그 여러가지의 發展의 事實 가운데 새맞음법(新綴字法)이란 것이 한 重大한 變化이라 하겠고, 그 새맞음법(新綴字法) 가운데서도 새받침(新終聲)이 더욱 世人의 눈을 끌게 하는 큰 變化이다. 世人은 이 새받침으로 써 새맞음법의 全體인 것처럼 생각하는 일조차 많다. 새받침 問題가 새맞음법 問題의 全體가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새맞음법의 問題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새받침보다 다른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重大한 問題인 것임만은 事實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이 問題에 對하여, 簡單히 그 理論과 方法을 밝게 말하고, 이어 그 새받침으로 된 말을 體系적으로 列舉하고자 하노라.

## 二. 새 받침을 써야 할 理由

從來의 글씨는 慣習에는 어떠한 닿소리 글자(ㄱ ㅋ ㆁ ㄷ ㅌ ㄴ ㅈ ㅊ ㅍ)는 받침으로 쓰여, 어떠한 닿소리 글자(ㄷ ㅌ ㅊ ㅋ ㆁ ㄱ ㅍ)는 도모지 받침으로 아니 써 왔다. 그렇던 것을 이제 우리들은 모든 닿소리를 다 받침으로 쓰기를 主張하나니, 그 理由는 大略 다음과 같다.

· 첫째 古典的 根據.— 우리 한글은 世宗大王께서 내신 것이요, 그것을 맨처음으로 頒布하신 글월이 이른 訓民正音임을 우리의 다 아는 바이다. 그러한데, 訓民正音의 內容은 大概 세 部分으로 가를 수 있나니, 첫째는 한글을 지으신 趣旨을 말하고, 둘째는 그 세로 지으신 한글의 낱낱의 글자의 소리값(音價)을 說明하고, 셋째는 한글을 實際로 運用하는 方法을 말하였다. 이제 그 셋째의 運用方法論에 依하건대,

終聲은 復用初聲하나니라

의 文句가 있다. 初聲은 한 낱내(音節)의 첫소리를 이룸이요, 終聲은 낱내의 끝소리인데 그 끝소리는 반드시 닿소리(子音)로만 되었으니, 곧 오늘의 받침을 이룸이다. 그런데, 訓民正音에서는 먼저 모든 닿소리(子音)를 說明하기는 무슨 字의 初聲 곧 初聲과 같다 하였다. 그러한즉, 앞에 든 文句의 뜻을 解釋하면 이러하다. 받침에는 初聲에 쓰든 소리를 다시 쓰라. 初聲에 쓰든 소리란 것은 곧 닿소리 一般을 말함이다. 다시 말하면, 한글의 모든 닿소리가 音節의 첫소리 되기에 아무 制限을 두지 아니함과 같이, 받침되기에 아무 制限을 特히 設치지 아니하였다. 모든 닿소리는 實際의 必要에 應하여, 다 받침으로 쓰라 함이, 곧 訓民正音에서 宣明한 한글의 用法이다.

이 모든 初聲을 다시 받침으로 쓰라는 用法은 다만 訓民正音에서 宣明하였을 뿐 아니라, 世宗 世祖 當時의 한글 出版物에 實際로 그 必要한 대로 모든 닿소리를 받침으로 썼음은 오늘에 傳하는 古書籍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證明할 수 있는 事實이다.

둘째 實際的 根據—앞에 말한 바와 같이 訓民正音에서는 모든 닿소리를 아무 制限 없이 받침으로 쓰라 하였다. 그러나, 이는 古典이다. 古典은 그 時代의 言語(잠간 聲音學的 見地만은 그만 두고)에 基礎를 두었을 것이다. 만약 오늘의 朝鮮말이 全然히 그 時代의 그것과는 달라서, 어떠한 닿소리의 받침으로 된 말이 도모지 없다 하면, 文字의 記法은 그 時代의 말에 그 基礎를 두는 것인 以上, 이 옛법은 다만 聲音學的으로 모든 닿소리가 받침소리 될만한 可能性의 있음만 보인 것이 될 따름이요, 實際的 記法에는 아무 關係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의 조선말은 實際로 어떻게 되어 있나?

우리는 이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한글의 받침법의 歷史的 變遷의 事實을 살펴 봄이 좋을 것이다.

世宗께서 訓民正音을 頒布하신 二十八年 丙寅年에서 八十二年 壬寅年 中宗朝 二十二年 丁亥 四月에 折衝將軍 崔世珍이 訓蒙字會를 지으니, 이 冊은 어린아이들에게 漢字를 가르키기에 쓰는 家庭 教科書인데, 漢字 總數 三千三百六十字를 四字씩 類象諧韻하여, 읽기와 깨치기에 便利하도록 지은 것이니, 千字 類合 들과 같은 冊이다. 이와 같이 이 冊은 兒童 教科書이기 때문에, 平易와 「實見」을 주장하여, 大部分이 具體的 事

物의名稱을 보아서, 各字알에 한글로 그 읽는 법(곧 뜻과 음)을 단 것이다. 그리고, 이 한글의 讀法과 用法을 一般家庭의 父老들에게 알리기 爲하여, 그 冊의 첫머리 凡例에서 한글에 關한 說明을 아주 簡單하게 하여 두었나니, 이것이 곧 우리 한글의 歷史에 重大한 劃時期的 轉換을 지은 것이다. 이에 그것을 抄記하면 다음과 같다.

初聲과 終聲에 通用하는 八字。

ㄱ<sup>其</sup> ㄴ<sup>尼</sup> ㄷ<sup>池</sup> ㄹ<sup>梨</sup> ㅁ<sup>眉</sup> ㅂ<sup>非</sup> ㅅ<sup>時</sup> ㅇ<sup>異</sup>  
役 隱 本 乙 音 邑 ㉠ 凝

其尼池梨眉非時異 八音은 初聲에 쓰고,  
役隱㉠乙音邑㉡凝 八音은 終聲에 쓰나니라  
初聲에만 獨用하는 八字。

ㅋ<sup>會</sup> ㆁ<sup>治</sup> ㆆ<sup>皮</sup> ㅈ<sup>之</sup> ㆁ<sup>齒</sup> △而 ○伊 ㄱ屎  
中聲에만 獨用하는 十一字。

ㅏ<sup>阿</sup> ㅑ<sup>也</sup> ㅓ<sup>於</sup> ㅕ<sup>余</sup> ㅗ<sup>吾</sup> ㅛ<sup>要</sup> ㅜ<sup>牛</sup> ㅠ<sup>由</sup> 一<sup>應</sup> 伊<sup>只用</sup> 思<sup>不用</sup>  
初中聲 合用하여 作字한 例。

가가거겨고교구규그기마

初中終 三 聲을 合用하여 作字한 例。

간肝 갈<sup>會</sup> 갈<sup>㉠</sup> 감<sup>會</sup> 갑甲 갓<sup>會</sup> 강江

우리는 이 訓蒙字會의 凡例가 한글의 歷史上 가진 意義를 몇가지 따라 적어보고자 한다.

1. 날날의 한글 글자의 이름을 지었음.—곧 世宗의 訓民正音은 한글을 낳기만 한 어머니이라면, 崔世珍의 訓蒙字會는 한글의 이름을 지은 作名父이다.
2. 글자의 數가 27 字이다.—訓民正音의 28 字에서 ㅎ 字가 없어졌으며, 오늘의 25 字보다 △○이 많음을 알겠다. (卽 ㅇ과 ○의 區別이 잊었은 즉—그 때에서도 이미 ㅇ과 ○을 混同하는 일이 많음을 그 冊에서도 말하였지마는—오늘보다는 字形으로는 ○ 하나가 더 잊었다 할만하다.)
3. 글자의 配列 順序가 訓民正音과 많이 달라졌으며, 오늘의 그것과 近似하게 되었다. 訓民正音의 字母의 配列 順序는 다음과 같다.

닿소리

ㄱ ㅋ ㅇ ㆁ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ㅼ ㅽ ㅾ ㅿ ㆀ ㆁ ㆂ ㆃ ㆄ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홀소리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ㅼ ㅽ ㅾ ㅿ ㆀ ㆁ ㆂ ㆃ ㆄ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이것이 訓蒙字會에 와서는 다음과 같이 되었다.

닿소리

ㄱ ㅋ ㅇ ㆁ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ㅼ ㅽ ㅾ ㅿ ㆀ ㆁ ㆂ ㆃ ㆄ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ㄱ ㅋ ㅇ ㆁ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ㅼ ㅽ ㅾ ㅿ ㆀ ㆁ ㆂ ㆃ ㆄ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홀소리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ㅼ ㅽ ㅾ ㅿ ㆀ ㆁ ㆂ ㆃ ㆄ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이로보면, 한글 글자의 配列 順序가 訓蒙字會에서 變更된 것이 그 後世의 襲用한 바가 되었음을 알겠다. (訓民正音과 訓蒙字會의 한글 配列 順序의 理論的 根據는 여기에 省略) 다만 스스어 初聲獨用八字의 最初 세 간 것이 또 그 뒤의 變遷이다. 그리고, 오늘에 民間에서 行하는 이는 「본문」 혹은 「반절」의 十四行, 一行 十三字 形式의 基礎가 訓蒙字會에서 決定된 것임을 알겠다. 그중에 다만 「과귀줄」이란 것만은 그 뒤의 보탬인 듯 하다.

4. 닿소리 가운데 初聲과 終聲에 通用하는 八字와 初聲에만 獨用하는 八字와를 區別하여, ㄱ ㄴ ㄷ ㄹ ㅂ ㅅ ㅈ ㅊ 八字는 첫소리와 받침으로 다 쓰고, ㅋ ㆁ ㆏ ㆑ ㆒ ㆓ ㆔ ㆕ ㆖ ㆗ ㆘ ㆙ 八字는 첫소리에만 쓰고 받침으로는 못 쓴다 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그 뒤세상의 襲用하는 規範이 되었다.

勿論 자세히 살펴보면, 訓蒙字會의 받침법이 그 뒤에 또 變遷이 없지 아니하니, ㄷ이 아주 받침으로 쓰이지 아니함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大體에서는 訓蒙字會의 받침법이 오늘 民間에서 常用하는 基本法이 되었다 할 것이라 하노라.

以上에 말한 바와 같이 한글의 받침법은 訓蒙字會를 轉點을 삼아서 큰 變動이 생겨왔음은 事實이다. 그러나, 글자의 적는 법은 이렇게 歷史的으로 變遷하여 왔것마는, 實際에 쓰는 말 그 自體는 變함이 없이 如前히 訓民正音의 原法 그대로 되어 있다. 그 實例를 하나 들전대,

鎌 晝 顏 個 穀을 글씨로 다 「낫」으로 적어 왔지마는, 實際로 쓰는 口頭의 말로서는 各各 區別이 있게 發音하나니, 卽

鎌은 낫이라 하며

晝는 낮이라 하며

顏은 낯이라 하며

個는 날이라 하며

穀은 낱이라 함

과 같은 따위이다. 大體 오늘의 글자의 맞춤법(綴字法)은 그 基礎를 오늘의 實際의 말에다가 두어야 할 것이니, 오늘의 말에 모든 닿소리를 받침으로 쓴 것이 있으면, 그 말을 적는 글의 맞춤법에도 그것을 쓰어야 할 것은 많은 의논을 要치 아니하는 바이다.

셋째. 科學的 根據——오늘의 人類의 文化는 다 科學의 對象이 되는 것인데, 特히 言語와 文字는 人類文化의 基礎인즉, 그것의 모든 問題는 妥當히 科學의 보이는 原理에 依하여 解決되어야 할 것이다. 古典보다도, 歷史보다도, 慣習보다도, 무엇보다도, 科學的 原理가 우리의 言語 文字의 實際的 問題의 最上의 指導 原理가 되어야 한다. 이제 말과 글에 關한 科學은 大畧 세가지로 가를 수 있다. 하나는 聲音學이니, 말의 소리가 그 對象이 되는 것이요, 또 하나는 語法學이니, 말의 법이 그 對象이 되는 것이요, 맨 끝에 것은 文字學이니, 글자가 그 對象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후에 말한 받침問題를 論함에 必要한 것은 聲音學과 語法學인 故로, 여기에는 이 두가지에 對하여서만 말하고자 한다.

(1) 聲音學的으로 보아 모든 닿소리를 다 받침으로 쓸 수가 있다. 特히 어떠한 소리는 받침으로 쓸 수 없다는 理致는 聲音學의 原理에 없는 것이다. 事實上 모든 外國말

과 조선말의 記法에 依하여 보더라도, 받침으로 쓸 수 없는 소리를 特히 制限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소리가 끝소리로 나기만 하면 받침으로 쓸 따름이다.

朴勝彬님은 ㅎ은 받침으로 쓸 수 없다고 主張하여 가로되, ㅎ은 喉音인 故로 받침을 할 수 없다고. 그는 받침의 뜻을 꽃받침(花萼)이나 잔받침(盞臺)의 받침으로 解釋하는 모양이다. 그리하여 꽃받침이나 잔받침의 바탕이 단단하여서, 그 위에 얹히는 물건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 처럼, 소리의 받침도 단단한 性質의 것이라야 能히 그 위의 소리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받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ㅎ은 그 소리가 喉音인 때문에, 그 音質이 단단하지 아니한 때문에, 다른 소리를 받칠 수 없다고 본다. 이 받침의 解釋이 넘어나 素朴的이요, ㅎ은 音質이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침으로 쓸 수 없다는 主張은 넘어나 非科學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의 보는 바에 依하면, 받침의 語義는 字形上에서 생긴 말이나, 그 글자가 다른 소리의 아래에 적히는 것이 마치 그 위의 글자를 받치는 것과 같다 하여, 받침(支音)이라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한글의 音節을 적는 字形이 그 發音의 理致를 象徵한 것은 아니다. 假令「값」이라 하면, ㄱ은 左便에서 나고, ㅍ는 右便에서 나고, ㅁ은 特히 아래에서 나는 것은 아니다. 그저 ㄱ이 먼저 나고, ㅍ가 그 다음에 나고, ㅁ이 나중 나는 것을 表示할 따름인데, 다만 한글의 記法이 漢字처럼 네모(四角形)안에 넣기 爲하여, 그 나중 나는 소리를 먼저 나는 두 소리아래에 적을 따름이다. 그리한즉, 받침이란 별것이 아니라, 한 音節에서 맨 나중이 나는 닿소리——곧 訓民正音의 終聲을 가리키는 것에 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런데, ㅎ이 喉音인 때문에 단단하지 못하여 初聲으로 나거나 終聲으로 나거나 特히 曠發하기 좋은 다른 닿소리와 合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自體만으로서는 흔히 微弱하여 잘 들어 나지 아니하는 일이 있음은 事實이다. (이것은 佛, 英, 獨, 日 諸國語에서 ㅈ가 흔히 죽는 것을 보아도 넉넉히 짐작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서 ㅎ은 初聲으로나 終聲으로 못 쓴다는 것은,譬컨대, 죽을 먹으면 배가 잘 꺼진다 해서, 사람이 배가 고파서 食物을 取할 必要가 있드래도, 죽은 못 먹는다 는 것과 같다. 죽이 榮養價로 보아서는 밥보다 못한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어떤 病者에게는 極히 必要한 것이다. 그 必要를 따라서 죽도 먹어야 한다. 이와 같이, ㅎ소리가 轉하기는 하지마는, 말 소리가운데 相當한 구실을 하는 것은 世界各國語에서 우리가 實見하는 바이요, 또 그것이 다른 어떠한 소리하고 合할 것 같으면 그 소리가 매우 똑똑하게 들어나는 것도 우리의 다 아는 바이다. 이를테면, 「천하 좋으니」의 ㅎ은 희미하여 잘 들어나지 아니하지마는, 「각하, 좋다」에서는 ㅎ이 매우 똑똑히 들어나와 같다.——要컨대, ㅎ은 받침으로 못 쓴다는 說은 聲音學的으로 보아, 何等의 根據가 없는 것이다.

그뿐아니라, 訓民正音의 記法에 依하더라도, 喉音을 받침으로 쓴 例가 많으니, 「之징, 異잉, 흥배, 흥노미」의 따위이다. ㅎ을 받침한 글자는 얼른 그 例를 찾지 못하였으나, 이는 決코 喉音은 받침으로 못 쓴다는 理論에서 안 쓴 것이 아니라, 다만 이름씨(名詞)와 도씨(助辭)를 가르지 아니하게, 씨줄기(語幹)와 씨끝(語尾)을 가르지 아니하는 訓民正音의 獨特한 記法으로 因하여 그런 것인즉, 만약 이름씨와 도씨를 가르며, 씨줄기와 씨끝을 가르는 오늘날의 법으로 본다면, 當然히 ㅎ의 받침도 訓民正音 및 其他 同時



代의 古籍에서 얼마든지 찾아 낼 수가 있는 것이다。(이 점은 다시 다음 項에서 論하겠음)。

(2). 語法學的으로 모든 받소리는 아무 制限없이 받침으로 써야 한다。

우리말의 법을 세워서 글을 적으려면 반드시 單語와 單語, 그중에도 이름씨(名辭)와 토씨(助辭)와를 서로 갈라야 하며, 풀이씨(用言)의 줄기(語幹)와 씨끝(語尾)과를 갈라야 한다。訓民正音의 記法은 이와 反對이었다。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科學的 態度는 古典에만 絕對의 準則을 들 수 없는 것이다。그러므로, 그것을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한다。——곧

사르미라 ——→ 사람이라

하나히라 ——→ 하날이라

들히라 ——→ 들이라

안과(內와) ——→ 안과

마들씨라 ——→ 갈을씨라

쉬물씨라 ——→ 형을씨라

마르니라 ——→ 갈으니라

이렇게 써야 할 것이다。(말은 古語 그대로 두고 한다 면),

朴勝彬님은 이 語法的 要求에 依하여,亦是 이름씨와 풀이씨(用言)아래 스ㄱㄷㄹ의 받침을 認定하면서, 다만 ㅎ만의 받침을 認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聲音上의 한 偏見——喉音不用終聲——에 拘碍되어, 語法에 徹底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밖에 없다。(그의 語法的 見解가 全然히 우리와 같은 것은 아니며, 또 ㅎ을 받침으로 아니 쓰기때문에 所謂「激音」이란 것에 關하여 異常한 立論을 함이 있으나, 여기에는 그것을 ——이 論評할 餘裕가 없기 때문에, 그 細評은 다른 機會로 밀워 둔다)。

그의 語法論에 依하건대,

가르니, 가라, 갈다, 갈고, 갈소,

의 ㄷ받침은 認하면서,

조르니, 조화, 종다, 종고, 종소,

의 ㅎ받침은 認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어찌 整然한 語法的 解說이 될 수가 있으랴。그는 이 不整音의 破綻을彌縫하기 爲하여,

「종다」를 「조ㄱ다」로

「종고」를 「조ㄱ고」로

적어서 다만 「다, 고」의 激音化를 말함으로써 滿足하는 모양이다。그러나, 大體 온 그 激音化의 原因은 무엇인가? 이것을 그저 自家獨特한 激音調의 符號「ㄱ」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방패를 삼고 避難處를 삼는 모양이니, 이는 決코 問題의 核心을 理論的으로 闡明한 것이 아니라, 다만 덕없는 一種의 神秘化이며 一種의 護身符에 지나지 않는 것일 따름이다。우리 한글의 스ㄱㄷㄹ의 音이 스ㄱㄷㄹ의 音에 各各 ㅎ이 더 하여서, 된소리 곧 有氣音(古人의 이른 次清音)인 것은 世界 聲音學者의 共認하는 바이다。朴님은 이것을 直說하지 아니하고 뜻밖에 아주 單 方面에서 (그 實은 單 方面이 아니다) 激音調의 存在를 말하여서, 「종다」의 「다」가 「ㄷ」로 나는 것은 그 우의 ㅎ 받침 때문

에 그러 된 것이 아니라, 「ㅎ」는 없어지고, 다만 激音調 때문에 그러 된 것이라 하니, 이는譬컨대, 매(鷹)를 認定하지 아니하기 爲하여 다만 「공잡는 새」란 말을 써서, 塗糊 하려 할과 같은 論法이라 할 수밖에 없도다。 만약 그가 所謂「激音調」의 聲音外의 獨立性을 말하여, 그것에 다른 소리(홀소리와 닿소리)에 影響을 주어서, 그것들로 하여금 그 音調를 變하여 激音이 되게 한다고 主張한다 하면, 이는 實로 破天荒의 世界, 無類의 聲音學說이라 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大體 音調(Ton, intonation)란 것은 音의 高低를 이룸이니, 이를 物理學的으로 말하면, vocal 帶(聲帶)의 振動하는 數의 多少를 이룸이다。 그 振動 數가 많으면, 소리의 가락(音調)이 높고, 그것이 적으면, 소리의 가락이 낮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音調는 音의 밖에 獨立하여서, 音의 變化를 左右하는 一 存在가 아니라, 그것은 다만 音의 長短 強弱과 함께 音의 一種의 變化性을 表現하는 概念에 不過한 것이다。 그러므로, 音調를 내세워서 「激音化, 硬音化」를 說明하라 함은 그 高調의 解釋이 科學으로의 一般 聲音學에는 도모지 없는 무엇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百步를 讓하여, 그 이른 「激音化」란 것은 設使 完全히 說明되었다 치드라도 「종소」가 「죃소」 비슷하게 나는 것은 어떻게 說明할 테인지? 곧 「종소」는 「조그소」도 아니요, 또 「조소」도 아닌즉, 이것은 무엇으로 어떻게 說明할 것인가? 그는 「조쏘」로 된다는 事實만을 말하고, 「激音化」와 「硬音化」는 兄弟같이 類似한 것이라고 만 하니, 이는 도모지 非理論的 神秘的 自家 獨特의 論法일 따름이요, 決코 客觀的 妥當性을 要求할 만한 科學的 說明 方式은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 事實만이 眞理라 할진대, 그 理論의 說明은 다른 方面에서 求해 져야 될 것이 아닌가? —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 말하건대, 「종소」가 「죃소」처럼 소리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종」의 ㅎ이 스으로 變換 때문이다。 ㅎ이 스으로 變하는 것은 우리말에서의 아주 普遍的 事實이니, 그 예는 넘어 많아서 — 이 들 수 없는 것이어나와, 이제 한 두 낱을 들면,

호도——소도

혀——저

허——심

따위와 같으니, 이는 대개 ㅎ과 스이 다 같이 摩擦音(갈이소리)이기 때문에 서로 넘나들 만한 性質이 었음으로써 이니라。

다시 한가지의 보기말을 들전대,

그러하다, 그러하고, 그러하오

의 ㅏ가 줄어져저

그렇다, 그렇고, 그렇소

로 되는 따위를 認定치 아니하려는 勇氣가 잇을 수 잇을까? (그는 勇氣있게 이를 否定하기 爲하여, 「그러」의 알에 ㅎ의 存在를 否認하고서 天外에서 借來한 것처럼 激音調의 存在를 말한다。) 우리의 愚見으로서는 이것을 認치 아니하고는 正當한 語法的 說明이 설 수 없다 한다。

以上에 말한 바에 依하여, 우리는 歷史的으로 古典的 根據를 상고하고, 經驗的으로 現存의 實際 言語를 살피고, 나아가야 理論的으로 科學的 根據를 개어 보매, 모든 닿소리

는 아무 制限없이 다만 그 必要에 應하여 다 받침으로 쓸 수 있으며, 또 써야 한다는 結論에 到達하였다. 자! 그러면, 그 받침의 鑑識法은 어떠한가? 이것이 달아 오는 問題이다.

### 三. (새) 받침을 알아보는 법

어떠한 받침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무엇으로써 決定한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 무슨 받침으로 되었는가를 알아 보는 方法——새받침 鑑識法이 어떠한가? 이것은 누구든지 알고 싶은 물음이다. 나는 이제 새받침 알아보는 법에 關한 나의 생각을 베풀고저 한다.

첫째, 입자씨(體言)의 받침을 알아보는 方法은 이러하다. 곧 입자씨는 끝바꿈(活用)이 없는 말인즉, 그 받침을 알아봄에는 適當한 도를 그것에 붙여 보면 되나니, 이는 입자씨의 받침이 입자씨만으로서는 잘 들어나지 아니하다가, 그 앞에 適當한 도가 오면, 똑똑하게 잘 들어나는 性質을 가진 때문이다. 그 方法은 이러하다.

(1) 먼저 「은」을 붙여 보면, 그 우의 입자씨의 받침된 당소리가 連發하는 關係로 해서, 「은」의 첫소리(初聲)가 되어서 들어남. 이를테면,

복은 ——→ 보근

눈은 ——→ 누는

살은 ——→ 사른

사람은 ——→ 사라문

집은 ——→ 지븐

옷은 ——→ 오븐

땅은 ——→ 따은 (以上은 묵은 받침이다. 새받침도 이와 같이 되나니 다음과 같다.)

굴(坑)은 ——→ 구든

낫(鎌)은 ——→ 나븐

낫(晝)은 ——→ 나즌

낫(顏)은 ——→ 나븐

낫(個)은 ——→ 나븐

웃녯(北方)은 ——→ 웃녯큰

잎(葉)은 ——→ 이븐

들과 같은 따위이다. (但, ㅎ받침의 입자씨는 옛말에 많았으나, 이제말에는 없는 모양이다.)

(2) 다시 「에, 이」를 붙여 봄이 補助方法이 된다 이를테면,

숲(林)에 ——→ 수페

숲(林)이 ——→ 수피

낫(晝)에 ——→ 나제

낫(晝)이 ——→ 나지

에서와 같다. 그러나, 이 方法만으로는 絶對的 믿음을 둘 수 없나니, 위 그러냐 하면,

츠받침이 「에」우에서 흔히 「ㄷ」으로 나며, (例, 꽃에—→꼬레) 「ㄷ, ㄷ」의 받침이 「이」우에서 흔히 「츠, 스」로 나는 일(例, 밭(田)이—→바치, 굴(坑)이—→구지)이 南部朝鮮의 發音習慣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풀이씨(用言)는 입자씨(體言)와 달라서, 끝라꿈(活用)을 하는 말인즉, 그 줄기(語幹)의 받침을 알아봄에는 그 받침으로 끝난 줄기알에다가 홀소리로 비릇은 適當한 씨끝(語尾)을 붙여 보면 되나니, 그 까닭은 앞의 입자씨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이다. 그 方法의 節次는 이러하다. 곧

(1). 먼저 씨끝 「다」를 붙여 보면, 그 풀이씨의 으뜸꼴(基本形)이 들어난다. 이를테면,

(ㄱ) 가르다(分), 다르다(異)

슬프다(悲), 살피다(察)

(ㄴ) 좋다(好), 놓다(放)

보랏다(純白), 그렇다(然)

와 같다. 그러므로, 이 으뜸꼴(基本形)을 變更하여서, 『갈오다, 달오다, 슬오다, 샅오다, 조라, 노라, 보야라, 그러라』로 쓴다 면 이는 아주 그름(誤)이다. 왜 그러냐 하면, 元來 우리말의 풀이씨의 으뜸꼴의 씨끝(語尾)은 「—다」 하나 뿐이요, 그 우에 받침이 있다고 「—오다」가 되는 일도 없으며, 또 「—라」 되는 일도 絶對로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이 첫째법 하나만으로는 完全히 알아볼 수 없는 것이 있나니, 이를테면,

깊다(深) 낮다(低) 굳다(固) 없다(無) 닦다(修) 굶다(饑)

에서 그 받침소리가 무엇이라고 한가지로만 꼭 指示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따위이다. 곧 표파 ㅂ, ㅅㅈㅅㅈㅈㅈ 서로, ㄱ과 ㄱ, ㄴ과 ㄴ, ㄷ과 ㄷ이 各各 서로 區別되지 아니한다. 여기에 다시 다음의 2와 3의 方法이 必要하게 되는 것이다.

(2). 다음에 씨끝 「아」(ㅏㅏㅏㅏㅏㅏ)나 「어」(ㅑㅑㅑㅑㅑㅑ)를 붙여 보면, 그 줄기에 받침소리가 잘 들어난다. 곧

깊어 —————> 기피

낮아 —————> 나자

굳어 —————> 구덕

없어 —————> 업서

닦아 —————> 다까

굶어 —————> 굴머

와 같다.

그런데, 첫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性質하게 이 둘째 방법만으로써 받침을 決定하려다가는 그름(誤)에 빠지는 일이 흔히 있나니, 곧

앞아(痛), 슬어(悲)

토써 그 줄기의 받침이 「앞, 슬」으로 制定함과 같은 것은 그름(誤)이다.

(3): 다시 한번 더 씨끝 「으니」를 붙여보면, 그 받침의 制定을 더 正確하게 하는 效果를 얻어, 制定에 對한 信念을 가질 수 있다. 곧

깊으니 ————— → 기쁘니  
 낮으니 ————— → 나즈니  
 굳으니 ————— → 구드니  
 없으니 ————— → 업스니  
 뉘으니 ————— → 다그니  
 굵으니 ————— → 굴므니

에서와 같다。

여기에도 이것만 가지고 鑑別하다가는 잘못에 떨어지는 일이 없지 아니하니,  
 앞으니(痛), 슴으니(悲)

로 困하여, 그 줄기의 받침이 「고, ㄹ」으로 되었다고 決定함과 같은 것이다。(곧 「앞  
 다, 슴다」란 말은 없다。)

우에 든 세가지 方法은 서로 도와서 함께 쓸 것이요, 決코 그 하나만으로 滿足할 것  
 은 아니다。

以上은 입자씨 풀이씨의 「받침알아보는법」을 約述하였거니와, 이밖에

(가). 꾸밈씨(修飾詞)의 그것은 대개 이름씨의 법에 依한 것이요,

(나). 풀이씨에서 一般的 活用法則에 依하여 다른 씨로 轉成된 것은 그 근본되는 풀  
 이씨의 받침을 따를 것이요, (例 밀다—밀음, 좋다—좋은의 따위),

(다). ㄷ벗어난 음측씨(ㄷ變格動詞)의 으뜸꼴(걸다, 步 듣다聞)의 ㄷ이 들재 셋재  
 법에서는 다만 ㄹ로 바꾸힐 따름이요, ㄷ으로 完조히 들어나는 일이 없지마는, 그 으  
 듨꼴의 말은소리(促音)를 ㄷ으로 잡는 까닭은 ㄷ과 ㄹ이 한가지 ㅅㅅ음이 서로 轉變할  
 可能이 있다고 생각하는 때문이다。

(군). 이밖에 特殊의 境遇의 받침을 決定하는 理論을 여기에서 가늘게 날날이 곡진  
 하게 다 말할 수 없기로, 그것은 各 個人의 研究에 맡기노라。

#### 四. 새받침 말의 보기모이(實例總集)

우에 말한 根據에 依하고 또 그 알아보는 方法에 依하여 制定된 새받침으로 된 말이  
 모두 얼마나 되는가? 이것은 누구 없이 다 알고 싶어 하는 바이다. 그 새받침의 보  
 기말을 모두 한 자리에 모아 보이겠노라. 그러나, 이 다음에 드는 보기들(一覽表)은  
 決코 나 一個人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나의 스승과 벗들(其中에도 特히 昨年 東  
 亞日報 主催 夏期講習用 教材中의 새받침표를 提供한 申明均님)과 여러 學生들의 努  
 力의 結果를 내가 모두 모아서, 나의 말본에 依하여 그 풀이씨에는 으뜸꼴(基本形)을  
 갖추고, 또 나 個人의 私見에 依하여, 取舍를 한 點만이 나의 힘이라 할는지? 그러므  
 로, 이 表에 未備한 點과 잘못된 點은 다 나의 허물이요, 그중에 잘 된 功績이 잇다  
 면, 그것은 다 스승과 벗들과 學生들의 덕이다。

입대까지 쓰지 아니하던 받침을 새로써야 할 것은 ㄷ스ㄷ크ㄹ교ㅎㄲㄹㅅㅅㄹㄹㄹㄹㄹ  
 미ㅅ 모다 열 여들인데 그 새받침으로 된 보기말은 다음과 같다。

ㄷㅅㅅ 받침

입자씨(體言) (이름씨 名詞) (略符 이,)

만昆 날穀 날알穀粒 날가리露積 믿음信 받침支音 갓난이初生兒 곧坑 간옷裘衣 할옷綿衣  
홀옷單衣 (?) 을옷上衣 미단이(映窓) 바람받이風打處 돈보기老鏡

풀이씨(用言) (움죽씨—動詞) (略符 움.)

걸다敗 달다 돈다昇 뜯다卷, 裂, 開封 던다踏 받다愛 믿다信 묻다埋, 附着 얻다得 뻗  
다伸 쏘다擲注 묻다集 받들다奉 바쁘다(皮肉-빈정거리다) 뜯다彈 받다角 받다傘 못하  
다不能爲

(벗어난 움죽씨—變格動詞) (略符 벗. 움.)

묻다問 붙다殖 듣다聞 걷다汲 걷다步 달다走 깨닫다覺 일컬다稱

(어떻씨—形容詞) (略符 어.)

곧다直 굳다固. 齊齒 든다突出, 高 벌다外曲, 못하다劣

(구밧씨—修飾言)

몰초 갈<sub>크</sub>방 곧<sub>即</sub> 몰<sub>當</sub> 此外에 意味없는 ㄷ—술들, 곧하여,

스받침

임자씨(體言)

(이)— 낮晝 젓乳 목젓懸雜垂 꽃이串 꽃챙이 늦베晚稻 맞돈<sub>即</sub>錢 달맞이迎月

풀이씨(用言)

(움)— 꽃다插, 拱 꾸짖다叱 맞다迎 맞다被打 맞다適, 中 (멧다止) (맞다終) 맺다結  
버릇다撥散 부르짖다叱 빚다釀造, 잇다黏 잣다潤 젓다沾 짓다吠 찢다裂 찢다尋 쫓다  
(머리틀) 비릇다(아이를 비를다. 아이를 돌다, 產氣가 動하다) (갓다持) 맞후다中 맞후다<sub>注文</sub>  
맞후다(各部分을 組合하다. 綴字를 하다. 被打하게 하다) 늦후다緩 낮후다低 갓후다備 굷히다  
傷 굷기다死 늦후다晚延 부딪다衝

(어)— 갓다具 굷다惡, 不吉 알갓다 짓갓다 낮다低 늦다晚 맞다適合 잣다類 알맞다  
適合

구밧씨 修飾言)

(어떤씨) (略符 언)— 온갓各種

스받침

임자씨

(이).— 꽃花 갓皮膚 낮顏 닳鐵 돛棹 몇幾 빛光 옷漆 팻포 솥炭 불꽃火焰 덧<sub>畝</sub>(「덧」이  
「덧」으로 標準을 삼음이 좋겠다.)

풀이씨

(움).— 좃다從 쫓다逐 좃다驅逐散之 씻다洗

구밧씨

및及

크받침

임자씨

(이).— 부엌<sub>廚</sub> 녘<sub>方</sub> 새벽<sub>녘</sub>(晨) 울<sub>녘</sub>北部地方 아랫<sub>녘</sub>南部地方 (새벽<sub>晨</sub>)

근받침

임자씨

(이).— 걸<sub>表</sub> 걸<sub>傍</sub> 끝<sub>末</sub> 날<sub>個</sub> 돌<sub>豚</sub> 머리<sub>말</sub>枕邊 물<sub>陸</sub> 밀<sub>庇</sub> 말<sub>田</sub> 벌<sub>陽</sub> 살<sub>股</sub>間 솔<sub>鼎</sub> 물<sub>장</sub>附

櫛 바깥外面, 戸外 홀單 술量 밑동底部

플이씨

(음).—말다任 말기다任 물다付 불이다付 불불다燃 불불이다點火 배알다吐 부틀다腫  
홀다散 길다遺 길이다遺 말다喚 물잡다追及, 挽留 말다篩, 濾過  
(어).—갈다如 말다迫 열다, 알다淺 질다濃 말브다忙(?)

꾸밈씨

한끝極度로

고받침

임자씨

(임).—늪沼 무름膝 쉼薪 숲林 앞前 옆側 잎葉 쥘藥 헌걸布片 눈썸眉 앙값음復讐 쉼,  
옷썸衣襟 덮개蓋 (하름牛馬의 一歲 이듬牛馬의 二歲 사름四歲 나름四歲 다슴五歲 여슴六歲  
이름七歲)

플이씨

(음).—값다報 덮다蓋 엮다覆 짚다杖, 屈指計數  
(어).—깊다深 높다高 싶다欲 싶다推測되다 드높다高

ㅎ받침

임자씨

(임).—낱소리子音

플이씨

(음).—낳다産 넣다入 놓다放射, 刺繡, 運籌 닿다接 닿다辦 땡다搗, 春作紛 쌓다積 찢  
다春搗  
(어).—가랴다, 까랴다黑, 차 거랴다, 개랴다黑 시키랴다黑 높다랴다高 노랴다黃  
말랴다靑 멀랴다靑 누랴다黃 발랴다, 벌랴다紅 빨랴다, 빨랴다眞紅 보랴다 보랴다, 부랴  
다純白 무랴다, 파랴다 피랴다, 포랴다, 푸랴다靑 하랴다, 히랴다白 하랴다, 허랴  
다極白 좋다好 깊다랴다深 넓다랴다廣 좁다랴다狹 곱다랴다妍 기다랴다長 둥그랴다圓  
굵다랴다厚大 얇다랴다薄 시피랴다, 새피랴다甚靑 새가랴다, 시끼랴다甚黑 새빨랴다,  
시빨랴다眞紅 새하랴다, 시허랴다純白  
(略된 어) 그렇다然 이랴다如此 저랴다如彼

ㄱ받침

임자씨

(이).—밖外 낚시釣針

플이씨

(음).—깎다削滅 꺾다折 꺾다經 낚다釣 닦다拭 磨 닦다熬 묶다束 엮다束縛, 볶다炒  
섞다混 엮다編 뒤다垢 섞바꾸다混同  
(어).—

ㄱ받침

임자씨

(이).—넋魂 몫配分 샅賃金 션 筭(?) (섯이 삭았다) 첫밭(단박) (싹芽 맺脉) 넋두리死靈語,

ㄴ받침

풀이씨

(음). — 었다置于上 앉다坐 끼었다潑水

ㄴ받침

풀이씨

(음). — 꿩다評 끊다斷 앓다不爲 (뭉다壞)

(어). — 께찮다無關 귀찮다厭 많다多 앓다不然 언짢다不好 접찮다長 흉다豊多 약찮다  
溫順, 着實, 適好 접찮다大人然 개음다爽快 편찮다病

ㄹ받침

임자씨 (임). — 궤難怪, 型(?) (궤菴)

ㄷ받침

풀이씨 (음). — 할다祗 풀다搯

ㄷ받침

풀이씨 (음). — 읊다詠

ㄷ받침

임자씨

(임). — 배앓이腹痛 가슴앓이胃痛

풀이씨

(음) — 곱다飢 곱다跪 곱다沸 닳다耗 뚫다穿 승다磨 앓다痛 잃다失 곱다見欺, 被害, 腐  
곱리다陰害, 欺 (꺾다隨, 注)

(어). — 싫다厭 읊다可 혐다廉 곱다不滿器, 虧 (꺾다誤)

구밌씨 — 싫것

미받침

임자씨 (이). — 꺾다穴 남樹 (꺾그다漬 심그다植)

ㅂ받침

임자씨 (이). — 값價

풀이씨

(음). —  
(어). — 가없다憐 송없다醜 없다無 시름없다愁 실없다妄 부지없다徒然 심없다無知覺  
철없다幼穉 無知覺 맥없다無氣力 력없다分數없다, 無故 한없다無限 그지없다無窮 끝없다無限  
던없다無常 값없다無價, 太貴 상없다(常스럽다. 無教養) 멋없다(송겁다) 짝없다無比 하염없  
다無聊 께없다(無益, 께스럽다) 짬없다無節度, 料量없다

ㅅ받침 ?

(附言) (1) 括孤안에 넣어 놓은 例는 標準語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2).  
標準語 問題는 文法과 綴字法 問題하고 關聯은 없지 아니하지마는, 그러나, 한  
獨立한 別個의 問題이다. 그런데, 標準語 問題는 한 사람이 能히 決定할 수 없는 것이  
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의 卑見으로써 選擇하여 處理한 것이 잘못된 것이 없지 아  
니하리라고 생각한다. (1932, 6, 7)



# 變格活用の例

이 윤 재

마음 같아서 말이란 모두가 일정한 법칙에 딱 들어맞아서, 천편일률 文字 그대로의 편의를 얻었으면 작히나 좋으련만, 그러치 못함이 큰 유감이다. 그러나, 원래 말이란 누구나 다 아다싶이 어떤 理論的 規律 밑에서 요리조리 맞춰 가며 意識的으로 만들어 놓은 물건이 아니다. 따라서, 文法이란 것은 어느 나라의 例를 보드라도, 自然에서 생기어서, 自然에서 발달된 散漫한 말들 중에서, 어떤 공통되는 규칙을 발견하여 놓고, 거기에다 이리저리 갈라 붙여서, 한 법칙을 세워 놓은 것에 지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數多단 말 가운데 흔히 잇는 語法의 不規則을 과도히 근심한다든가, 또는 이 不規則 語法을 없이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어떤 법에 들여대어서 實際 語法과 音理에 拘束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애초부터가 杞憂며 誤謬일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 先輩들 中에서도, 實際 音理에 떠나서, 「이어며」(續)를 「잇으며」로, 「더우니」(熱)를 「덜으니」로와 같이 쓴 일이 잇었다. 그것이 무론 全羅道나 慶尙道에서 그러케 發音한다 치드라도, 一部 地方에서만 잇는 것으로, 全 朝鮮的으로 통행하기 어려우려니, 어떤 말이거나 大多數를 좇아 표준잡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듣다」(聞)란 말에 대하여서도, 平安道에서는 「듣으니」 「듣어서」 「듣고」와 같이 發音하고, 咸鏡道에서는 「듣고」 「듣는다」 「듣어서」로 發音한다. 이것도 역시 우엿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가지를 표준잡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너무 單調로운 事實에 흔히 倦怠를 느끼기 쉬운 것이다. 文法에 있어서도, 가다가 더러 不規則이 잇는 것을 되도록 趣味로 對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우리들의 말이 본시 自然語인 그 本質에 따라서……. 무론 그러라고 일부러 不規則을 만들어 놓자거나, 또는 不規則 問題를 解決치 말자는 말은 아니다. 될수만 잇으면, 口音에 어그러져, 말의 拘束을 주지 않는 限에서, 이 不規則을 없이하기에 努力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러치 못한 바에는, 차라리 그 不規則을 好意로 對해 주며, 그것과 정들임이 消極的이나마 도리어 良策이란 말이다. 하물며, 우리 말의 不規則은 다른 나라의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그리 많지 아니하며, 또 몹시 복잡하지 아니하여, 不規則으로서도 一種 不規則의 規則이 잇어서, 깨닫기에 그리 힘들지 않음에랴.

더구나 우리 말의 不規則은 대개가 말의 生長 發達 해 오는 동안에, 口音의 變遷으로 인하여 된 것이니, 만일 이 歷史的 原因을 거슬러 올라가, 옛 말의 音을 좇아 쓴다면, 「作」은 「짚」으로, 「續」은 「잇」으로, 「熱」은 「덜」으로 써야 할지니, 이와 같이 하면, 現代 語音과는 전연 딴 語音이 되어서, 흡사히 外國語 배우는 셈이 될지며, 言語 發達의 自然性을 拘束하는 意味로 보아, 言語의 生命을 꺾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그 뿐 아니라, 가령 「灸」를 「굽어서」와 같이 써 놓고 「구워서」로 發音한다면, 「曲」을 「굽어서」로 써 놓고 이것도 「구워서」로 發音할 것인가. 이는 音理上 대단한 모순이다. 또 「悲」를 「싫다」의 語根에서 온 것이라 하여 「싫브」로, 「痛」을 「앓다」의 語根에서 온 것이

라 하여 「얹브」로, 「飢」를, 「끓다」의 語根에서 온 것이라 하여 「끓브」로 쓴다면, 이 역시 音理上 모순이다. 곧 「끓브」를 「슬프」로 發音할 때에, 「얹브」 「끓브」가 「알프」 「골프」로 發音될 것이요, 已받침이 略된다 하여, 「얹브」 「끓브」를 「아프」 「고프」로 發音된다면, 「끓브」가 「스프」로 發音될 것인가. 이것이 무튼 語源 表示로는 좋으나, 語音으로는 그러한 모순이 있어서, 배우는 자에게 막대한 곤란을 주게 될 것이다. 만일 語源 表示로만 주장을 삼는다면, 갈옷(皮衣), 솜씨(手巧), 무게(重量), 빨리(迅速), 멀리(遠), 즐기다(娛), 재우다(使寢), 세우다(使立)와 같은 말도 가죽옷, 손씨, 무겁이, 빠르이, 멀이, 즐겁이다, 자이우다, 서이우다로 써서, 각기 그 말의 語源을 꼭꼭 表示할 것인가. 또 極端으로 수물(二十), 설흔(三十), 마흔(四十), 쉰(五十)…이란 말들을 다 폐지하고, 들열, 셋열, 넷열, 다섯열……이란 말을 지어 쓸 수 있을까.

또 본연히 不規則인 줄 알면서도, 아원대로 그 一部나마 規則에 맞게 쓰자는 것이 있으니, 「따르다」(隨)란 말을 다른 로를 달아 쓸 때 「달으니」 「달아서」로 쓰고, 「아프다」(痛)를 「앞아서」 「앞으니」로 쓰며, 또 오르다(登)를 「올아서」로, 「흐르다」(流)를 「흠어서」로 쓰는 따위다. 만일 이와 같이 一部의 不規則을 편하기로 한다면, 「깃브다」(喜), 「빳브다」(忙), 「긏브다」(食慾) 「낮브다」(卑) 「믿브다」(可信)와 같은 말들도 다 「깃으니」, 「빃으니」, 「긏으니」, 「낮으니」, 「믿으니」로 써야만 될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지저분한 짓이냐. 우에 것이나 아레 것이나 다 마찬가지로의 一部 不規則일진대, 우에 것은 그리 쓸 수 있고 아레 것은 그리 못 쓴다는 무슨 理由도 없을 것이다. 그런즉, 이러한 말들은 一部이고 全部이고 둘을것 없이 모두 不規則으로 몰아 넣어서, 다만 表音式으로 적는 것이 가장 合理的한 처리라 한다.

이제 우리 말의 不規則 變格活用の 例를 별이어서 적으면 아래와 같다.

(7) 己의 줄은

줄지	않는것		주 는 것		
갈다(耕)	갈고	갈아서	가니	간	가오
길다(長)	길고	길어서	기니	긴	기오
놀다(遊)	놀고	놀아서	노니	논	노오
달다(甘)	달고	달아서	다니	단	다오
덜다(減)	덜고	덜어서	더니	던	더오
말다(勿)	말고	말아서	마니	만	마오
멀다(遠)	멀고	멀어서	머니	먼	머오
불다(吹)	불고	불어서	부니	분	부오
살다(生)	살고	살아서	사니	산	사오
알다(知)	알고	알아서	아니	안	아오
얼다(凍)	얼고	얼어서	어니	언	어오
울다(鳴)	울고	울어서	우니	운	우오
잘다(小)	잘고	잘아서	자니	잔	자오
졸다(眠)	졸고	졸아서	조니	존	조오
줄다(縮)	줄고	줄어서	주니	준	주오

질다(泥)	질고	질어서	지니	진	저오
팔다(買)	팔고	팔아서	파니	판	파오

(ㄴ) ㄴ의 줄음

줄지 않는 것			주 는 것		
긋다(畫)	긋고	긋는	그으니	그은	그어서
낫다(癒)	낫고	낫는	나으니	나은	나아서
붓다(腫)	붓고	붓는	부으니	부은	부어서
잇다(續)	잇고	잇는	이으니	이은	이어서
젓다(攪)	젓고	젓는	저으니	저은	저어서
짓다(作)	짓고	짓는	지으니	지은	지어서
짓다(抹)	짓고	짓는	지으니	지은	지어서

(ㄷ) ㄷ이 ㅌ(ㄴ)로 바뀌

바꾸지 않는 것				바 꾸 는 것		
곱다(美)	곱다	곱지	곱게	고오니	고와서	고온
덜다(暑)	덜고	덜지	덜게	더우니	더워서	더운
눅다(臥)	눅고	눅지	눅게	누우니	누워서	누운
돕다(助)	돕고	돕지	돕게	도오니	도와서	도온
춡다(寒)	춡고	춡지	춡게	추우니	추워서	추운
맵다(辛)	맵고	맵지	맵게	매우니	매워서	매운
냄다(煙)	냄고	냄지	냄게	내우니	내워서	내운
고맙다(謝)	고맙고	고맙지	고맙게	고마우니	고마워서	고마운
반갑다(喜)	반갑고	반갑지	반갑게	반가오니	반가와서	반가운
무겁다(重)	무겁고	무겁지	무겁게	무거우니	무거워서	무거운
가볍다(輕)	가볍고	가볍지	가볍게	가벼우니	가벼워서	가벼운
더럽다(醜)	더럽고	더럽지	더럽게	더러우니	더러워서	더러운
어렵다(難)	어렵고	어렵지	어렵게	어려우니	어려워서	어려운
새롭다(新)	새롭고	새롭지	새롭게	새토오니	새로와서	새로운
외롭다(孤)	외롭고	외롭지	외롭게	외토우니	외토와서	외로운
웃음다(笑)	웃음고	웃음지	웃음게	웃으우니	웃으워서	웃으운

(ㄷ) ㄷ이 ㄷ로 바꾸

바꾸지 않는 것			바 꾸 는 것		
걸다(步)	걸고	걸는	걸으니	걸어서	걸은
결다(構)	결고	결는	결으니	결어서	결은
깊다(汲)	깊고	깊는	깊으니	깊어서	깊은
듣다(聞)	듣고	듣는	들으니	들어서	들은
묻다(問)	묻고	묻는	물으니	물어서	물은
붙다(殖)	붙고	붙는	붙으니	붙어서	붙은

깨닫다(覺) 일컬다(稱)	깨닫고 일컬고	깨닫는 일컬는	깨달으니 일컬으니	깨달아서 일컬어서	깨달은 일컬은
(口) -가 줄음。					
끄다(消火)	끄니	끈	꺼서	꺼도	껏다
뜨다(浮)	뜨니	뜬	떠서	떠도	떴다
쓰다(書)	쓰니	쓴	써서	써도	썼다
크다(大)	크니	큰	켜서	켜도	켰다
르다(通)	르니	른	러서	러도	렀다
다그다(逼)	다그니	다근	다가서	다가도	다갸다
잠그다(鎖)	잠그니	잠근	잠가서	잠가도	잠갸다
따르다(隨)	따르니	따른	따라서	따라도	따랸다
치르다(經)	치르니	치른	치러서	치러도	치렀다
다다르다(臨)	다다르니	다다른	다다라서	다다라도	다다랸다
긋브다(食慾)	긋브니	긋븐	긋버서	긋버도	긋벗다
낮브다(卑)	낮브니	낮븐	낮바서	낮바도	낮밧다
믿브다(信)	믿브니	믿븐	믿버서	믿버도	믿벗다
기쁘다(喜)	기쁘니	기쁜	기뻐서	기뻐도	기뻐다
바쁘다(忙)	바쁘니	바쁜	바빠서	바빠도	바뻐다
예쁘다(美)	예쁘니	예쁜	예뻐서	예뻐도	예뻐다
고프다(飢)	고프니	고픈	고파서	고파도	고팠다
슬프다(悲)	슬프니	슬픈	슬피서	슬피도	슬팠다
아프다(病)	아프니	아픈	아파서	아파도	아팠다
(鼻) -가 줄고 리 더함					
가르다(分)	가르니	가른	갈라서	갈라도	갈랸다
고르다(調)	고르니	고른	골라서	골라도	골랸다
그르다(誤)	그르니	그른	글러서	글러도	글렀다
나르다(飛)	나르니	나른	날라서	날라도	날랸다
너르다(廣)	너르니	너른	널러서	널러도	널렀다
누르다(壓)	누르니	누른	눌러서	눌러도	눌렀다
다르다(異)	다르니	다른	달라서	달라도	달랸다
두르다(繞)	두르니	두른	들러서	들러도	들렀다
마르다(乾)	마르니	마른	말라서	말라도	말랸다
모르다(不知)	모르니	모른	몰라서	몰라도	몰랸다
무르다(軟)	무르니	무른	물러서	물러도	물렀다
바르다(正)	바르니	바른	발라서	발라도	발랸다
부르다(飽)	부르니	부른	볼러서	볼러도	볼렀다
오르다(登)	오르니	오른	올라서	올라도	올랸다
이르다(謂)	이르고	이른	일러서	일러도	일렀다

짜르다(短)	짜르니	짜른	찢라서	찢라도	찢랐다
찌르다(刺)	찌르니	찌른	찢러서	찢러도	찢렸다
흐르다(流)	흐르니	흐른	흘러서	흘러도	흘렀다

語幹의 不規則 變格活用은 대개 이와 같다。변가함을 피하여, 다만 實例만 들고 說明은 略하였다。그리고, 「이르다」(至), 「푸르다」(靑), 「누르다」(黃)와 같은 말은 語尾에 「어」를 쓰지 아니하고, 「러」를 써서, 「이르러」, 「푸르러」, 「누르러」로 쓰니, 이것은 語尾의 不規則이요, 「하야」혹 「하여」로 쓰는 것도 語尾의 不規則인 것이다。이 밖에 줄인말(畧語) 되는 경우도 있어, 「가아서」(往하야) 「사아서」(買하야)를 「가서」 「사서」로, 「그리어서」(畫하야) 「돌리어서」(歸하야)를 「그려서」 「돌려서」로, 「오아서」(來하야)를 「와서」로 쓰는 것과, 「이러하다」 「이러하고」 「이러하게」를 「이러다」 「이러코」 「이러케」로 쓰는 것도 다 같은 줄인말이다。그런데, 「이러다」를 흔히 「이렇다」로 쓰는 것이 있으니, 이것도 一部不規則을 면하자는 데 不過하다。

## 사이스 소리의 예와 이제

—中間音의 過去와 現在—

김 윤 경

- |                        |                      |
|------------------------|----------------------|
| 一. 제목의 뜻               | 五. 사이스 소리의 우아래의 씨    |
| 二. 찾아본 책들              | 六. 이제의 사이스소리의 쓰는 법   |
| 三. 사이스 소리를 쓴 예적 말의 보기들 | 七. 그러하면 사이스소리를 잊지 할까 |
| 四. 사이스 소리의 우아래의 소리     | 八. 끝 맺는 말            |

### = 여쭙는 말 =

우리 「한글」을 읽는 벗에게 이 글 쓰는 모기를 끝내기로 정하였다는 한 주일 전쯤에 「일본 글의 소리 적는 법의 변천」을 쓰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었습니다。그러하나, 나의 바쁨 쓸 기음(材料)을가지지 못한 탓으로 주저하다가, 다른 제목 「사이스 소리의 예와 이제」로 쓰기로 되었읍니다。그러하나, 또 「한글」을 읽는 이에게서 우리글의 소리 적는 법의 변천을 아무도 쓸이가 없게 되어서, 「소리 적는 법의 특별 모듬」으로 본새 없이 되었다고 다시 그것을 쓰라는 부탁을 받고, 그 제목으로 한 설흔 쪽까지만 쓰던 중이 었읍니다。그러하나, 또 그다음 날에 다시 전대로 씀이 좋겠다는 부탁을 받게 된 것입니다。그리되고 보니, 가음을 찾을 시간도 부족하고, 찾아 얻은 그 가음을 잘 벌이어 무슨 한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었읍니다。그러하므로 펴어 보이기엔 넘우 부끄러운 것임을 알면서도, 갈팡질팡하던 침음으로, 아직 이대로 내어 걸음을 용서하시고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쓰이。

### 一. 제목의 뜻

이제 쓰고저 하는 제목인 「사이스 소리의 예와 이제」라 한 「사이스 소리」의 뜻은 한 씨(날말)와 씨의 사이에서 그 우아래의 씨의 어느 것에도 물지 아니한 한 떠 소리(가음)가 들어남을 이룸이외다。그러하여, 그 소리를 예전에는 어떻게 적었든가 좀 찾아보고 이제 쓰는 버릇이 어떠한을 말하고, 다시 쓰는 이의 의견을 들어내고저 합니다。

## 二. 찾아 본 책들

에 적에는 이 소리를 어떻게 적었든가 알아 보려고 손엔 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수가 매우 적기도 한데, 더군다나, 그것도 알뜰히 읽으면서 찾아 보지 못하고, 대강 대강 훑어봄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龍飛御天歌

眞如世界

杜詩諺解

月印千江之曲

圓覺經

訓蒙字會

靈驗略抄

訓民正音

蘆溪集

(原稿에는 各書에 解題를 붙이었는데, 紙數의 關係로 그를 다 省略함)

## 三. 사이스 소리를 쓴 예적 말들의 보기들

### (一). ㄱ을 사이스 소리로 쓴 보기

洪亨ㄱ字종, 穰양ㄱ字종, 乃내終종 ㄱ소리(다 訓民正音), 東海ㄱ마시, 兄ㄱ뜨디, 平生ㄱ뜰, 遮陽ㄱ세쥐(다 龍飛御天歌), 瓶ㄱ소배, 王ㄱ出令(다 月印千江之曲), 靑靑(橋訓蒙字會)

### (二). ㄴ을 사이스 소리로 쓴 보기

君군ㄴ字종, 吞吞ㄴ字종(다 訓民正音), 몇間ㄴ집(龍飛御天歌); 두눈ㄴ스름(月印千江之曲)

### (三). ㄷ을 사이스 소리로 쓴 보기

侵침ㄷ字종, 覃담ㄷ字종(다 訓民正音), 品ㄷ字(圓覺經); 사ㄷ리집뜰(月印千江之曲) 뽕뽕(芣苢), 楸췘(荏), 糲쌀(糲), 외밭(粳), (다 訓蒙字會)

### (四). ㅂ을 사이스 소리로 쓴 보기

蚪뽕ㅂ字종, 斗뽕ㅂ字종, 漂뽕ㅂ字종(다 訓民正音)

### (五). ㅎ을 사이스 소리로 쓴 보기

快쾌ㅎ字종, 那낭ㅎ字종, 步뽕ㅎ字종, 彌밍ㅎ字종, 慈종ㅎ字종, 邪쌍ㅎ字종, 虛형ㅎ字종, 閭령ㅎ字종, 퍼더몬홍노미, 홍싸르미(다 訓民正音), 先考ㅎ뜰, 강길, 한홍뜰, 孝道홍뜰, 孝道홍아들(다 龍飛御天歌), 供養홍저, 孝順홍子息, 성강사름, 受若홍報, 홍사름, 命終홍나래, 밍굼저기, 홍중심, 길뽕사름, 버서뽕時節, 나홍제, 주기더 마를 디어늘, 처심뽕케, 뼈러뽕사름, 오삼부터, 뽕그지업수미(다 月印千江之曲)

### (六). ㅅ을 사이스 소리로 쓴 보기

오훈날, 英主ㅅ알뢰(前에). 數萬里ㅅ니미어시니, 님훈ㅅ슴, 님훈말쓰미, 하훈ㅅ슴, 天子ㅅㅅ슴, 나라ㅅ일홍, 훈모를, 太子ㅅ位, 後ㅅ날(다 龍飛御天歌)

### (七). ㅈ을 사이스 소리에 쓴 보기

性ㅈ字, 相ㅈ字, 錦ㅈ字(圓覺經), 여힐저기(月印千江之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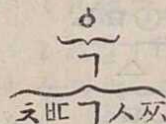
### (八). ㅊ을 사이스 소리로 쓴 보기

입시울쓰리, 正정齒칭ㅊ소리, 齒칭頭뽕ㅊ소리, 나라ㅊ말쓰미, 혀ㅊ그리, 나라ㅊ소리, 엄쓰리(牙音), 혀쓰리(舌音), 니쓰리(齒音), 가온뽕소리, 소리예ㅊ字(다 訓民正音), 아바님ㅊ뽕, 서불ㅊ使者, 마룬ㅊㅊ애, 깃ㅊㅊ애, 나라ㅊ小民, 하훈ㅊ벼리, 스ㅊㅊ軍馬, 서불ㅊ기뽕, 님훈ㅊ德, 서불ㅊ빈길, 어마ㄴ山陵, 아바ㄴ梓宮, 훈바을)다 龍飛御天歌), 부더ㅊ말슴, 如來ㅊ誠實, 菩薩ㅊ일홍, 부더ㅊ탑, 如來ㅊ像, 智ㅊㅊ시니, 神靈ㅊ德, 鐵圍ㅊ안해(內), 바룬ㅊ東녘, 菩薩ㅊ어마니, 菩薩ㅊ教化, 菩薩ㅊ頂, 欲간, 그ㅊㅊ罪人, 훈를, 아랫부터, 一念ㅊ쓰시, 나라ㅊ內, 이後ㅊ百千, 깃가온뽕, 마훈ㅊ장, 大士ㅊ히뜰, 오훈날, 하훈ㅊ福, 여러가지ㅊㅊ病, 여러가지ㅊㅊ풍류, 菩薩ㅊㅊ形像, 經ㅊㅊ소리, 아리ㅊㅊ業, 이훈初, 聖人ㅊㅊ像, 여러가지ㅊㅊ善, 千萬가지ㅊㅊ시름, 菜蔬ㅊㅊ니뜰, 淨提ㅊㅊ善行, 淨提ㅊㅊ男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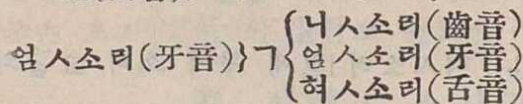
生死入罪, 受苦入소리, 菩薩入不思議, 本來入口슴, 菩薩入알피, 여러가지入뜻, 父母入恩愛, 大士入모래, 摩訶薩入뎡바기, 菩薩入本, 世尊入三昧力, 아바삼病, 太子入뜻, 아바삼목수미, 넷사름, 太子入모미, 太子入우희(다 月印千江之曲), 하삼氣運, 十月入즈오매, 히스비춘, 石壁入비춘, 崑崙아래, 우름플릿고리, 하삼寒氣, 仲冬入수이, 들결, 내름마술, 넷더리, 薛羅入서리(間) 雲水入氣運, 외섬리, 石壁入面, 서내西入녀키, 네스일, 漢入高祖, 몬뎡님금, 하삼훈마애, 戒馬入後, 四海入안, 湘水入름서리, 놀애入소리, 들범(群虎), 베크서리, 감마애, 嶽간, 蜀入溪, 浣花호르느름름西入덕머리에, 城郭入밧기, 훈雙入름들곤, 晉入王, 萬里橋入西入녀키, 百花潭入름, 蓮入고존, 淸알피(籬前), 마름두들기(江堤), 淸江마름훈고비(淸江一曲), 녀름江村, 름가온뎡가머기(水中鷗), 나짚히비치, 너와드름밧기니(烟塵外), 감거리, 迎風寒露館入玉壺, 님름음, 여름마름刺史(八州刺史), 御史入所著, 름盜賊(群盜), 름더(笳), 안사름(內人), 別卿入벼슬, 漏刻入소리, 畵옷(葛衣), 마름비름(秋風), 楚入대, 밧누비(衣雪), 梅花入름, 서름금(愁緒), 봄비춘(春光), 하삼又름氣運入가온뎡(天涯水氣中), 머러入알피(首前), 밧줄, 님름白玉堂, 님름金華省, 무뎡길(다 杜詩諺解), 닐줍가짚겨슬, 희光, 봄비름, 녀름비름, 마름비름, 겨름비름, 眞實入비름, 울엣소리, 나짚飲食, 한가짚것(다 眞如世界), 밧빋, 잠판 (다 蘆溪集), 하룻바리(一夜), 三寶入일홍, 如來入神力, 諸佛入智慧入根本, 字句入스시, 밧간(厠), 금음고(金銀庫), 저름대(衡), 났구(鉤), 났밤(餌), 밧뎡(帆), 삼대(筈), 공렷경(敬) (다 訓蒙字會)

#### 四. 사이스 소리의 우아레의 소리

(一). 기은 ㅇ 소리 밑과 ㄹ스기ㅁ스 소리들 우에서만 쓰임을 보겠읍니다. 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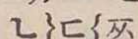


甘露入맛, 아릿災殃, 밧뎡(夜中), 惡道入름, 呪入일홍(다 靈驗略抄), 댓무우(蘿), 네가짚소리, 죇귀(字句), 본뎡소리, 字入겨리, 밧부리, 밧언덕, 밧기슭, 름가름(派), 밧又(潰), 밧를, 장밧미(薇), 구환국(菊), 름등(籐), 닝름금(檜), 호근淸등(橙), 사서렷감(茨), 털밤(箭), 댓가치(鶯), 름부터(瞳), 름두에(臉), 畵둑(瓜), 畵가락(指), 목우무(喉), 밧구무(睡), 름곱(晬), 또 다시 말하면 기은 「엄스소리」(牙音)와 「니스소리」(齒音), 「엄스소리」, 「히스소리」와의 사이에 쓰임을 알겠읍니다. 곧



한 말로 맺으면, 기은 「엄스소리」밑에 두어 「소리 고름의 법」(音의 調和法)을 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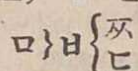
(二). ㄷ 은 ㄴ 밑과 ㄹ우에서만 쓰이엇읍니다. 곧



또 다시 말하면, 「혀소리」(舌音)와 「니스소리」(齒音)의 사이에 쓰이엇읍니다. 곧 「혀소리」(舌音) ㄷ 「기니스소리」(齒音)

ㄷ은 ㄴ 밑에 두어 소리 고름의 본을 삼앗읍니다.

(三). ㅁ 은 ㅂ 밑과 ㄹ우에서만 쓰이엇읍니다. 곧



또 「입지을소리」(唇音)와 「니스소리」, 「히스소리」와의 사이에 쓰이엇읍니다. 곧

「입시울스소리」(唇音) } 비 { 「니스소리」(齒音)  
 「히스소리」(舌音)

「입시울스소리」밑에 두어 소리 고름의 본을 삼은 것입니다。

(四). 빙 은 뭉 밑과 ㅈ 우에 쓰이엿습니다。

뭉 } 빙 { ㅈ

또 「입시울 개별은 소리」(唇輕音)와 「니스소리」의 사이에 쓰이엿습니다。

빙 은 「입시울 개별은 소리」 밑에 두어 소리 고름의 본을 삼은 것입니다。

(五). ㅇ 은 ○ 리 밑과 ㅈ 리 ㄴ ㅈ ㅊ ㄱ ○ ㅅ ㅈ ㅊ 우에 쓰이엿습니다。 곧

○ 리  
 ㅇ

ㄱ ㄴ ㄷ ㄹ ㅂ ㅅ ○

또 다시 말하면, 「목소리」(喉音), 「반혀스소리」(半舌音)와 「엄스소리」(牙音), 「히스소리」(舌音), 「입시울스소리」(唇音), 「닛소리」(齒音), 「목소리」(喉音)와의 사이에 쓰인 것입니다。 곧

「목소리」 } ㅇ { 「엄스소리」(牙音)  
 「반혀스소리」 } 「히스소리」(舌音)  
 「입시울스소리」(唇音)  
 「니스소리」(齒音)  
 「목소리」(喉音)

ㅇ 은 곧 「목소리」(喉音)와 「반혀스소리」(半舌音) 밑에 두어 소리 고름의 본을 삼는 것입니다。

(七). △ 은 ㄹ ○ ㄴ 밑과 ㄴ ㄹ ○ 우에 쓰이엿습니다。 곧

ㄹ ○ ㄴ  
 △  
 ㄴ ㄹ ○

또 다시 말하면, 「반혀스소리」(半舌音), 「목소리」(喉音), 「입시울스소리」(唇音), 「히스소리」(舌音)와 「혀스소리」(舌音), 「목소리」(喉音), 「입시울스소리」(唇音)와의 사이에 쓰이엿습니다。 곧

「반혀스소리」(半舌音) } △ { 「히스소리」(舌音)  
 「목소리」(喉音) } 「입시울스소리」(唇音)  
 「입시울스소리」(唇音) } 「목소리」(喉音)  
 「히스소리」(舌音)

△ 은 「반혀스소리」, 「목소리」, 「입시울스소리」, 「히스소리」 밑에 두어 소리 고름의 본을 삼은 것입니다。

(八). ㅅ 은 ㅎ ㄹ ㄹ 밑과 ㅈ ㅅ 우에 쓰이엿습니다。 곧

ㅎ ㄹ ㄹ  
 ㅅ  
 ㅈ ㅅ

다시 말하면, 「엄스소리」(牙音), 「입시울스소리」(唇音), 「반혀스소리」(半舌音)와 「니스소리」(齒音)의 사이에 쓰이엿습니다。 곧

「엄스소리」(牙音) } ㅅ { 「니스소리」(齒音)  
 「입시울스소리」(唇音) } 「반혀스소리」(半舌音)

ㅅ 은 「엄스소리」(牙音), 「입시울스소리」(唇音), 「반혀스소리」(半舌音) 밑에 두어 소





日...侵日字=侵의字

覃日字=覃의字

빙...蚪(烹)빙字=蚪의字

漂(浬)빙字=漂의字

ㅇ...快(浬)ㅇ字=快의字

彌(鳴)ㅇ字=彌의字

△...오늘날=오늘의날

英主△알피=英主의알피

나라△일홍=나라의일홍

눈물=눈의물

太子△位=太子의位

後△날=後의날

스...性스字=性의字

錦스字=錦의字

△...나라스소리=나라의소리

혀쓰리=혀의소리

서북使者=서북(京)의使者

스마불軍馬=스마불(鄉)의軍馬

부러스말씀=부러(佛)의말씀

그러한즉, 입씨와 입씨 사이의 「의」도를 줄임으로 두씨에 없는 세 소리를 내게 됨을 보람하(表하)기 위하여, 이 여러가지의 소리를 그 자리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면 그 뒤에 「스」으로 통일함 같이 한 가지 소리로만 적지, 왜 것처럼 여러 가지의 소리를 쓰느냐 하는 의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까닭이 있습니다. 또 「의」를 줄임은 같되, 그 결과로 들어 나는 소리는 다 각각 다른 까닭에 그 소리를 맞히기 위하여, 그 같이 여러 가지 소리를 사이 소리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면, 또 「의」 대신 들어 나는 소리만 맞히어 적지 왜 음리(音理)에 맞는 소리를 두고 맞지 않는 다른 소리를 쓰느냐 하는 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곧

「乃終」소리보다 「乃終스」가 더 맞고

「穰」字보다 「穰스」가 더 맞고

「君」字보다 「君스」가 더 맞고

「侵日」字보다 「侵스」가 더 맞고

「蚪」字보다 「蚪스」가 더 맞고

「快」字보다 「快스」가 더 맞고

「값길」보다 「갈」이 더 맞고

「孝道」보다 「孝道」가 더 맞고

「섬삼사람」보다 「섬삼스사람」이 더 맞고

「受苦」보다 「受苦」가 더 맞고

「命終」보다 「命終」이 더 맞고

「鳴」보다 「鳴」이 더 맞고

「값그저업수미」보다 「날」이 더 맞고

「님금말씀」보다 「님금말씀」이 더 맞고

「나라스일」보다 「나라일」이 더 맞고

「後」보다 「後」이 더 맞고

「하느벼리」보다 「하날」이 더 맞고

「들걸」보다 「들걸」이 더 맞고

「西」보다 「西」이 더 맞는다

하겠습니다. 그러하여, 「訓民正音」이나 「龍飛御天歌」나 「月印千江之曲」같은 가장 처음으로 한글로 적힌 책에 이처럼 여러 가지 다른 소리로 「의」로 줄어진 자리에 둘에는 이러한 규정(規定)이 숨어 있다고 보입니다. 곧 그 우의 말의 끝 소리와 같은 따위의 소리를 「의」 줄인 자리에 둔다 함이 그것이지요. 곧

「穰」字의 「穰」의 끝 소리가 「엄스소리」(牙音) ㅇ이기 때문에 그 밑에도 「엄스소리」를 둔 것이며

「君」字의 「君」의 끝 소리가 「혀스소리」(舌音) ㄴ이기 때문에 그 밑에도 「혀스소리」를 둔 것이며

「侵日」字의 「侵」의 끝 소리가 「입시울스소리」(唇音) ㅁ이기 때문에 그 밑에도 「입시울스소리」를 둔 것이며

「蚪」字의 「蚪」의 끝 소리가 「입시울개벼운소리」(唇輕音) ㅂ이기 때문에 그 밑에도 「입시울개벼운소리」를 둔 것이며

「邪」字의 끝 소리가 「목소리」(喉音) ㅇ이기 때문에 그 밑에도 「목소리」를 둔 것이외다.

그러하나, 「訓民正音」에는 이 우에 말한 규칙이 보이지 않는, 그 뒤에 나타난 스스스

에 대하여서는 도무지 그 규칙에 맞지 아니하였읍니다. 곧 △은 「龍飛御天歌」에 처음 나타나게 되고, 스은 「圓覺經」에 처음 들어나게 된 것입니다. 쓴 모양은 좀 다르나, 「月印千江之曲」에서 「여월 찌과」라 함을 보았는데 「적」이 「時」의 우리 말인즉, 「찌」(그 때에는 받침을 아래 첫 소리로 옮기어 적는 버릇이 있어서 「찌과」로 될 뿐)은 곧 「스」의 사이스 소리가 아래 말에 합친 것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스 쓰는 법은 이미 「訓民正音」에 「齒頭入소리」라 하여, 「頭」의 끝 소리 되는 「입시을 개별은 소리」 명임에도 불구하고(不拘)하고 ㅅ을 아니 쓰고, 「니入소리」(齒音) ㅅ을 썼으며, 「엄쓰리」라 하여 「엄」의 끝 소리가 「입시을入소리」(唇音) ㅅ임에도 불구하고 ㅅ을 아니 쓰고, 「니入소리」(齒音) ㅅ을 썼으며, 「나라入말씀미」, 「혀쓰리」라 하여 「나라」와 「혀」의 끝 소리가 「족소리」(喉音) ㅇ임에도 불구하고 ㅎ을 아니 쓰고 「니入소리」(齒音) ㅅ을 썼읍니다. 이것은 「訓民正音」 자체(自體) 안에 모순(矛盾)을 가진 것이라 보겠읍니다.

그리고 본즉, 이 「사이入소리 적는 법」(中間音處理法)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법이 없었다고 단언(斷言)할 수 밖에 없읍니다.

둘째는 움직(動詞)말에 ㄹ로나 ㄹ 끝 소리 된 ㄹ과 임씨(名詞) 사이에 쓰이엇읍니다. 여기에 임씨와 임씨 사이와 같이 그렇게 여러 가지 소리를 쓰지 아니하고, 다만 ㅎ만이 쓰이엇읍니다. 「訓民正音」에 「퍼디 몬흥노미」, 「흥쓰르미」라 하여, 암씨(名詞) 후에 얹히어 미래(未來)를 보이는 「홀」이라는 말과 「놈」, 「쓰름」이라는 임씨(名詞)의 사이에 ㅎ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한 임씨와 임씨 사이에 쓰이는 소리들 처럼 무엇(「의」)을 줄인 대신으로 쓴다는 법이 서어 있음이 아니고, 임씨 후에 얹히어 쓰일 임씨의 끝에 붙은 ㄹ이나 임씨 후에 얹힐 움직의 미래(未來) 때를 보이기 위하여 붙인 ㄹ 말에만 일어나는 버릇 소리(習慣音)를 들어내기 위하여 쓰는 것입니다.

임씨 끝의 ㄹ 말에 쓰이는 보기로는

「일기군」, 「팔도」(八道), 「술스집」, 「불도」(佛道), 「헌법」(憲法)과

움씨 끝의 ㄹ로 되는 ㄹ 말에 쓰이는 보기로는

「을스제」, 「불스사람」, 「줄스밥」이

그 것입니다. 그러나, 그 ㄹ의 처음 닿소리가 이미 더 단단할 수 없이 된 소리면 말의 소리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 하므로, 후에 말한 경우의 ㄹ 말이라도 사이스 소리를 쓰지 않게 됩니다. 가령

「일터」, 「술판」(鑪板), 「벌키」와

「할터」, 「을 마담」, 「쌀갈」, 「잇을 팔」이

그 보기라 하겠읍니다.

ㅎ 밖에 스도 움직 ㄹ로 ㄹ 말에 쓰임이 있는데, 「月印千江之曲」에 「여월 찌과」라 한 「찌」의 스가 그것입니다. 그 밖에는 보기를 더 찾지 못하였읍니다.

또 임씨 말에 붙은 「예」(예) ㄹ로 말에도 사이스 소리를 씌어 있으니, 「訓民正音」에 「소리엿字」라 하여 「소리」란 쓰임에 「예」(곧 「예」) ㄹ로 말고, 스을 또 닮이 그 것이외다. 그러나, 이것도 「의」의 줄음을 보람하는 것이니, 「예」는 ㄹ 소리로 쓰인 것이므로, 「소리의 字」라 할 것을 「소리入字」라 하면 이미 첫째에서 말한 법칙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는 「소리에의 字」라 하여, 「소리에 대한 字」의 뜻을 줄인 것이 「소리엿 字」(即 소리에入字)로 되었다.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또 임씨 밑 음씨 우에 入을 씌어 잇으니, 「月印千江之曲」에 「智入초시니」라 하여, 임씨 「智」와 음씨 「초」(滿)의 사이에 쓴 것입니다。그러하나, 이것은 「智 | 초시니」 곧 「智가 초시니」의 잘못이 아닌가 의심됩니다。이 보기를 다만 이 하나 밖에 찾지 못함이, 더욱 그 의심을 일으키게 합니다。그러하나, 이것이 잘못 적힘이 아니고, 그러한 법이 잇다 하면, 이는 「가」로의 줄임을 보이려고 쓴 것이라 보겠습니다。

또 「杜詩諺解」에 「마름훈고락」(江一曲)라 하여, 임씨 밑과 언씨(冠詞) 우에 쓰임이 잇으나 이는 「마름」이 「고락」란 임씨와 열락되고, 「훈」이란 언씨와는 관계 없으므로, 「마름고락」과 같이 될 것이라고 보는 때문에 이것도 첫째의 법대로 임씨와 임씨 사이의 「의」를 줄인 대신으로 들어나는 소리를 적기 위함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한즉, 예적의 「사이니 소리」는 소리갈의(聲音學上) 소리의 고름과 말본의(文法學上) 「달림것」(註) 중 「의」의 줄어진 자리와 「ㄹ」 또는 「을」의 다음에 쓴 것이 잇습니다。

- (註) 김두봉 선생의 「조선말본」의 「것씨」 중 「없음 달림것」과 「그림 달림것」,
- 이규영 선생의 「現今朝鮮文典」의 「것씨」 중 「달림것」,
- 이상훈 선생의 「朝鮮語文法」의 「體語修飾助詞」의 대문등을 보아 주시오。

## 六. 이제의 사잇 소리의 쓰는 법

이미 말한대로 「훈몽자회」(訓蒙字會)는 우리 한글의 역사상에 가장 큰 변동을 일으키어 주었고, 또 그 뒤로 四백 여년 동안은 아무 연구(研究)도 없이 거저 소경처럼 「훈몽자회」의 본을 따르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인 고로, 「사잇소리」에 대한 처리도 무리하게, 또는 무법하게 스으로 통일하여 쓰거나, 「사잇소리」 잇어야 될만한 자리에도 없이하기 때문에 말의 소리에 맞지 아니하게 됨이 오늘 날의 현상(現狀)입니다。

「뒗것」, 「뒗날」, 「뒗들」, 「뒗물」, 「뒗말」, 「뒗자손」, 「웃웃」 따위와 같이 쓰는 것입니다。이것은 「달림것」의 「의」를 줄인 자리에 쓰는 법이지만, 음리(音理)에는 도무지 맞게 적기 어렵습니다。또 「달림것」의 「ㄹ」이나 「을」 다음에는 사잇 소리를 별로 쓰지 아니하므로, 또한 말의 소리와는 맞지 아니합니다。이는 맞는지 아니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같이 함이라 하겠습니다。 곧

「오실스 제」를 「오실제」, 「할스수」를 「할수」, 「할스줄」을 「할줄」, 「할니바」를 「할바」, 「할기것」을 「할것」, 「쓸니대」를 「쓸대」

따위로 적기 때문에 도무지 말의 소리와 적어 놓은 글의 소리는 서로 맞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이는 음리(音理)에 무식한 탓이라 하겠으나, 알고도 버릇으로 그대로 쓰는 이도 있습니다。또 먼저 말한 「의」의 줄임에도 우의 임씨가 「ㄹ」 끝소리로 된 밑에는 ㄱㄹㅁㅅㅋㄷ고ㅎ 밖의 모든 「닿소리」 우에서는 반드시 사잇 소리가 들어가게 되전마는 스도 두지 아니 하므로, 말의 소리와 틀리게 적읍니다。 곧

「일기구멍」을 「일구멍」, 「일스자리」를 「일자리」, 「새끼줄니도막」을 「새끼줄도막」, 「물기걸」을 「물걸」, 「팔니도」를 「팔도」,

따위로 그릇 적으며, 또

「분스수」(分數)를 「분수」(이는 우리 말과 먼 뜻의 말이 됨), 「대스수」(大數, 代數)를 「대수」(이도 우리 말과 먼 뜻 됨), 「이파」(理科)를 「리파」(이는 한문에서 종 된 뜻),

따위로 잘못 적음도 많습니다。

## 七. 그러하면 사잇 소리를 어찌할까

그러하면, 이 사잇 소리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을 쓰고, 이 글을 끝맺으려 합니다。 나는 지난 해 五월에 교내 잡지 「배화」(培花)에 대한 글 전부를 이제 말하려는 표준으로 박히어낸 일이 있었으나, 둘러기(公布)까지 하였다가, 당국의 고으리는 점이 있어서, 전부 건우어맡히고 말았습니다 마는, 이제 그 표준을 간단히 말하면, 『씨와 씨의 사이에서 도를 줄임으로 인하여, 또는 버릇으로 인하여 말의 소리가 바뀌게 될 때에는 그 바뀐 소리에서 아래 씨의 첫 소리를 뺀 남아지 소리를 그 두 씨의 사이에 둔다。』

함입니다。 가령 「조밥」(粟飯)이란 말은 「조」란 임씨와 「밥」이란 임씨가 모이어 된 것이지 마는, 버릇으로 「팝」소리로 내게 됨을, 적고저 함에는 「팝」에서 「밥」을 뺀 남아지의 소리 되는 「ㅎ」를 그 사이에 두어 「조ㅎ밥」이라 적고, 「물결」이란 말은 「물」과 「결」이 어울리어 된 말인 고로 「결」에서 「결」을 뺀 「기」를 그 사이에 두어 「물기결」이라 적고, 「줄도막」은 「줄」과 「도막」의 모인 말인즉 「ㄷ」을 그 사이에 두어 「줄ㄷ도막」이라 적고, 「일짜리」는 「일」과 「자리」의 모인 말인 고로 「즈」를 그 사이에 두어 「일즈자리」라 적을 것입니다。 그 남아지도 다 이에 비쳐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씨와 씨가 모이어 됨이 분명하더라도, 그것이 한 새 씨와 같이 되었다고 볼 때에는 「대入수」라 적지 않고 『대수』, 『분入수』라 적지 않고 『분수』, 『일기군』이라 적지 않고 『일군』, 『방아기간』이라 적지 않고 『방아간』으로 적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이에 생각나는 바를 한가지 말하고자 하는 것은 『雌』 『雄』에 대한 우리 말이 예전 부러 『암』과 『수』라고 보이나 (訓蒙字會) 이제는 『詰』, 『송』로 변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고 생각 되는 것은, 어느 낱소리 우에서든지 『ㅎ』 소리를 들어내는 까닭입니다。 곧 『암ㅎ개』(암개), 『수ㅎ닭』(수닭), 『암ㅎ병아리』(암평아리), 『수ㅎ곰』(수곰) 따위와 같이 늘 『詰』 『송』로 소리가 나는 까닭입니다。 『안ㅎ밖』(內外) 같은 것은 『ㅎ』이 버릇으로 나는 사잇 소리라고 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혹은 이 같이 중간에 딴 소리를 적는 것이 꼭 거폐스럽다고 반대하나, 학술의 질리가 잇는 바에야 잠시 의히는 동안의 수고를 아낄 수가 없다고 생각하겠고, 또 과학의 질리를 찾을 필요 없다면, 한글 정리니 문법 통일이니 하는 것도 다 집어 치우고, 무법한 오늘대로 둬서 제일 좋겠다고 보겠습니다。

## 八. 끝 맺는 말

가슴도 많지 못한데다가, 덕군다나 가지 가슴에서도 시간의 모자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찾고 뒤지지 못하였고, 또 찾아 얻은 가슴만 가지고라도 깊이 따지고 견주어 보고 생각하여 불만한 여유가 도무지 없었습니다。 이 글이야 말로 요사이 같이 바쁜 때에 쓰게 되어,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며칠 밤을 새고서도 글은 글답게 못되었습니다。 또 생각 나는 것도 못 다 쓴 듯한 것이 있으나, 이미 쓰기를 마치고서도 다시 한번 훑어볼 시간도 없어서, 어지러운 생각, 어지러운 붓으로 쓴 것을 그대로 보내오니, 모든 틀린 것, 빠진 것, 모자람은 보이는데로 잊지 말고 알려 주시기를 독자 여러분과 『한글』 엮는 이 언니(李兄)께 바랍니다。 (一九三二, 六, 一二, 늦은 밤 누각물에서)

### 質 疑 解 答

【물음】 一. 朝鮮總督府 朝鮮語讀本에 있는 한글과 一般 社會에서 쓰는 한글과의 差異가 如何?

二. 今番 改正된 한글의 由來와 改正 要點을 들어 說明하여 주시오.

(慶南 昌原 中里洞 韓昌道)

【대답】 一. 朝鮮語讀本에 쓰인 것이나 一般 社會에서 쓰는 것이나 다 같은 한글입니다. 한글은 여러가지가 있지 아니합니다. 다 같은 한글로써 다만 그 綴字法이 多少間 다를뿐입니다. 또 一般 社會라 하지마는, 요새 행용하는 한글 綴字式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러케 다른 것을 각기 나눈다면 이야말로 千差萬別일 것입니다. 그러나, 朝鮮語讀本에 쓴 것과의 差異는 무론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二. 改正된 한글이라 함은 무엇을 意味하여 물으신 말씀입니까. 혹시 이것도 綴字에 對하여 물으십니까 하여 그대로 대답합니다. 우리 朝鮮語學會에서는 綴字法 改正이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고, 總督府에서는 數年前에 改正綴字法을 發表하여 지금 實施中입니다. 그 由來에 대하여도 本誌 이번호(第一卷 第一號) 김운경씨의 쓴 『한글 적기 바뀐』이란 論文中 第10頁을 참고하십시오. 改正 要點도 거기에 맞추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간단히 그 改正된 要點을 들면, 대개 이 세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一). 純粹한 朝鮮語나 漢字音을 물론하고 다 表音式으로 쓰는 것.

(二). 終聲(받침)은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ㄴㅇ ㄹㅇ ㄷㅇ ㄹㅇ ㅂㅇ ㅅㅇ ㅈㅇ ㅊㅇ ㅍㅇ ㅍㅇ ㅍㅇ 등 열아홉 개를

더 쓰는 것.

(三). 된시옷을 並書法 ㄸ ㅃ ㅆ ㅈ ㅊ 로 고친 것. (李允宰)

【물음】 崔鉉培 先生의 씨가름(한글 第一號)에 『꼭식이 익기도전에』 할 때 『전에』를 토씨라 하였는데, 그러면 『익을 때』의 『때』도 토씨입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나무밑에, 冊속에, 사람들가운데』 할 적에 『밑에, 속에, 가운데』가 모도 토씨이겠습니까? 『나무 밑을 찾아 간다』 할 적의 『밑을』을 토씨라 하겠습니까? 或은 『밑』을 이름씨로 보는 것이 妥當하겠습니까? 『밑에』를 토씨라 하면 『밑을』도 亦是 토씨로 보는 수 밖에 없지마는.

(○生)

【대답】 『익기전에』의 『전에』를 토씨로 보았습니다. 따라 당신 말씀과 같이 『나무밑에, 冊속에, 사람들가운데』의 『밑에, 속에, 가운데』의 따위도 토씨로 보고져 합니다. 그 까닭은 대략 이러합니다.

元來 토씨에는 그 成立으로 보아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아예부터 토씨이니 이를 본래 토씨(本來助辭)라 하고, 다른 하나는 다른 씨에서 變하여 된 것이니, 이를 된토씨 轉成助詞)라 합니다. 이 된 토씨에는 음측씨에서 된 것 (붙어—→부터, 좃아—→조차, 의 따위)도 있으며, 이름씨와 토씨가 어울려서 된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말한 『밑에, 속에, 안에, 가운데, 밖에, 우에, 아레』 따위는 곧 이름씨와 토씨가 어울려서 된 것이다. 그러나 『좃아, 붙어』가 언제든지 토씨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 本來의 能職인 음측씨 노릇을 하는 경우도 決코 적지 아니할과 같이, 『전에, 속에, 밑에』 따위도 언제든지 토씨로만 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이다. 더구나 『나무 밑을 찾아 간다』의 『밑』은 그 월(文)의 目的語가 된 것인즉 勿論

### 本會記事

이름씨이지, 도씨는 아니외다。전에, 밑에, 밖에』 따위를 도씨로 보아 다루면 매우 便利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익을 때에』의 『때에』는 결코 도씨가 아니올시다。이것은 그 쓰힘(用法)이 확실히 저것과는 다릅니다。도씨(앞에든 전에 속에...)는 이름씨아래 쓰히는 것이 예사이요, 極히 少數는 풀이씨(用言)밑에 쓰히기도 하지마는 결코 『익을』과 같은 어면꼴(冠形詞形, 連體形)아래 쓰히는 일이 없습니다。어면꼴 아래는 임자씨——이름씨가 오는 것이 우리말의 通則이외다。(최현배)

六月 五日에 白樂濬님이 入會하다。

六月 十一日에 서울 水標町 四二番地 本會 會館에서 月例會를 열고, 申明均님의 「음 받침 問題」에 對한 講演이 있었다。

七月 九日에 水標町 四二番地 本會 會館에서 月例會를 열고, 金善琪님의 「소리저레(Phoneme)」에 對한 講演이 있고, 東亞日報社 主催의 第二回 夏期 한글 講習會에 對한 의논이 있었다。

### 寄贈雜誌

△아 이생활 △佛敎 △東光 △天道敎月報 △우리를 △三千里 以上은 六月號 △培花 第四號 △佛敎 △新生 △青年 以上은 七月號

## 社告

本誌 編輯 同人이 이번 東亞日報社 主催의 한글 講習會를 맡아 다 各 地方으로 가게 되는 關係上, 부득이 八月 한달은 休刊하게 되오니, 愛讀 諸氏는 惠恕하시기를 바라나이다。

### ◇남은말씀◇

□어느 대나 늘 그러하지마는 이번 호는 더욱 늦었습니다。기만 하여 사과할 길이 없습니다。이 호의 지수(紙數)가 예전보다 많이 훨씬 넘고, 인쇄소의 사정도 있기 때문일입니다。또 귀중한 글 가운데 간혹 틀린 곳도 있어서, 쓰신이게 죄송함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이번 호는 주시경 선생을 기림하는 뜻으로 철자특집(綴字特輯)을 내기로 되어, 이 뜻에 맞는 것만 실으기로 하였기 때문에, 여러 분께서 모처럼 써 보내 주신 글을 다 실을지 못하였으며, 또 먼저 호에서 계속되어 오는 이호성씨의 [한글 교수에 대하여]도 실을지 아니하였읍니다。다음 호에는 다 실으기로 하겠읍니다。

□여러 분의 한글의 대한 연구나 혹은 견발표하실 일이나 많이 써 보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원고는 필수 있는대로 매월 이십오일 안으로 보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나이다。(윤재)

### 投稿歡迎

- 一. 한글에 關한 研究論文 및 研究資料等。
- 一. 隱名을 쓰실지라도, 本社에까지는 姓名 住所를 밝히 써 주실 일。
- 一. 添刪과 記載 與否는 編輯部의 權限에 있음。
- 一. 原稿는 一切 返還하지 아니함。

### 創刊號를

請求하시는분께  
本誌 創刊號는 이미 다 나가고 남은 것이 없읍니다。創刊號를 請求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나, 보내어 드리지 못하여, 매우 미안합니다。本社에서는 장차 創刊號를 再版하여, 愛讀 諸氏의 뜻을 맞추어 드리려 합니다。

### ◁社告▷

地方에서 支社 혹 分社를 차리기를 원하시는분은 本社로 물으시든지, 郵票 二錢짜리를 보내시오。

昭和七年 七月 十七日 印刷  
昭和七年 七月 十九日 發行  
한글 第一卷 第三號 [特價二十五錢]

定價 { 一部 十五錢  
六個月 八十錢  
一箇年 一圓六十錢

京城府 水標町 四二  
編輯兼 申 明 均  
發行人  
京城府 水標町 四二  
印刷者 李 炳 華  
京城府 水標町 四二  
印刷所 新 少年社 印刷部  
京城府 水標町 四二  
發行所 朝 鮮 語 學 會  
電(光)一三九九番  
振京一〇〇四四番  
京城府 慶雲洞 九六  
總販賣所 中央 印 書 館  
電(光)一一九三  
振京一二一七八

昭和七年七月十九日發行 (每月一回一日發行)  
昭和七年五月一日 (第三種郵便物認可)

納涼

# 新東亞

八月號

- ◇朝鮮農村救濟策..... 裴成龍
- ◇世界各國農村策..... 一記
- ◇中小商工救濟策..... 徐椿人
- ◇強力의 哲學家 니체..... 笑亭

世界 올림픽에 나간 權·金兩君의 陣容

- 弱肉強食하는山野의 動物界..... 金華山人
- 癩患者의 恩人 崔興琮牧師..... 一記

慶州 旅行記 金剛山 妙香山 紹介

- ◇六月의 二大革命...暹羅와 望利..... 主 요 섭
- ◇朝鮮日報事件의 眞狀暴露..... 主 요 섭
- ◇探偵小說 英人의 秘密(完結篇)..... 主 요 섭

家輯  
庭  
特欄

- 主婦의 여름日記..... 主 요 섭
- 女子斷髮是非論..... 牛灘金
- 家庭夏期衛生..... 李金
- 女學生時代夏休追憶..... 諸
- 올림픽女子選手인파레드..... 諸
- 名士家庭訪問記(申興雨, 吳兢善, 俞億兼, 白樂滯, 尹致昊, 李康賢, 諸氏家庭解剖)

= 밤의 都市 =

都市의 밤 =

- 서울의 밤
- 東京의 밤
- 뉴욕의 밤
- 할빈의 밤
- 上海의 밤

沙里院 行進曲...  
釜山 行進曲...

其他文藝·趣味等滿載

發行所

三十錢

振替京城一四五〇〇  
新東亞社  
京城府光化門通

納涼  
七月號

# 三千里

好評裡  
發賣!

定價 二十錢

(重要目次)

- ◎三千里全體會議
- 五億圓負債와 모라..... 鄭廣朝
- 六千三百萬圓運動..... 徐椿
- 金昶濟, 尹致昊, 宋鎮禹演說評
- 二十餘氏의 行方搜索.....
- 中國革命의 朝鮮飛行家.....
- 朝鮮運動의 諸陣容展望
- 農民總同盟..... 李智鐸
- 樞友會에 全而容..... 金銀姬
- 衡平社의 陣容..... 魚龜善
- 天才教育의 是非..... 諸氏
- 行進하는 青年愛蘭.....
- 못소더니의 黃禍論.....
- 朝鮮 中央日報
- 人格있는 第三者에게..... 李仁
- 警務當局權力으로..... 鄭錫泰
- 적어도 十萬圓準備..... 金炳魯
- 大衆의 信任받는 이에..... 韓龍雲
- 第三者의 손을 빌밖..... 朴熙道

- 日中과 太平洋風雲..... 元世勳
- 露領朝鮮同胞近況..... 金東秀
- 不遠出隘의 梁槿煥.....
- 最近의 北滿情勢..... 金璟載
- 記者十年波瀾史..... 諸氏
- 좌파린會見記..... 徐光霽
- 三年內에 自由人 될 罪囚들.....
- 개베우 監獄受難記..... 吳石舟
- 올림픽大會에 가며..... 權泰夏
- 禁酒法이 實施되면..... 諸氏
- 露西亞의 婦人生活..... 李蒙
- 出獄한 朴昊辰女史..... 女記者
- 開化黨의 映畫化하기까지..... 羅雲奎
- 白衣女工의 死.....
- 버리고 간 愛人에게..... 諸氏
- 美術展覽會評..... 羅蕙錫
- 露西亞의 演劇映畫..... 海松
- 開化黨..... 羅雲奎

特輯  
畫報  
海雲臺의 明沙十里  
秀文士의 近影

振替京城四二八四番  
二千里社  
京城府貫鐵洞五九